



5

198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5호

(루계 463)



## ◆◆◆◆◆ 차 례 ◆◆◆◆◆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	4
백두의 천지 .....	6
영원한 향도의 별 .....	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	8
당의 의지 안고 .....	8
꽃이 되어 향기 되어 .....	9
당을 따르는 마음 .....	9
만수대의 설풍경 .....	10
못잊을 그날의 눈송이 .....	11
감동깊이 밝혀낸 심오한 진리 .....	12
내가 자랐구나 .....	14
고 향 .....	15
물에 비낀 세월 .....	26
산촌의 미소 .....	27
포전길에서 .....	36
들끓는 땅에서 .....	37
내가 서있는곳 .....	39
《높은곳에서 사는 사람들》 .....	40

금폴녀인의 이야기 .....	42
기적소리 없는 도시에서 (외1편) .....	42
한 군당일군에 대한 이야기 .....	43
대답해주마 (외1편) .....	44
네가 선 자리 .....	44
서부도이첼란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의 생애와 창작활동에 대하여 .....	45
숫눈길 .....	48
당이 준 심장 혁명위해 바치리 .....	55
마음의 계절 .....	56
나는 못떠나 .....	63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는 견지에서 볼때 .....	64
암 운 .....	69
속담풀이 .....	77
광주의 원한 .....	78

##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창작적과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이 오늘 우리 혁명과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와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인민경제를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없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도 하루빨리 이룩할수 없다.

사실상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다. 기술이 모든것을 해결하며 과학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는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에게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그것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들이며 그 주인이며 핵심력량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자기들의 중요한 사명을 자각하고 일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다름아닌 그들의 준비와 각오 정도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이 담보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다.

우리 혁명의 각이한 단계와 더불어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여온 머리 흰 과학자, 기술자들로 부터 해방후에 태어났고 해방후에 교육을 받아 현대 과학의 깊은 지식과 경험들로 무장한 새세대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오는 날을 따라 장성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한생을 묵묵히 과학탐구에 바쳐가는 사람들의 미더운 형상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그들의 숭고한 성격적미, 아름답고 고결하고 리지적인 그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옹골케 형상할 때 그리고 과학연구사업과 일상생활속에서 발양되고 있는 탐구적인 사색의 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그리게 될 때 우리 문학은 참으로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자기의 의무를 다할수 있으며 현시기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사회적문제에 옹골케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혁명을 위해서는 한몸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적성격을 옹골케 형상하는것이다.

말하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 기술적문제라고 해도 서슴없이 받아안고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높은 충실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원료, 연료, 동력의 개발리용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기술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기술 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 위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충성심은 바로 이러한 기술혁명의 제반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데서 발휘된다. 충성심은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우리 시대 과학자, 기

술자들의 전형적성격에서 그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정짓는 핵이며 모든 성격미 즉 과학적신조와 완강성, 헌신성과 희생성 등이 흘러나오게 되는 바탕이다. 충실성, 이것이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을 특징짓는 첫째가는 징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충성심이 과학적신조를 낳고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며 청춘도 사랑도 다 바치는 희생성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 바쳐가는 순간순간은 당과 수령께 바쳐가는 충성의 순간순간이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바쳐가는 과학탐구의 한생도 역시 그러한 한생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과학자들의 자량과 영예가 있으며 행복이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러한 성격의 핵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80년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적성격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창조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에서 발휘되는 그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과학탐구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그 길에는 난관도 있고 쓰라린 실패도 있으며 때로는 희생도 있다. 그러나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 낙망하지 않으며 온갖 애로와 곤난을 박차고 중요없이 완강한 의지로 끝까지 투쟁해나감으로써 비로소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고 성공하게 될 때 그들의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서도 그 누구나 따를 수 없는 비상한 정력과 투지를 지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났고 당의 령도 밑에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그렇게 과학적신념이 투철하고 의지가 굳세며 미래에 대한 낙관에 충만된 그런 과학자, 기술자들은 없다. 그들은 10년해서 안되면 20년, 20년해서 안되면 30년, 40년 아니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서라도 기어이 성공하고야 마는 사람들이며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것들이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의 전형적특질이며 본질이다.

우리가 다 알고있는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인공 유설경과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의 주인공 유연이를 비롯하여 이미 문학예술작품들에 그려진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80년대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적성격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그들의 인간적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은 단조롭고 따분할것이라고만 생각하거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만을 알고 다른데는 전혀 무관심한 딱딱하고 메마른 사람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것이다.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리상과 꿈이 있고 랑만이 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을 모르며 미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사랑과 의리와 우정을 알고 생활에서의 고민과 과학연구에서의 고충을 안다.

우리 작가들은 그들의 풍부한 내면세계와 정신적아름다움을 옹골 있게 그려냄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작가들은 생활을 도해하게 되고 형상을 도식화하게 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어수비수한 외형과 성격을 가진 무개성적인 인간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것이다. 우리가 과학자, 기술자들을 숨쉬고 움직이는 인간, 사랑할줄 알고 사색할줄 알며 그 정신적세계가 높은 인간으로 그리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그러한 형상에서 우리 시대의 과학자, 기술자의 참다운 전형을 볼 수 있게 되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또한 일부 사람들 특히 지도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과학기술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정확히 가려보고 그 개조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것은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한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현상, 눈앞의 생산에만

주의를 돌리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태도, 기술신비주의, 보신주의, 경험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의연히 있으며 우리의 과학과 기술은 바로 그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투쟁속에서 발전해나간다.

새것의 탄생은 항상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며 그 투쟁속에서 새것이 승리하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현실속에는 아직 공청능력이 따로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무턱대고 생산을 많이 내라고만 하는 무식한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의문시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있는 사람들도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청능력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생산만 늘이라고 내리누르는것은 과학기술을 무시하는 그릇된 사상관점에서 나오는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긍정적주인공들인 과학자, 기술자들과 부정인물들인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를 가지고있는 지도일꾼들과의 인간관계, 갈등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해결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더 진실하고 생동하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창조적협조의 관계를 잘 형상하며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속에서 기술적창안과 발기 그자체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고있는 현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에 담아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옳게 구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백두의 천지

리동후

맑고 푸른 수면우에  
아아히 솟은 령봉들이 비끼여  
웅심깊은 백두의 천지  
네 그리도 숭엄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찬연한 해발 다 모아안고  
바다마냥 차넘친 산상의 호수  
노을빛 자락으로 제모습 단장하며  
호연히 창공에 미소지어라

달아오른 이 가슴 진정할길 바이없어  
천지의 기슭에 다가서니  
저 백두의 령봉 넘어  
흘러간 세기와 년대들이  
여기에 다 펼쳐지는듯

들려와라, 바람결에 실려오는  
천리수해의 설레임속에서도  
설령을 헤쳐 넘던 붉은기의 펄럭임소리

짜웁길 다그치던 투사들의 발구름소리

아, 광복의 봄 이 땅에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그 위엄  
선렬들의 붉은 땀이 어려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여

성스러운 그 정신 가슴에 새기고저  
길없는 밀림속 진대를 넘어  
백두산상에 오르며 환성을 터치는  
답사대원들과 외국의 벗들  
끊임없이 발걸음 여기로 이어지나니

아, 백두의 천지  
맑은 정기를 가슴마다 부어주며  
혁명의 열정으로 온몸을 끓여주는  
너는 영원토록 마를줄 모르는  
인류생명수의 바다!

# 영원한 향도의 별

조사이어 이. 무풍고

향도의 별

그 빛발 눈부시게 비치니  
고요하던 숲속엔  
새들이 지저귀고  
검은 비구름 저 멀리 사라집니다

그 빛발 받아안은 하늘과 대지  
맑게 개인 창공과  
희망 넘친 대지에는  
어디 가나 사랑과 생활이 약동합니다  
신심도 드높이

구름도 폭풍도 멈출수 없습니다.  
밝은 빛 뿌리는 별  
충실한 인민에 대한 사랑 안고  
뿌리는 밝은 빛발을

향도의 별 당신은 사랑과 희망  
당신은 신심과 힘과 확신을 안겨주십니다  
당신은 인류의 자랑  
당신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예언자이십니다

향도의 별  
그 사랑의 빛발은 축복받은 대지에 내리는 봄비  
연약한 식물들 소생시키고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빛발입니다

아름다운 보통강가의 창광원  
문수거리의 평양산원  
이는 곧 충실한 조선인민에게  
돌려지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향도의 별  
그 사랑 국경을 넘어 안겨옵니다  
계곡과 산을 넘어  
세계의 억압받는 인민들에게  
인민은 우러러 환호를 올립니다  
인류의 신념을 복돋아주는 그 사랑 받으며

향도의 별

당신은 만능의 예지를 지니신분  
당신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분  
당신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십니다

그 사랑

정녕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하고  
자연도 따르지 못하는 사랑  
이는 신념과 의리에서 솟구치는  
고상한 사랑  
세계인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안겨주는  
불멸의 사랑  
생활의 보람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회주의건설의 진군길에서  
당신은 곧 향도의 빛  
당신은 주체사상으로 영원한 빛을 뿌리십니다

고상한 신념에 넘친 그 불빛  
인민에 대한 사랑  
그 불빛 억압받는 세계인민을 안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혁명가로 키워줍니다  
당신은 노동계급을 묶어세워  
사회주의위업수행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기쁜 날 2월 16일  
장엄한 별 온 누리를 비친 날

탄자니아인민들은  
인간의 존엄 위해 싸우는 그 길에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나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  
이 행복한 날에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탄자니아 우후루신문사 부주필임)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나빌 아흐마드 무쓰라파

당신은 뛰어난 예지를 지니시고  
탁월한 사상으로 온 세계를 비쳐주시는  
하늘이 낸 천재

당신은 언제나  
주체의 뜻 구현하시고  
그를 빛나게 꽃피워주시거니  
드높이 일떠서는 기념비적건물들도  
길게 뻗어간 교량들도  
당신의 위대성을 칭송합니다

당신은 아버님의 사상과 위대성을  
이어받으시어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되시였거니

우리모두 당신의 사상 따라배우고

그를 신념화하옵니다  
하여 우리모두 당신의 령도 따르고  
원췌치는 싸움으로 떨쳐나서립니다

당신께서 계시어  
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당신께서 계시어  
래일의 행복이 있거니  
당신 없이는  
아 세상의 밝은 희망도 그려볼수 없을것입니다

아, 당신은 참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동지이십니다

(필자는 애급 와이엘전람사 사장임)

## 당의 의지 안고

한 호

단야장에 풀무 하나 안남은  
폐허우에  
새 집들을 짓고  
공장들을 일떠세우며  
우리는 왔다

밤새워 설계를 고쳐그리며  
첫 트랙포르와 자동차를 만들었고  
나무배나 못던 부두가  
크지 않은 조선소에서  
산악같은 배들을 물우에 띄웠다

그 누가 가져다주는  
과학과 기술이 아닌  
우리 머리, 우리 손으로  
돌에서 실을 뽑았고  
기적소리 경쾌한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를 떠나보냈다

대형산소분리기  
1 만톤프레스...  
그 모두 우리 만든것이 아니라면  
아, 당이 부르는 기술혁명의 진군길에서  
이렇듯 궁지높이 바라볼수 있으랴

수력타빈의 나사못 하나  
전동흐름선의 봄빛 하나  
시련을 이기며 우리 안아온것이어서  
치달아오르는 기술혁명의 봉우리에  
믿음직한 디딤돌이 되고  
발걸음이 되나니

맨주먹으로  
자립의 터전을 닦고  
한대의 피대선반의 불꽃으로  
수천수만대의 공작기계를 새끼쳐가던  
그날의 그 정신으로  
당의 의지 안고  
과학기술의 상상봉에 우리 오르리라

오르리라  
백만이 넘는  
지식인대군의 지혜 하나로 모으고  
기술혁신의 불꽃 온 나라에 지퍼  
우리 조국을  
가장 강대하고 문명하게 빛내여가리라  
과학기술의 휘황한 나래로  
인민의 더 좋은 래일을 실어오리라



# 꽃이 되어 향기 되어

-대성산 혁명렬사릉에는 화환진정대가 있다-

림공식

백두의 그 시절에  
그네들의 두손을 부여잡고  
한마디 인사라도 드린적있었더라면  
이리도 아쉬움이  
가슴에 타지 않으리

밀림속 숙영의 한밤에  
가랑잎을 이불삼아 쪽잠든 그네들에게  
한무지 모닥불이라도 피워준적있었더라면  
우리의 눈시울 이처럼 젖어들지 않으리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뜨거워지는 마음과 마음들이  
꽃이 되어  
향기가 되어  
여기에 놓이는가

저 산마루의 붉은 기폭의 타는 빛처럼  
앞가슴에 붉은넥타이를 날리는  
나어린 소년은  
그 타는 빛의 한부분인듯  
여기에 고이누나  
아, 꽃다발

목숨을 바치며  
그네들이 안아온  
소중한 그 웃음의 한떨기런듯  
인생의 봄계절을 맞는  
저 아릿다운 처녀도  
여기에 고이누나  
향기론 꽃송이를

머리 흰 저 할머니는

그네들에게  
한모금의 물을 권하던  
그 시절의 살뜰한 마음이런듯  
여기에 고이누나  
그 순결한 향기를

백두의 그 시절에  
그네들을 만났든 만나지 못했든  
불타는 락동강 도하장에서  
그네들과 함께  
떼목을 무었든 못지 못했든  
여기에 꽃이 되어  
향기 되어  
피어나는 마음들  
  
승엄히 솟아있는 주작봉마루에  
찬란히 영생하는  
투사들의 그 심장을 간직하누나  
조국을 사랑하던 그 뜻을 지니는구나

화환진정대  
여기는 꽃만이 아닌  
더운 피로 새긴 맹세가 놓이누나  
한번 끓어 식지 않는 맘처럼  
한번 피여 시들줄 모르는  
고귀한 냇이-

아 태양이 있어  
삶이 만발하는 언덕  
한가닥 마음속 그늘이 있다 해도  
여기에 올라  
삼가 놓이지 못하리  
그 언제나  
저 불멸의 모습들앞에!

# 당을 따르는 마음

리진학

울바자에 앉은 잠자리 잡던  
그 시절이었으리  
붉은넥타이  
희망의 노을처럼 날리던  
그 시절이었으리

불꽃 날리는 건설장

구내길일수도 있으리  
간석지 날바다에  
청춘의 땀을 바치던  
그 나날일수도 있으리

당이어  
그대를 따르는 소중한 마음

내 가슴 깊이 자리잡은것은...

전사한

아버지가 썼던 전호에

나를 세워주고

중대당원들의 묵직한 손에 받들리워

영광의 대오에 서게 한 그대

고향에 돌아온 그날에도

따스한 보금자리 마련해주고

내 운명의 갈피갈피에

한점의 티라도 앓을가봐

삼태성 기우는 깊은 밤에도

잠못들던 그대가 아니었더나

따르면 어머니보다 정다워

아기의 마음이 되고

안기면 존엄높은 손길로

우주를 정복할

참된 인간의 힘을 주는 그대

수백만 이끄는

그대의 담찬 심장속에

내 작은 맥박이 뛰고

그대의 힘찬 진군의 노래에

내 발걸음소리 합쳐지거니

변치 않으리라

불모래 흩어지는 락동강가에서

태백산줄기 넘어 당을 따라온

그 전사들처럼

전후 폐허우에서도

당을 목숨으로 지키던 충신들처럼

그대의 고향 백두산에

떨기진 만병초의

한줄기 뿌리가 되어도 좋으리라

그대의 오곡을 가꾸는 전야에

한줌의 흙이 되어도 좋으리라

아, 수천만 인민의 신념이

하나로 뭉쳐져

세기에 위대하고 존엄높은 당이여!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그대의 심장

그대의 숨결로 숨쉬리라

## 만수대의 설풍경

김정수

꽃을 안고

가는 해를 여기서 보내고

꽃을 안고

오는 해를 여기서 맞는

아, 만수대

새해의 설아침

내 축원의 마음 안고

아버이수령님 동상앞에 이르니

꿈인듯 봄날의 화원이 펼쳐졌구나

인민들 손에손에

꽃을 안고

소원을 안고

여기로여기로 굽이치나니

때아닌 봄날의 언덕이런가

흐르는 꽃물결

설레는 꽃바다

아버이수령님 이 해에도

봄날처럼 기쁨속에 계시라고

언제나 그 언제나

억년 청춘의 기상으로

누리에 밝은 앞길 밝히시라고

간절한 그 소원 그 념원 안고

눈오는 겨울에도

뜨거운 마음들

천만송이 꽃을 피워

만수대언덕우에 드린 꽃바다

내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조국에서의 설아침

인민들은 축원을 안고

수령님을 먼저 찾고

수령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나니

그 어디에서 볼수 있으랴

이 세상 둘도 없는 설의 풍경이여

우러려 설레는 축원의 꽃바다속에

아, 내 마음도

한송이 꽃으로 피어나리라

아버이수령님을 길이 받드는

영원한 충성의 꽃으로 피여

만수대언덕우에 향기를 더해주리라

(필자 총련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 교원)

# 못잊을 그날의 눈송이

황진성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  
거리마다 온통 솜옷을 입혀주며  
기쁨 안고 행복실고  
끝없이 내리는 흰눈송이

조국에 와서  
다시 맞는 눈이어서  
감회도 깊어져  
창문밖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아, 어찌하여 이다지도 후터워지는것인가

밤은 깊어가건만  
나를 꿈세계로 불러주며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며  
내 가슴에 뜨거운 숨결이 되어  
내리고 내려 쌓이는 흰눈송이

깊어가는 이 밤에도  
이 당 그어디에 계시려나  
찬눈 소복이 맞으시며  
락원의 강산에  
사랑의 꽃을 피워주시는  
아버이 우리 수령님생각

북방의 어느 탄전  
어느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시는가  
동해의 어로공들과  
풍어의 기쁨 함께 나누고계시는가  
아니면 이 해의 풍년농사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농장원들과 한밤을 보내시는가

위대한 수령님 걸으시는  
그 자욱자욱 더듬으며  
심장속에 계시는 수령님 우러러  
부디 안녕하심을 바라는 소원  
더더욱 쌓이고쌓이는 이 한마음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아, 못잊어라 내 진정 못잊어라  
아버이수령님 모신  
설맞이공연의 영광의 그날 그 밤만은

감격에 가슴후터워  
눈시울 적시며  
수령님 몸가까이 우리러뵈옵는  
한량없는 그 행복 받아안은줄

내 정녕 꿈엔들 생각했으랴

밝고 휘황한 조명등 불빛아래  
무대에 차넘치는 학생소년들  
축복의 꽃물결 노래되어 춤이 되어  
만수축원의 인사 드릴 때  
아버이수령님  
십년은 더 젊어진것 같다 하실제

아, 끝없는 환호의 박수소리  
간절한 념원 함께 담아  
수령님 높이높이 우러르며  
기쁨드린  
못잊을 력사의 그날이여

오늘도 그날의 눈송이가 내리어라  
행복의 눈 사랑의 눈송이가  
자나깨나 뵈고싶던 생각  
열번이고 백번이건 안기고싶던  
그 소원 다 이루어진  
못잊을 그날의 흰눈이  
영원할 이야기를 담아 이 밤도 내리어라

아, 푸름푸름 밝아오는 해돋이에  
내 마음 한점 티도 없이  
다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  
만수무강하시옵기를 바라는 인사  
충성으로 울리는 아침을 맞았거니

아버이수령님 따르는 마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고스란히 이어져  
주체조국의 아들로 태어난  
내 삶의 영광 그 무엇에 비기랴

이 밤도  
못잊을 그날의 그 기쁨을 속삭여주며  
깊어가는 수도의 밤하늘에  
내리고내리는 흰눈송이

이역땅에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내 마음에 사시장철 내리리라  
수령님 모신 그날에 내린 눈송이가  
천송이 만송이로 언제나 내리고내리리라

(필자 총련교포조선제1초급학교 교무주임)

## 감동깊이 밝혀낸 심오한 진리

-단편소설 《행진곡 1번》을 읽고-

장상의

우리가운데 혁명가요 《유격대행진곡》에 담긴 정서세계, 사상감정에 대해 무심하고 범상하게 대할 사람은 전혀 있을상싶지 않다. 하지만 《유격대행진곡》에 담겨진 혁명적기백, 전투적인 혁명정신으로 살아야만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힘차게 걸을수 있다는것을 어려운 전쟁의 환경속에서 산 체험을 통해 절절히 느껴본 그런 사람은 별반 쉽지 않으리라

바로 단편소설 《행진곡 1번》(정기중 《조선문학》 1985년 10호)은 그러한 진리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것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환경속에서 가슴사무치게 감수한 로작곡가 《나》의 극적체험세계를 펼치고있다.

단편소설의 형상세계는 우리들로 하여금 《유격대행진곡》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높이 울리며 나아가야 할 《조선혁명의 행진곡》이라는 깊은 사색속에 젖어들게 한다.

단편소설 《행진곡 1번》이 심오한 사상을 짙은 형상으로 감동깊이 보여줄수 있게 된것은 작곡가 《나》의 체험세계를 정서적으로 드러낼수 있도록 성격과 생활론리에 따라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작품에서 감정조직은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따라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근본바탕은 생활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누구에게서나 똑같은 정도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아니다. 같은 대상을 대하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과 색깔을 나타낸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감정세계는 그것을 조직하는 측면에서 보면 생활의 론리와 함께 성격의 론리를 따를것을 요구한다. 창작을 하자면 어차피 인간감정을 다루게 되고 감정조직을 해야 하는것만큼 인물들의 감정세계를 잘 그려내면낼수록 예술적형상은 그만큼 진실하고 생동해지며 작품의 사상도 보다 감동적으로 밝혀지기 마련이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군단장과의 극적관계속에서 환기된 작곡가의 체험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형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정의 실머리와 색

갈을 옹계 잡아쥐고 그것을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풀어나가고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는 나라의 존망과 모든 사람들의 운명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가장 준엄한 나날이었다.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누구인들 판가리 결전을 각오하지 않았으랴! 오선지와 선돌밖에는 생활에 대해 별로 아는것이 없는 작곡가 역시 원썬놈들과 《조만간 어느 한곳에서 격렬한 판가리》를 하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런 심정으로 뜻밖에 《제2전선부대》를 만나다다가 군단장한테서 새 군복을 타입고 당시의 그러한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누구나 생각하기 어려운 파업 즉 군악대를 꾸리라는 임무까지 받았으니 작곡가의 심정인들 어찌 흥분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방금까지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던 작곡가로서는 이 모든것이 꿈만 같이 생각되었으며 그만큼 벅찬 감동과 자신에 대한 긍지감을 어찌할수 없었으며 군악대조직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해 내심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엄혹한 전쟁의 환경과 행진곡준비를 위한 군악대의 조직, 이것들은 사실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인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소설은 벌써 여기서 감정선의 실머리를 잡아쥐고있으며 그것을 감정조직의 요구의 견지에서 실감있게 엮어나갔다. 하여 독자들은 첫 장면들에서부터 소설의 생활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것이다.

소설이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감정조직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때 또하나 주목되는것은 작곡가인 《나》의 행동선에 따르는 감정의 축적과정이 비교적 흥미있게 진행되고 그것이 일정한 대목에 이르러 완화 혹은 긴장되게 하면서 절정에로 이끌어간것이다.

작가가 소설에서 력점을 찍어 형상한 대목과 극적으로 노린 대목은 군악대조직의 절박성을 풀어보인 장면과 처녀간호원의 죽음장면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작곡가의 정신세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이 대목들에서 밀도높은 감정의 흐름으로 혹은 그의 강렬한 폭발로 이야기를 극적으로 예리화하고있다. 작곡가에게 초점

이 겨누어진 극조직의 기초에는 어제날의 항일혁명투사인 군단장을 중심으로 공병소대장과 처녀간호원, 실명당한 전사가 서있다. 우리가 군악대조직의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하는 극적대목에서 《유격대행진곡》의 전투적인 서정과 혁명적기백을 뜨겁게 받아안게 되는것도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작곡가인 《나》의 체험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였기때문이다. 그들로 말하면 락동강에서 소대의 반수를 잃고 울분을 새기지 못하는 공병소대장이었고 그곳에서 부대의 도하를 보장하다가 실명당한 전사였으며 그 전사를 그곳에서부터 부축하여온 처녀간호원이었다. 그러니 오직 원쑤에 대한 증오만을 안고 치를 떨면서 천리사선길을 헤쳐온 그들에게 있어서 행진곡의 준비요, 군악대의 조직이요 하는것들을 리해시킨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였겠는가. 아닌게 아니라 작곡가는 공병소대장을 군악대적임자로 지명하였다가 당사자한테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고 실명당한 전사와 처녀간호원한테서도 얼음장같이 차가운 랭대를 받게 된다. 군악대나 들어가자고 천리사선길을 헤쳐온줄 아느냐라는 그들의 날카로운 항변,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한 작곡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군악대를 조직하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격동을 금치 못하던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의혹을 품다 못해 지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의미할것이라고 속단하는데까지 이른다.

작곡가가 이렇게 군악대조직에 대하여 의혹을 품을 정도로 그 심리적이고중이 클수록 뒤따르는 장면들에서 발현되는 그의 내심의 생활감정은 보다 절박한것으로 더 강렬해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리가 작곡가의 체험세계를 통해 군악대를 조직하는건 《장군님께서 항일유격대의 첫걸음을 떼어주》실 때처럼 적후부대의 첫 출전도 《유격대행진곡》을 드높이 울리며 열병식으로 막을 울리기 위해서라는 군단장의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더우기 이 대목은 감정폭발의 생활적전제를 마련해준것뿐아니라 《유격대행진곡》을 통해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이 간직한 전투적인 혁명정신의 역사적근원을 간결하고 박력있게 확증한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작가는 감정축적을 여기서 끝맺지 않고 극의 양양을 위한 감정조직을 근기있게 추구하였다.

그것이 바로 극의 절정을 처녀간호원의 죽음장면에다 정하고 작곡가의 체험세계를 더욱 심화시킨것이다. 작가는 이 대목의 감정조직에서 처녀간호원의 최후가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여운을

남기게 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도록 하였다.

소설에서 처녀간호원은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작곡가의 체험세계속에는 군악대조직의 참뜻을 뜨겁게 받아안고 가장 난문제였던 악기 구할방도를 내놓는 처녀간호원의 격동적인 모습이 비끼는가 하면 얼어붙은 대지우에 훈훈한 봄향기를 실어오듯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참다운 사랑을 꽃피우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후덥게 어리기도 한다. 그가 악기를 빼내오기 위한 습격전투에 강경하게 탄원해나서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진정 작곡가의 체험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처녀간호원은 열렬히 사랑할줄도 알고 격렬히 증오할줄도 알며 용감히 투쟁할줄도 아는 참다운 인간의 고결한 모습이였다. 이런 처녀인것으로 하여 독자들은 작곡가와 더불어 그가 습격전에 떠나간후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가슴조이면서 기다리게 되고 그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는 허비는 가슴을 부여안게 되는것이다. 이렇듯 처녀간호원의 형상은 지금까지 극의 긴장으로 팽팽해진 감정의 흐름에 정서적호흡을 가미하여주는가 하면 심각한 극적계기에 작곡가를 내세우고 있다. 탄력있는 그 감정의 흐름속에 이루어지는 극의 절정, 그것은 작곡가한테서 참으로 숭고하고도 격동적인 감정을 격발시킨다. 여기서 작곡가는 《...어서 행진곡이 울렸으면... 거기에 발맞춰 나두 같이...》라고 외우던 처녀간호원의 그 간절한 소원을 통해 《유격대행진곡》으로써 상징된 항일의 혁명정신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보며 그것을 곧 자기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것이다. 그 걱정이 독자들의 가슴속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유격대행진곡》이야말로 우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높이 울리며 나아가야 할 《조선혁명의 행진곡》이라는 사상을 정서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이 소설의 창작실천은 작품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보장하기 위한 비결의 하나가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감정조직을 잘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가르치고있다.

단편소설 《행진곡 1번》에는 아쉽게 생각되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소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감정조직이 잘된 작품이나 일부 개소에서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어내지 못한 부족점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처녀간호원의 최후장면에서 반드시 주어야 할 작곡가의 감정심리를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작가는 이 장면에서 작곡가의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지 않게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 처녀

가 《어떻게 싸우다 치명상을 입었는지 알지 못한다》 또는 아무도 자기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자신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는 식으로 씀으로써 진실감을 잃게 하고있다. 작곡가로 말하면 악기습격조가 떠날 때 《대고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사람인것만큼 결코 치명상을 입고 돌아온 처녀간호원과 그의 최후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알아보지 않았는지가 독자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당치않고 믿을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형상구조상 여기서 생략비약해야 하였던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악기습격조의 활동내용을 일일이 다 그려내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감정조직에서는 생략하고 비약이 이루어지는 대목일수록 독자들의 감정흐름에 토막이 나지 않도록 생활적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별히 힘써야 한다.

소설에서는 또한 생활을 과장한 결합도 발로되었다. 레하면 적후부대의 열병식때 꼭 《눈을 싸

맨 전사》가 대고를 쳐야만 그 의의가 커지겠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그런 현상이 전혀 실제할수 없다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상한 경우》가 이 소설에서 자리잡게 되자면 적어도 《눈을 싸맨 전사》에게 지금보다 더 큰 형상적몰을 주고 잘 가꾸어내야 하겠는데 작품의 생리가 이렇게 하는것을 허락하지 않고있다. 때문에 작가는 그에게 대고를 맡기여 적후부대의 열병식에 승엄한 의의를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형상이 과장된것으로 하여 오히려 저속한 감정을 자아내었다. 독자들이 소설의 마지막부분에서 가벼운 불만을 가지게 되는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에서도 작가의 주관이 어느정도 작용하였으며 그만큼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소설은 절실한 사회적문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특색있게 풀어보인것으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독자들을 기쁘게하고 있다.

## 내가 자랐구나

김남용

고향땅이 변하는줄 미처 몰랐구나  
내 오늘 강쪽에 올라서 바라보니  
굽이굽이 남대천 흘러 천년세월속에  
쑥대만 무성하던 벌판은 어데 가고

저기는  
마그네샤공장  
강끝은 제련소의 불가마  
어찌 다 세일수 있으랴 짧은 시행우에  
산너머 일어서는 신단천 새 도시

벌과 하늘이 맞붙은 그 한끝엔  
굴뚝과 굴뚝 철탑과 철탑의 숲들  
걸어 하루길 저물어도  
끝없는것 쇠를 쏟아붓는 소리

아 내 소꿉시절 남대천에 물장구치던 날  
쓰르라미 울던 그 벌은 어데로 갔는지  
어릴적 쑥대끝이 키높아 벌끝을 벌수 없더니  
내 다 자란 오늘엔

굴뚝숲이 앞을 가려 그 끝을 볼수 없네

내가 자라  
철탑과 굴뚝들도 키돋움하였구나  
내 땀이 스미여  
강산이 변하는줄도  
내 미처 몰랐구나

미처 몰랐구나  
건설의 나날  
건설의 속도속에  
세월이 하도 짧아서  
나도 자라는줄을

바쁘신 나날  
우리 수령님  
내 고향벌에 다시다시 찾아오시던  
그 나날만 알고있었구나  
고향이며, 내 고향이며!

## 고향

김유권

제X렬차는 오늘도 원산정에 정시로 들어섰다.  
어제와 다른없는 일과가 반복되고있었다. 안내원들의 새된 호각소리가 줄달아올리고 승강대 철판들을 울리는 덜커덩소리가 차량들을 따라 메아리쳐가자 역구내에는 내리는 손님들로 혼잡해졌다.

이때 두대의 까만 승용차가 세번째 차칸결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섰다. 두번째 승용차에서 장년의 두사람이 점잖게 내렸다. 그들은 나란히 고개를 들어 렬차승강구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다른 렬차승강구로 먼저 내린 민첩한 길손들이 두대의 승용차에 눈길을 멈추었다.

《누굴 마중나온가본데...》

《글쎄요.》

《렬차에서 누가 내릴가요?》

호기심 많은 길손들이 수군거리며 승용차주위로 모여들자 마중나온 한사람이 그들을 둘러보며 친절하게 무어라고 알려주었다.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모여든 사람들속으로 퍼져갔다.

《교수에... 박사요?!》

울대빠가 뻘어져나온 사나이가 커다랗게 놀라자 그의 품에서 잠이 가득 실린 두눈을 비비던 어린애가 입귀를 실룩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곁에 섰던 젊은 여인이 황급히 어린애의 입을 막았다.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어 목을 늘이며 세번째 차칸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렬차승강구로는 여러 사람이 내렸다. 허리가 꼬부장한 할머니가 먼저 내리고 이어 풍채 좋고 대머리진 사나이가 뒤를 따랐다. 그는 땅에 발을 붙이자마자 길손들의 무수한 눈총에 맞고 한동안 뻗어서 섰다가 고개를 움츠리며 개찰구쪽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뒤로 스물일여덟 나보이는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은실테안경을 번뜩이는 고령의 로인이 굵은 지팡이를 몽둥이처럼 추켜들고 후들거리는 발로 승강계단을 한단한단 내리짚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속에서는 탄성의 물결이 일어나다가 불시에 멎었다. 렬차에서 내린, 퍼그나 수척해보이는 청년은 승용차앞으로 다가가더니 마중나온 두사람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나서 못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는듯 서둘러 앞차에 올라앉았다. 《저렇게 새파란 청년이?! ...》사람들은 경악에 가까운 소리를 부르짖으며 젊은 박사를 싣고 멀어져가는 두대의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은실테안경을 쓴 고령의 로인도 굵은 지팡이를 추켜들고 승용차를 바라왔다.

어느덧 멎어섰던 기차가 떠나고 탄성을 울리던 길손들도 흩어져갔다. 뿔뿔히 뿔어진 역구내에는 원주먹을 입에 가져간 처녀만이 놀란 빛이 굳어진 얼굴로 여전히 서있었다. 처녀는 옛 애인을 본 것이었다....

하늘갯을 떠피이고 높이 솟은 태백산줄기와 물결 푸른 동해기슭어간의 야산을 낀 구룡지대에는 누가 언제 처음으로 기둥그루를 박았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동네가 자리잡고있었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총석정도 지척인듯 가깝고 천하명승 금강산도 멀지않아서 걸음발 날랜 장정들은 해뜰무렵에 점심그릇을 쪼무니에 차고 구경을 떠난다는 고장이건만 이곳엔 높은 산도 기암괴석도 드넓은 벌이나 이름난 강줄기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가도 아닌 그야말로 평평범범한 농촌마을이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람이 세찬 그것이라고나 할지. 황토색먼지구름을 말아올리며 질풍이 이 동네를 휩쓸어간 뒤이면 황량한 모래자갈밭에 허리부러진 쑥대만이 처량하게 흔들거리는 고장이었다.

이 궁벽한 마을에도 빛은 깃들어 토지개혁의 봄이 오고 또다시 협동화의 봄이 찾아왔다.

4 차당대회를 맞은 이듬해봄, 한적하던 이 마을로 사진기를 둘러멘 기자가 찾아왔다. 그는 동구길에서 예닐곱살의 두 아이를 만났다. 아이들은 강변에 꽃삽으로 나무모를 심고있었다.

《애들아, 이 동네가 신림리가 옳으냐?》

《예, 근데 아저씨 누구시나요?》

처녀애가 가웃하며 묻는다.

《난 이 마을을 세상에 자랑하러 왔단다.》

《야!》

목이 상큼한 처녀애가 손뼉을 치자 곁에 선 사내아이도 흠뻑은 통통한 두볼에 빙긋 웃음을 띠운다.

《너희들은 오누이 같구나. 아마 네가 누이지?》

《누이라구요?》

처녀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사내아이는 쑥스러운듯 앙증한 발로 땅에 금을 긋는다.

《우린 동갑이에요. 서로 이웃집에서 살아요.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시네.》

처녀애의 열썬 목소리에 기자는 자기의 커다란 실수를 깨달은듯 꺾꺾 웃는다.

두 아이는 마주 손을 잡고 마을길로 뛰어간다.

기자가 온다고 마을에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내가 누이래. 참 우습지?》

처녀가 또 까르르 웃는데 사내아이는 웬일인지 대꾸가 없다. 그의 눈에는 낯익은 고향풍경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띠고 비껴있다. …

몇해가 지나서 소년은 고향에 대한 글을 지었다.

《우리 동네는 예로부터 바람이 세차기로 소문났습니다. 봄가을에 한번 바람이 터질 때면 초가이영이 바람에 날리고 왕모래가 길가에 한벌 깔리어 우불구불 기이한 무늬를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마치도 사막의 무늬같았을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반사막같은 땅에 모지라진 호미끝을 박고 씨앗과 눈물을 묻으며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신림>이라는것은 우리 동네 이름입니다. 새로운 숲이라는 뜻으로 먼 옛적부터 불리워졌을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전까지는 여기에 숲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림>이란 이름은 마을사람들의 이를길없는 녀원을 담고 전해내려왔던것입니다. 무성한 숲을 꾸리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려는 그 꿈은 해방후에야 비로소 꽃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지개혁때 심었다는 물향철나무들은 벌써 키높이 자라서 바람을 막아줍니다. 숲은 나날이 푸르러지고 동네는 아늑해졌습니다. 마을사람들은 협동화를 할 때 나라에서 보내준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낮은 산기슭과 언덕에 논을 풀었습니다. 강변에 심은 아카시아나무가 자라서 이제 꽃이 피면 농장에서는 벌을 쳐서 꿀을 뜨게 될것입니다.

아버지원수님의 해빛아래 나날이 푸르러지는 마을, 우리의 꿈이 자라고 우리의 행복이 웃음짓는 우리 고향을 두고 오늘은 진짜 신림리라고 부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빛을 받은 동네에는 꽃이 피었다. 그 꽃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이 마을의 아이들이 아닐까, 그울음을 피워올리는 초가집의 광술불만이 세기적인 무지와 몽매의 어둠속에 희미한 빛을 던지며 문명을 기원하던 이고장에 배움의 종소리가 울렸다.

푸른 숲은 나날이 자라고 아이들도 자랐다.

현이와 정수가 인민학교 3학년이던 어느날, 현이는 저녁무렵에 정수네 집을 찾아왔다.

《정수, 웃마을에 새 영화가 왔대.》

현이가 신이 나서 알려주자 숙제를 하던 정수가 연필을 던지며 머리를 들었다.

《영화?》

《응, 아동영화래. 제목이 <고향의 자랑>인데 우리또래 아이들이 큰 금광맥을 찾아낸대. 바가지에 끈을 껴서 안전모처럼 쓰구 깊은 굴속에 들어간다는나…》

《참 재미있겠구나. 그런데…》 정수는 툭툭한 볼

에 주먹을 고이고 책상우에 팔꿈치를 짚으며 머뭇거렸다. 《그런데… 래일이면 그 영화가 우리 마을에도 올거야. 이게 첫째 조건이구…》

《그렇다구 앉아서 기다리겠니? 썩 재미있다는데.》

《영화가 재미있다는것두 또 한가지 조건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밖에는 비가 오거든.》

《우산은 내가 가지고 왔어.》

《우산은 두개 있어야 해. 이게 세번째 조건이야.》

《넌 무슨 소릴 하니? 조건조건 하면서…》

현이는 새침해졌다.

《하긴…》 정수는 또 중얼거렸다. 《현이가 구경가자구 조르는것두 또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지.》

《넌 정말! …》

현이는 애가 타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가겠니 안가겠니?》

《가만있어, 그걸 계산해보겠어.》

《계산하겠다구!》

《현이, 성내지 말구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흔히 무엇을 결심할 때 사람들의 머리속에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계산이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해보았니? 그<답>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된단다. 말하자면 사고하는 사람의 두뇌는 가장 훌륭한 계산기라고 할수 있지. 그런데 사람의 두뇌를 완전히 대신하는 컴퓨터가 내손까지 오려면 아직 까마득히 멀었단말이야. 자 그러니 간단한 계산은 내 손으로 지금 해보겠어.》

《그럼 어디 계산해보렴.》

현이는 이죽거리며 대답하였다. 정수는 학습장에 문자와 수자를 써놓고 복잡한 계산을 시작하였다.

현이는 흥심없이 그림책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까닥거리며 졸기 시작했다. 영화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마을사람들의 말소리가 밖에서 들리자 현이는 눈을 떴다. 정수는 아직도 계산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래 아직도 영화구경을 갈지말지 <답>을 못 얻었단말이나?》 하고 현이는 하품을 하였다.

정수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있었다.

《수학박사님, 덕분에 구경을 잘했어요!》

동산에 둥근해가 떠오르는 아침이면 학교가는 길에서 현이는 정수에게 묻곤하였다.

《영화구경을 가야겠어 가지 말아야겠어?》

《아직 풀지 못했어.》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현이는 물었다.

《영화구경 가려면 아직 멀었니?》

《아직…》

《영터리박사님!》

현이는 매일같이 정수의 약을 올려주었다. 그때마다 암전한 정수는 얼굴을 붉히며 눈물이 글



생해졌다. 얼마후 현이는 놀려주기를 그만두었다.  
그 일은 잊어버렸던것이다.

그런데 석달이 지난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영화환경문제》를 푸는 과정에 《수학언어》를 발견하였다고 한마디 하였다. 그러나 현이는 그 말을 새겨들을 귀가 없었다.

《정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현이는 울상을 지었다.

《글쎄 어떻게 벽보원고를 쓰겠어? 샘플로 찾아가는 할머니의 집을 들여다준 애가 누군지 어디 알수가 있어? 세 아이가 다 모른다고만 하니...》

《무슨 문제데?》

《이건 수학문제가 아니란다.》 현이는 뽀로통해서 말했다.

《샘골에 사는 애들은 영희, 수남이, 철호, 이렇게 셋밖에 없지. 좋은 일을 한 아이는 세 아이가운데 한 아이란다. 그래서 난 그 애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지. 영희는 <난 좋은 일을 하지 않았어. 아마 수남이도 하지 않았을거야.>하고 말하고 수남이는 <나도 하지 않았어. 철호도 물론 하지 않았을거야.>하지 않겠니. 그래서 마감으로 철호한테 물어보았지. <난 몰라. 난 하지 않았어.> 글쎄 그 애도 모른대! 이렇게 시치미를 떼니 좋은 일을 한 벽보의 주인공을 어떻게 찾는단말이나?》

《그건 간단한 문제구나.》

《간단한 문제라구?! 네가 심리학자나 유명한 탐정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알아맞힌다고 그러니. 그리고 지금 세 아이도 없는데?!》

《그 애들의 말을 수학언어로 옮기면 풀수 있어. 영희가 좋은 일을 했다면 A 로 표시하고 하지 않았다면 A' 로 표시할수 있지. 세 아이의 말이 저마끔 거짓말일수도 있고 정말일수도 있는데 이 두 경우를 다 생각해보자...》

정수는 길옆의 잔디밭에 앉아서 책가방을 열고 학습장을 꺼냈다. 현이는 미심쩍게 정수의 계산을 기웃이 넘보다가 한마디 하였다.

《 $1+A=A$ 는 틀렸어. 곱하기부호로 고쳐야 해.》

《이건 며칠전에 내가 만들어낸 계산법이야.》

《정말 엉터리박사로구나!》

현이가 코웃음을 치는데 정수의 연필끝에서는  $A'BC'=1$  이라는 답이 나왔다.

《좋은 일을 한 아이는 바로 수남이야.》하고 정수는 말했다.

《엉터리 박사의 말을 난 믿을수 없어!》

《두고보렴.》

정수는 무안을 당한듯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대꾸했다.

이튿날, 현이는 수남이와 담임교원을 만난후에야 정수가 벽보의 주인공을 옳게 찾아냈다는것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정수가 열살나이에 제나름으로 론리수학의 대문을 열어

제긴 바로 그것이였다! 그리하여 현이는 또 한장의 벽보를 써붙였다.

정수는 마을의 자랑으로 되었다.

《정수, 내가 잘못했어.》

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수에게 말했다.

《뭘말이나?》

《엉터리박사라고 놀려주던 일...》

《응 그건 아무래도 좋아.》

《너한테 가까운 감정도 없니? 머리속엔 진짜 계산기만 들어있는것 같구나.》

《글쎄 그럴지두 몰라.》

정수는 병긋 웃을뿐이였다.

고향의 시내물을 타고 세월은 흘러갔다.

정수는 어느덧 대학으로 입학하러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밤 정수는 고향의 시내가를 오래도록 걸었다. 아카시아나무가지들은 금시 무너져내릴듯 흰꽃으로 덮여있는데 달디단 꽃향기가 밤의 대기를 적시였다.

발밑에는 흰모래가 사르락거리며 밝히고 푸른 달빛은 향기로운 입김처럼 머리위에 가득찼다. 돌우를 굴러내리는 여울물소리가 들리는데 검은 수면위로 수는같이 반짝이는 물방우리 튀어올랐다. 《대학에 가서도 난 고향을 잊지 못할것 같애. 내 가끔 편지할게.》하고 정수는 현이에게 말했다.

《아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편지는 하지 말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대...》현이는 혼연히 대답하다가 그만 얼굴을 붉히며 허를 깨물었다. 옛사람들의 이야기속에 전해내려오던, 처녀에게 마음이 달리면 학문을 집어던지게 된다는 의미가 그 어떤 타성으로 자기의 말에서 불쑥 되풀이된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 말은 생각이 없이 던진 말이라고 뒤늦게 변명하기도 얼굴이 화끈한 일이 아닌가. 정수 또한 현이의 당황한 감정을 느꼈음인지 대답이 없었다.

고향의 밤을 그득히 채우는 푸른 달빛, 시내가의 귀에 익은 물소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이때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야릇하고 또한 당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시내물은 여전히 흐르고 흘렀다. 푸른밤을 끝없이 적시며 그들의 친진한 소년시절을 싣고 멀리멀리로 흘러갔다.

정수가 떠나간후 현이는 매일저녁 일기를 쓰곤 하였다.

《정수동무, 이 편지는 가닿지 않을거예요. 이걸 나를 위해서 쓰는 편지예요.》

나는 지금 축산반에서 일하고있어요. 양몰이를 한답니다. 양떼를 따라 고향의 산과 들을 종일도록 걷고있어요.

맑은 하늘엔 흰구름이 흐르고 푸른 산기슭엔

양떼가 흐르고… 청신한 대기, 불꽃처럼 타오르는 들꽃의 진한 향기, 허리를 잘쭉하게 동여맨 처녀가 회초리를 공중에 내젓고 아름다운 처녀의 노래가 흐르고… 나는 이렇게 상상했었지만 실상은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해종일 양떼를 몰고 걷기가 힘에 겨워서 밤에는 소설책 몇장을 번지지 못하고 쓰러져 자곤해요. 발목은 덩불에 긁히고 얼굴은 별에 타서 따끔거리요. 그건 좀 나은편이에요. 양무리속에도 말썽군이 있어서 그때문에 가끔 울기도 한답니다.》

《정수동무, 난 오늘 양떼를 몰고 메등에 올라타었어요. 생각나요? 동네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수동무가 대학으로 떠날 때 난 여기에 올라서 멀어져가는 동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길은 끝없이 뻗어 저쪽 푸른 기운이 드리운 산기슭을 감돌아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오래도록 그 끝을 바라보았답니다. 그길로 대학졸업장을 든 정수동무가 웃으며 걸어올것만 같았어요. 아니 정수동무는 내성적인 성미여서 늘 부르던 노래를 입속으로 부르며 고향으로 조용히 찾아올거예요.

빼꼭새가 노래하는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곳

나도 마음속으로 따라불렀어요.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곳  
...

그러자 어느새 해벌에 탄 두뺨으로 아릿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울먹거리며 1 절을 부르고 2 절을 부르고… 3 절을 부르고… 그리고 또 1 절을 시작하다가 그만 목이 메어 입술을 깨물며 흐느껴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운것은 아니예요. 무언가 그윽한 감정에, 기쁨에 젖어서 울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느라니 이 무심해 보이는 풀잎도 빨간 들꽃도 산촌의 물소리도 말썽거리 양떼도 애뜻하게 보였어요.

바로 내 손으로 가꾸고 꽃피워야 할 고향이에요. 이 고향을 아름답게 꾸리는것은 바로 내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 이 산촌의 주인은 나자신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알았어요. 정수동무는 이제 몰라보게 달라진 고향풍경을 보게 될거예요. 그 풍경의 주인공인 처녀를 보게 될거예요. 난 아직 그런 처녀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처녀가 되겠어요.》

《정수동무, 헤어진지 벌써 3 년이 지났어요. 방학때에도 고향에 한번 찾아오지 않는군요. 정수동무의 어머니가 맏아들을 따라 서해안의 간석지로 이사갔기때문인가요? 아니, 정수동무는 방학을 잇고 공부를 할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몹시 기다려지는군요.

나는 이제 양몰이의 묘리를 터득했어요. 양무리에도 자기들의 세계가 있고 개성이 있고 정이 있답니다. 난 일에 재미를 붙였어요. 곱슬머리 양들이 나를 어찌나 따르고 귀엽게들 구는지 몰라요. 일이 손에 익어서 별로 피곤한줄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샘물처럼 마음이 거뜰하답니다.

오늘 군방송에 내 이름이 소개되었어요. 내가 방목하는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올랐단나요. 난 정말 기뻐요.

기쁠 때면 정수동무가 마음속에 나타나곤 해요. 고향의 시내물과 이름없는 바위와 나무에서도 정수동무에 대한 추억을 발견한답니다. 아니 언제나 내 마음속에 웃는 얼굴로 나타나곤해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시내가에서 곱슬곱슬한 양털에 솔질을 할 때에도 산골짜기에서 싱싱한 붓꽃을 꺾을 때에도 그리고 즐겨부르는 고향의 노래속에도 동무는 나와 함께 있어요.》

《정수동무, 인민학교시절에 동무가 고향에 대하여 지은 글이 생각나세요? 난 그것을 벽보판에 붙였다가 후에 간직해두었어요. 지금도 가끔 읽어본답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옛날에 왕모래가 무늬를 그리던 앞길을 포장하고있어요. 우불구불하던 길을 곧추 담고 강물에 씻긴 조약돌들을 날라다 편 다음 그우에 콩크리트다짐을 했어요.

이 곧은길로 우리 마을의 자랑이 떠나가고 새로운 문명과 기쁨이 찾아올거예요.

정수동무도 이 길로 걸어오겠지요. 나는 손꼽아 그날을 기다린답니다.》

《정수동무, 편지를 받았어요. 나는 그 편지를 받은 자리에서 열번도 더 읽었답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잘 있다, 준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아직 이렇다하게 해놓은 일이 없고 쓸만한것이 없다, 후날에 편지하겠다… 마치도 백메터 달리기선수가 출발선앞으로 나가다가 구경꾼들이 내민 손수건우에 성급히 수표를 남긴것 같은 글씨였어요. 정수동무의 노력의 길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고 그만큼 경황이 없을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에서는 우리가 헤어지던 날 밤에 피었던 아카시아꽃향기가 풍기는듯하였어요. 그때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편지는…>하고 철없이 던진 그 말을 정수동무는 잊지 않고 오늘 첫 편지를 보내온것 같았어요. 나는 회답에서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하고싶어요. <과학탐구의 길에서 커다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편지는...> 하고 말이에요.》

《그리운 정수동무, 서로 헤어진지 8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마음은 점점 가느다란 현처럼 켜기워지고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자주 울리며 그윽한 음악을 울리는것 같아요. 마을사람들은 새침데기소녀가 인젠 다감한 처녀로 되었다고 말들한답니다. 아마 그런지두 몰라요. 내또래 처녀들속에는련인들이 생기고 나한테 귀속말로 묻기도 한답니다. 나는 대답을 못합니다. 나에게는련인이 없기때문이에요. 그저 어릴 때의 추억만으로 살아왔어요. 정수동무와 함께 보낸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그것으로 내 생활은 즐거웠답니다. 그 친진한 시절의 우정이 이처럼 내 생활에 기쁨을 주고 큰힘으로 될줄은...

내 마음속에 차고넘치는 이런 감정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나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정수동무, 나는 수도에서 열린 예술축전에 참가했어요. 양몰이처녀의 춤을 추었답니다. 대극장무대배경에 우리 마을의 낮익은 풍경이 펼쳐지고 야산기슭에는 싱싱한 붓꽃이 마주 웃었어요. 나의 구슬땀이 열매로 맺힌 고장,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인 내 고향... 나는 가슴에 넘치는 익숙한 감정을 춤가락에 올려나갔어요. 춤이 고조에 이르자 나는 무대가 아니라 정든 고향에 선듯 애뜻한 감정에 휩싸여 그만 눈앞이 흐려지며 동작을 잃고 말았어요. 나는 이 대목에서 약간 실수를 하였어요. 흥분이 너무 지나쳤던가봐요. 나는 공연이 끝난뒤에도 줄곧 자기를 꾸짖었답니다.

이때 한 극장일꾼이 나를 찾더니 나와 한고장청년이 나를 만나러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과학원연구사라더군요. 나는 분장도 미처 지우지 못하고 극장홀로 달려갔어요. 거기서는 한 청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는 우리 마을에서 멀지않은 금강산 온정리가 고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어요

<그러니 우린 서로 한고향 친지를 만난셈입니다.>하고 그는 반갑게 웃으며 흰장미 한송이를 주더군요. 방금 이슬을 굴리며 피어난듯 향기가 짙은 꽃이었어요.

<공연성과를 축하합니다. 절정에 오르던 물동의 흐름이 정지된 찰나에 무용가의 안면표정은 고향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웅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춤의 매력은 실수했다고 바로 생각한 바로 그 대목에 있었습니다. 많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렸지요. 공연을 보니 우리 고향이 더욱 그림습니다. 방학이나 휴가를 받고 찾아가기도 하고 출장길에도 가끔 들러봅니다만 자나깨나 그리운것이 고향인가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된

심정일것입니다. 이런 애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고상한 감정이 아닐가요. 고향을 잊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

그는 연회색양복에 어울리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만지더니 불시에 한숨을 지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바로 신림리가 고향인 내 친구가 한 연구실에 있습니다. 오늘도 극장구경을 오지 않았습시다. 그는 극장같은것을 잊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과학자의 발걸음은 퇴근시간후에도 과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친구지요. 두뇌의 모든 정신력을 한점에 집중시키지 않고서는 과학의 돌파구를 뚫을수 없다는것이 그의 신조입니다. 그에게서는 이런 문화생활의 여유나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가슴태우는 순간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론 그의 노력에 감심하기도 하고 그의 생활관을 리해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고향마저 잊은 사람의 가슴에서 과연 뜨거운 심장이나 인간미나 시대적의무감을 찾을수 있을까요...>

<...>

나는 두눈에 핑하니 감도는 눈물을 참으며 머리를 저었어요.

<정수동무가... 정수동무가 그렇게 ... 메마른 인간일가요?>

<아니 정수동무를 잘 압니까?>

그는 눈을 홉뜨며 놀랐어요.

<...>

<내가 그만 실언을 한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청년은 고개를 숙여보이고 그자리를 떠났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수동무는 ... 내가 아는 정수동무는 ... 그런 인간이 아니예요. 아니예요!>

나는 흰장미송이를 그 청년이 사라진쪽에 내던졌어요. 배운것 없고 천박한 산골처녀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한참후에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정수동무, 대답해주세요. 고향을 잊지 않았다고, 자기의 심장이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심장처럼 뜨겁게 고동친다고 말씀해주세요.

나는 지금 정수동무의 연구사업이 절정에 올랐을것이고 그때문에 시간적여유가 없을뿐이라고 믿고싶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싶어요.》

《그리운 정수동무. 또 2 년이 지났어요.

통신원아바이는 매일처럼 동네에 나타나건만 기다리는 편지는 오질 않았어요.

<오늘도 현이한테 오는 편지는 없구나.>하고 통신원아바이는 미안한듯 중얼거리군한답니다. <저는 편지를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편전을 펼쳐라치면 <통신원경력 30 년을 가진 내 눈은 못속인

다.>하고 말씀하시군요.

정수동무의 긴장된 탐구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일단락을 지을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하고 나는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정수동무가 기초과학분야에서 놀라운 연구성과를 거두고 금강산에 휴양을 왔다는 소문이 우리 동네에 퍼졌어요. 여물가마의 뜬김이 서린 축산반 부엌에서도 사람들은 그 소문이 옳다거니그르다거니 하고 열을 올렸어요. 나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금강산으로 휴양가는 길에서 고향까지는 15 리밖에 안되는데 정수동무가 들리지 않을리가 있을까요? …》

그러나 앉아서 반신반의를 하기에는 현이는 너무도 약동하는 기질을 가진 처녀였다.

그는 금강산휴양소로 찾아갔다. 입술이 타는듯 60 리… 휴양각의 접수대장… 등산지평이를 짊은 휴양객들이 삼삼오오 패를 지어 노니는 옥류동골안…

푸른 물이 흰구슬로 부서져 굴러내리는 반석우로 심신을 단풍계절의 무르익은 풍치에 맡긴듯 천천히 걸어내려오는 정수와 마주쳤을 때 현이는 낯선 사람을 보는듯했다. 통통한 두볼에 수집은 홍조를 띠우던 소년의 모습은 이미 자취없이 날아가버렸는데 수척하고 기름한 얼굴은 풍상을 겪을 대로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표정에는 서리내린 백발이 더 어울릴것 같았다. 가슴이 불거지고 어깨가 퍼진 체육인을 예상하여 지은, 기성복매대의 양복을 고려없이 그대로 사입은듯 그의 웃웃은 후렁후렁했고 그때문에 키는 더 커진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검은 양복에 벽돌색넥타이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분명 리정수였다. 10 년만에 만난 정수였다.

마주오던 정수는 현이를 무심히 지나쳐버렸다.

《정수동무!》

현이는 목이 메여 그를 불렀다.

정수는 고개를 피곳 돌렸으나 이어 골짜기아래로 내쳐 걸어갔다. 현이는 가슴 한귀퉁이가 덜컥 무너지는듯했다.

《정수동무를 찾아왔습니까?》 몇걸음 뒤에서 정수를 따라가던 다부진 중년사나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현이에게 다가가 소곤거렸다.

《이거 안됐는데… 퇴근시간까지는 정수동무를 만날수 없습니다.》

《휴양소에서 퇴근시간이라구요?》

현이는 억이 막혔다.

《글쎄 방해하면 안됩니다. 처녀동무…》

그러나 현이는 정수를 쫓아 달려갔다.

《정수동무!》

《?! …》

정수는 현이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머

리속에서 순간에 깨어져나간 상념의 조각들이 내비친듯 초점없이 흐트러졌다.

《제가 현이예요. … 저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꿈을 꾸는듯 흐릿하던 정수의 두눈에 섬광처럼 번쩍하고 불꽃이 타오르는것 같았다.

《현이, 분명 현이지…?!》

《네, 정수동무…》

그들은 두손을 마주잡고 소년시절처럼 빙그르르 맴을 돌았다.

현이의 얼굴은 꽃송이처럼 환해졌다.

예로부터 풍악산이라 일컬어오는 가을의 금강산, 천만가지 화려한 색조를 떨친 이 풍경의 원숙미중에서 사랑의 미소가 꽃처럼 피어난 처녀와 아름다움을 견줄만한것이 어디 있을까! …

현이는 정수와 반석우에 나란히 앉아 단풍빛이 얼비친 물결에 빨강게 단 손을 잠그었다.

《어릴적 일이 생각나세요?》

현이는 방긋 웃으며 정수를 돌아보았다.

《제가 <एं터리박사>라고 놀려주던 일이…》

《응, 그때 나는 너무도 분해서 눈물까지 글썽했드랬지.》

정수는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며 예닐곱살의 소년처럼 순진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현이에게 점점 더 낮익어보였다.

《제가 정수동무한테 편찬을 주었었지요. 부호를 잘못 썼다구 생각했던거요. 저는 그것이 새로운 계산법이라는것을 미처 몰랐었어요.》

《새로운 계산법에 달라진 부호라…》

정수는 중얼거렸다.

《제가 참 못난이였어요. 정수동무는 엔터리박사라고 놀려주어도 성을 내지 않고 웃기만 했지요…》

정수의 눈은 여전히 허공의 한점을 노리고있었다.

《달라진 부호라고 했지…》

한참만에 이렇게 되뇌었을뿐이었다.

현이는 목석처럼 굳어진 정수를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정수동무…》 하고 조용히 부르던 현이는 귀찮다는듯 손을 내젓는 정수를 보자 그만 아연해졌다. 뺨을 맞은듯 눈앞에 별찌가 튀어나고 귀속이 웅웅거렸다. 현이는 눈앞에 환각을 보는듯했다.

…

고대그리스의 대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그날도 해빛이 다양한 프락에 앉아 땅에 금을 그으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성곽을 깨뜨리고 밀물처럼 쓸어든 로마군의 살륙전이 벌어지고 아비규환의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터져오르건만 그는 여전히 땅에 그린 도형에 취해있었다. 육중한 투구와 방패를 갖춘 로마병사가 피비린내 풍기는 칼을 쏘나들고 학자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발이 그

림을 짓밟았을 때에야 학자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버럭 소리쳤다.

《내 그림을 짓밟지 말라!》

...

강물은 수천수만의 물거품 터치는 소리로 골안을 울리며 여울쳐흘렀다.

현이는 기원전 발칸반도에서 울린 그 노성을 이 옥류동골안에서 듣는듯하였다.

군센 턱을 쳐들고 허공의 한점을 노리는 정수의 강파른 뺨이 푸드득 뛰었다.

또 한순간이 지나자 정수는 무어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빙빙 에돌던 중년의 연구사가 그에게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정수선생, 결과식에 착오가 있었지요?》

정수는 머리를 저었다.

《네번째식을 검토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정수의 설명을 듣던 중년연구사의 눈에는 불꽃이 번뜩이다가 꺼져버렸다.

《너무도 비약이 심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자, 그럴것없이 이젠 연구실로 갑시다.》

《연구실이 아니라 휴양각호실이지요.》

중년의 연구사는 이렇게 정정했다.

정수의 휴양각쪽으로 몇걸음 옮기다가 생각난듯 현이를 돌아보았다.

《현이동무, 잠간 기다려주요.》

《...》

현이는 휴양소 접수실에서 정수를 기다렸다.

접수실의 커다란 벽시계가 여섯점... 일곱점... 여덟점을 쳤다. 그리고 아홉점을 때렸다. 열번째 점은 처녀의 가슴을 아프게 때렸다. 2 층호실에 올라간 정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현이는 휴양소 울타리를 나섰다. 밤은 칙흑같이 어두웠다. 뒤늦게 따라온 연구사가 큰길가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붙들어 현이를 태워주었다.

《처녀동무, 부디 노엽게 생각지 말아주요. 난 지금 그의 사색을 깨칠 권리가 없구만. 정수동무의 지금 1 분간은 우리 기초과학분야의 10 년비약을 가져올거요.》 중년의 연구사는 현이를 바라워주면서 자기도 믿어지질 않을 소리로 증언부언했다.

《물론 큰 연구사업을 일단락짓고 휴양온건 사실이요. 그러나 하나의 발견이 전혀 예견치 않았던 또 하나의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경우를 예상해 보았소? 그때문에 정수동무는 휴양기간에도 침식을 잊고 연구사업을 계속하고있소. 난 처녀동무가 이런 정수동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믿소.》

현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는 났을 잃은 사람처럼 60 리밤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자정이 넘은 밤, 현이는 옷방의 등그런 탁자앞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커다란 거울에는 가뭇하게 탄 얼굴에 분가루가 잘 먹지 않은 처녀가 마주보고있었다.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밍게 생긴 처녀가... 두줄기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은 불길로써만 존재한다. 점점 거세차게 타오르거나 아니면 스러져 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뜨뜨미지근하게 지속되는 사랑이란 있을수 없다.

어린시절의 추억과 정수의 레의적인 한장의 편지에 미련을 가지고 이때껏 짝사랑을 한 자기자신이 가엾고 역겨워서 현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후 현이는 정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글줄우에는 눈물이 점점이 떨어지군했다. 그러면 뜰어버리고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여섯번째 흰 종이를 퍼놓았을 때는 눈물없이 쓸수 있었다. 여섯번을 반복하는 동안 글줄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 정수동문 고향을 잊었군요...》

그러나 편지를 봉투에 넣어 띄우지는 않았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처녀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고향의 시내물도 푸른 숲도 쓰라린 추억만을 불러일으키며 빛을 잃어갔다. 그의 얼굴도 컴컴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처녀가 늙어간다.》고 하였다.

그말도 점점 범상하게 들렸고 눈물조차 말라버린듯하였다.

처음에는 정수를 야속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럴까닭이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를 더는 탓하지 않았다.

사실 둘사이에는 그 어떤 언약도 없지 않았는가.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이련걸시켜준 철모를 때의 우정만이 있을 뿐... 정수의 마음에 고향이 없을진대 그것과 결부된 그 어떤 현이도, 연연한 우정조차도 정수의 마음속에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은 명백했다.

현이는 바로 11 년전에 헤어졌고 1 년전에 금강산에서 피곳 만났던 정수를 방금전에 본것이였다. 그것도 언니의 집에 다녀오는 길에 같은 열차를 타고 원산역에서 함께 내릴줄은...

현이는 열차에서 내려 금강산으로 가는 배스에 올라서도 한동안 추억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배스창가로는 늦은봄의 풍경이 피곳피곳 지나갔다.

바다자리호수의 검푸른 수면에서 뿔겨난 해별이 오른쪽 차창으로 비쳐들어 배스천정에 어룡어룡 무늬를 그리었다.

현이는 가라앉은 고요한 심정으로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에 바짝 켈기웠던 가느다란 줄은 이미 끊어져버리고말았다. 인젠 아무려한 음악도 더는 울리지 않았다. 그는 무로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곁에 앉은 청년의 집요한 눈길을 느끼며 그를 돌아보았다.

《현이동무라고 했지요. 내 기억이 옳습니까?》

청년은 기다렸다는듯 반색을 지으며 말을 건넸었다. 현이는 놀랐다. 대극장홀... 이슬을 머금은 한송이의 흰장미... 그는 정수와 한 연구실에 있던 연구사청년이였다. 금강산 온정리가 고향이라더니 또 휴가를 받고 내려가는 길인듯싶었다.

청년은 구면천지를 만나 해후를 나누듯 감회깊은 어조로 말을 꺼냈다.

《3년전에 대극장홀에서 내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니다. 정수동무를 두고 너무도 메마른 인간이라고 평가한 나의 말이 현이동무에게 그토록 심각한 인상을 남길줄은 미처 몰랐습니니다. 둘사이가 것처럼 가까울줄 알았더라면 나는 애당초 그 말을 꺼내지부터 않았을것입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하고싶군요. ... 그레 후에 정수동무를 한번 만나보았습니까?》

《...》

현이의 눈에는 모진 고통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옥류동굴안에서 수천수만의 물거품 터치는 소리가 귀전을 울리는듯했다.

청년은 현이의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어 심심한 리해와 동정을 표시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가 그때 없는 말을 한것은 결코 아니였지요. 정수동무의 가슴에서 인간적감정이 고갈되였던 나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것이였습니다. 인젠 현이동무도 그것을 충분히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이의 두눈에는 눈물이 끓어올랐다. 그것이 정수에 대한 야속한 감정때문인지 또는 곁에 앉은 청년의 말에서 환기된 모욕감때문인지는 현이 자신도 알수 없는 그런 눈물이였다.

청년은 흘깃 현이를 돌아보더니 가엾은 처녀에게 찢디짖 눈물을 자아내게 한 정수라는 인간을 타매하듯 의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정은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수라는 인간의 유일한 애인은 과학입니다. 거기에 미쳐버리고말았는데 그야말로 광신적인 경지에 이르렀지요. 결국 그는 성공하였습니니다. 지금은 그에 대해서 세상이 떠들고있습니다. 그를 수학계의 혜성에 비하기도 하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을 비롯한 기술공학과 경제과학을 새로운 차원에 떠밀어올릴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적인 <지레대>들을 만들어낸 기초과학분야의 거장

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바랄수 있는 최고 학위학직을 젊은 나이에 쟁취한 행복자지요, 그러나 눈부신 명예를 얻은 대신 인간 그자체는 잃어버리고말았지요. 그에게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자의 야심으로 뛰고있는 그런 심장일겁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현이에게 무언가 모르계 불쾌하였다. 그러나 부인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 열살나이에 수학언어를 제나름으로 발견한 소년이 마을길을 걷고있다. 그는 밤하늘에 총총한 별세계를 바라본다.

《현이는 언젠가 우리 언어로 표시하지 못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었지. 수학에도 이 우주처럼 끝없이 커다란 세계가 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수학언어가 있어. 그 세계에는 작가들의 아름다운 환상과 같은 수학적환상이 있고 하나의 부호와 수자에도 애정이 깃들수 있단다. 과학자들은 자기 일생을 과학에 바치는것을 행복으로 여기고있대. 나는 이답에 커서 과학자가 될테야.》

소년은 빛나는 별무리를 바라보며 끝없이 걷는다. ...

열살의 소년이 이제는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다.

지금 그의 심장은 수학에 대한 애정과 탐구의 열망과 성공의 희열로 높뛰것이다. 그의 녀을 사로잡은 무한대의 수자의 세계에서 소년시절의 고향의 추억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희미할것도 당연한 일일것이다. 현이는 그것을 다시금 력력히 깨달은듯하였다.

빠스는 동음소리도 고르게 금강산쪽으로 달리고있었다.

《나는 과학의 세계에서 희열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하는것을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말았습니니다.》하고 청년은 말을 이었다. 《거기서 찾은것이 있다면 환멸 그것이라고나 할가요. 나라는 인간이 더 뻥뻥해지고 메마르기전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싶더군요. 아니 뭐 과학자가 아니라해서 이 세상에 머리들고 살수가 없겠습니니까! ...》

청년은 눈앞에 떠오른 과학이라는 무형의 존재에 도전하듯 허공을 흘겨보았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생활을 맞보고싶더군요. 정다운 동네사람들속에서 소박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싶었습니다. 그 소원이 인젠 풀렸습니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내 마음은 다소 기쁘기도 합니다.》

《또 휴가를 받았는가요?》

현이의 기계적인 물음에 청년은 숨이 가쁜듯 넥타이를 풀어놓았다.

《아주 내려갑니다. 연구소에서 나와버렸지요!

... 아마 현이동무도 나를 과학계의 락오자로 보겠지요?》

그의 물음은 오히려 현이편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저의 평가를 꼭 들어야만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를 무재능하고 열정이 없는 인간으로 평가할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나 심장에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할것입니다. 나는 정수동무와 같이 그렇게 고향조차 모르는 인간으로 되고싶지는…》

《정수동무를 여기에 꺼들 필요가 있을까요?…》

현이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음성은 가늘게 떨렸다.

《정수동무는 고향을 잊었어요. 하지만 정수동무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내가 애국자로 가장하려고 애쓴다는… 그런…》

청년은 정통을 찢리운듯 말을 더듬었다.

《충고를 주어서 고맙군요. 현이동무…》

《…》

현이는 눈을 감았다. 모든것이 쓸쓸하고 피로울뿐이었다.

빠스는 나지막한 고개길을 숨가빠 툴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빠꼭새가 노래하는곳

사랑하는 내고향일세

…

빠스뒤좌석에서 나지막한 노래소리가 들렸다.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듯싶은 애리나는 처녀가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찰랑거렸다.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곳

…

금강산행빠스에서 내려 고향쪽으로 뻗은 갈림길로 접어든 현이의 마음속에서도 잊혀졌던 노래가 은은히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15 리만 걸어가면 떠난지 3 일만에 되돌아가는 고향이 있었다. 그는 왕모래가 우물구불 무늬를 그렸던 고향길로, 그러나 지금은 곧게 포장한 길로 들어섰다.

한참 걸어가느라니 눈앞에 다리가 나타났다. 먼옛날 질풍에 휘말린 돌맹이들이 다리우를 날아넘었다고 《돌메다리》라고 부르던것은 이미 지난간 전설처럼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뜻마저 전의되어 《돌메다리》라고 불리우는 다리, 몇년전에 새로 높이 세운 그 다리우에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우뚝 서있었다. 그는 저녁노을이 붉게 비친 현이네 고향마을쪽을 바라보며 시적인 감회에

잠긴 자세로 양복앞섶을 제끼고 립상처럼 굳어져있었다. 몇해전에 양몰이쳐너 현이를 방송에 소개한적이 있는 군방송기자였다. 40 대의 건장한 체구에 다혈질인 그는 피곳 현이를 돌아보더니 반가운 웃음을 얼굴가득 띠우며 오른손을 쳐들었다.

《아, 현이동무! 그래 어딜 갔다오는길이요?》

그는 열정적으로 현이의 손을 잡아 흔들어주고 나서 장황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고향에 돌아오는 기분이 어떻게? 이 다리우에서 저녁노을에 젖은 저 나지막한 산들과 숲들과 저 시내물이 무슨 이야기를 속삭여주는것 같지는 않소? 고향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지는 않소? 고향이 자기의 표정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해본적은 없는가말이요.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고무하듯 웃어주는 그런 표정이…》

《아이참, 저는 …》

《하, 그렇게 웃지만 말구 10 여년을 척후병으로 싸워온 병사가 고향을 찾는 그런 심정에 자기를 세워보란말이요…》

《전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아직…》

현이의 얼굴은 약간 붉어졌다.

《물론 땡할테지, 하하하…》

군방송기자는 만족한듯 껄껄 웃고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난 오늘 과학자를 맞이하는 고향사람들의 경사를 취재하려고 신림리에 갔댔소. 리정수선생이 고향으로 찾아온다는 전화편락을 받구 마을사람들이 동구밖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소. 대신 통신원아바이가 차전거를 타고 나타나더군. 그는 까만승용차가 신림리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방금전에 돌아서는것을 30 년의 통신원경력이 있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게 아니겠소.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정수선생이 연구소로 도로 올라간것 같았소. 나는 허탕을 치고 맥이 풀려서 내려오다가 이 다리목에 접도록 서있는 낯선 청년을 보았소. 수척하고 기름한 얼굴에 키가 후리후리한데 순박해보이는 눈엔 눈물이 번쩍거릴 않겠소.》

그가 바로 고향으로 찾아오는 젊은 과학자였소!

그는 소문없이 고향으로 걸어들어가고싶었던것 같소. 나는 즉석에서 취재를 했소. 시인도 예술가도 아닌 그에게 고향의 목소리며 고향의 표정을 감수하는 예민한 심장이 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는 놀랐소. 문제는 그가 고향을 그려볼 때마다 고향을 대변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떠오른 바로 그것인데 그게 도대체 무언지 알수가… 아니, 현이동무, 웬일이요? …》

현이는 고향마을쪽으로 달음질쳤다. 그의 옷자락은 돛처럼 물결쳤다.

정다운 숲이여 설레이라. 노을이여 불타라. 고향의 내물이여 노래하라! ...

그대의 아들이 돌아왔다! ...

... 황혼은 짙은 나래로 동네를 감쌌건만 현이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새로운 생기로 숨쉬며 빛을 뿌렸다. 푸른 연기가 마을우에 드리워있었다.

물향기 떠도는 저녁대기속으로 맑은 방울소리가 팔랑팔랑 울렸다.

방울소리 ... 방울소리 ...

... 두볼이 통통한 소년이 어둠이 깔린 들판을 헤매고있다. 그는 동갑나이 처녀애를 만나자 그만 울상을 짓는다.

《현이, 우리 집 새끼염소를 잃어버렸어.》

《애두참... 또 책에 정신이 팔렸됐구나! 염소 한마리 찾을줄 모르면서 무슨 박사야. 내가 찾아주겠어.》

현이는 두손을 오그려 입가에 가져다대고 어미염소 울음소리를 내었다. 어둠속에서 방울소리가 가까와진다.

《매애 - 》

꼬마염소가 방울을 팔랑거리며 달려온다. ...

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이에서 들렸다.

《빨리 걸어, 빨리! 애군같이. 너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열살나는 마을의 귀염둥이 금순이의 목소리였다.

《금순이나?》

현이는 소녀를 불렀다.

《현이언니예요? 우리 애기염소때문에 정말 속상해죽겠어요.》 그는 양버티며 끌리지 않는 염소를 흘려보았다. 《오늘낮에 과학자선생님이 고향으로 오신다고 마을사람들이 동구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승용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헤여졌지만 나는 저물도록 길가에 혼자 남아기다렸어요. 내가 이답에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고향을 찾아오는 꿈을 꾸는 사이에 애기염소가 몰래 도망쳐버렸어요. 울먹거리면서 들판을 찾아헤매는데 방울소리가 들렸어요. <요 안타까비야, 너 어딜 갔댔니?>하고 내가 물으니 웬 낮선 아저씨가 염소를 앞세우고 눈앞에 나타나겠지요. <너희집 염소냐?>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예, 우리 집 말썽꾸러기 염소예요. 근데 어떻게 붙잡았어요?> <어미염소 울음소리를 냈지.> <야, 아저씨 참 묘한 생각을 했네요!> 난 손뼉을 쳤어요. <난 그런걸 몰랐어요. 내가 참 바보지요?> <나두 첨엔 몰랐단다. 어릴 때 누가 나한테 배워주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참 재미있는 아저씨예요.》

새끼염소는 매애 - 하고 울었다.

《보세요. 이 말썽꾸러기도 그 고마운 아저씨를

보았대요.》

소녀는 염소를 풀어주다가 아직도 품에 안고있는것을 현이에게 보여주었다. 어둠속에서 들꽃향기가 풍겼다.

《과학자선생님한테 드리려던 꽃다발이에요. 리당비서아저씨는 <동창생인 현이동무가 꽃다발을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우리 마을의 새로운 자랑이며 꼬마학자인 금순이가 과학자선생이 나타나면 꽃다발을 드리라.>하시더군요. 꽃다발이 인젠 시들었어요. 과학자선생님을 기다리고기다리다가 그만 시들어버리고말았어요.》 소녀는 애처로운듯 말하였다.

《그런데 현이언니 그새 어딜 갔댔어요?》

《...》

현이는 갑자기 오한을 느끼듯 몸을 떨며 걸음을 멈추었다. 어둠속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해쓷게 질려 겨우 발길을 내짚었다.

며칠전 어머니는 현이에게 말하였다.

《평성 언니네 사는 형편을 좀 보구오나라. 깨가 쏟아지는 살림재미를 눈으로 봐야 네가 좀 정신이 들러는지원. 파년한 처녀가 그꼴이 뭐냐, 그래 따르는 총각두 없던...》

현이는 오래간만에 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언니네 집에 가서야 자기를 보낸 어머니의 속심을 알게 되었다. 언니는 만나자마자 어머니와 미리 짜고든 계획을 실현하려고 서둘렀다.

《총각의 사진을 한장 보여달라니?》

《...》

현이는 잠시 망설이었다. 그러나 망설일것은 아

무것도 없었다.

《보여주세요.》

하고 현이는 말했다.

총각의 사진은 현이의 맘에 들지 않았다.

《사진이나 봐선 잘 모른다. 한번 만나보는게 어떠냐? 참 쉽지 않은 대상이다.》

《싫어요.》

현이는 간단히 대꾸했다. 재가 남은 가슴에서 첫 사랑때처럼 강렬한 불길이 타오를리는 없었다.

이제는 결혼 그자체가 실무적인것으로 변한듯 싫어 현이는 그저 쓸쓸할뿐이었다.

그리하여 사흘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렇다. 이렇든저렇든 현이는 고향의 추억과 결부된 정수를 잃어버렸었다.

아, 이제 그를 어떻게 만날까?! ...

현이는 과학자의 심장을 리해못한 자기는 오늘 동구밖에 나섰던 마을사람들속에 설자리가 없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후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집뜨락에 들어섰다.

퇴마루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현



이를 쳐다보기만했다.

《정수 그사람이 이자 너를 찾아왔었다.》

하고 어머니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그런데 넌 그사람 얘기를 왜 한번도 이 어미한테 하지 않았니?》

《!...》

《어휴, 내가 망녕이 들었지! 실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던 끝에 네가 언니의 집에 간 이야기를 꺼냈더니 정수 그 사람이 말없이 문밖으로 나가 버리더구나. 난 그때야야 ... 너를 찾아온 사연을 알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응 ...》

《!...》

고향의 밤은 너무도 고요했다.

현이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캄캄한 어둠속으로 정처없이 걸었다. ...지척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금시 머리위로 쏟아져내릴듯 흰눈처럼 무겁게 드리운 아카시아꽃가지들에서는 달디단 꽃향기가 풍겼다. 둥근달이 동산에 솟아올랐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조약돌을 굴리는 시내물의 검은 수면에는 수은같은 물방울이 튀어올라 달빛에 반짝이였다.

그 시내가에는 정수가 굳어진듯 서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무슨 사연을 속살거리며 흘러흐르는 시내물, 삼라만상을 은은한 푸른 빛으로 신비롭게 비치며 향기로운 입김처럼 아득한 공간에 그득히 차던 그 달빛 ... 그 달빛이 오늘도 흰칠하게 트인 정수의 이마를 파리한 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그는 인기척에 놀란듯 이편을 한참 바라보더니 한걸음두걸음 다가왔다.

《현이... 현이동무요?》

현이는 목이 메어 떠듬거렸다.

《저예요... 제가 현이예요...》

《현이! ...》

정수는 천진한 소년처럼 기쁨에 젖어 현이의 손을 잡았다.

《현이동무가 여기있는걸...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말을 난 믿을수가 없었소. 내 마음속의 현이는 늘 이 시내가에 서있었소. 그래서 여길 찾아오니 우리가 헤어지던 그때처럼 아카시아꽃철이 한창이고 물소리도 여전한데 현이만 보이질 않았소.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보느라니 꿈속에서처럼 현이동무가 이렇게 소리없이 나타나질 않겠소! 이게 꿈은 아니겠지? 울기는... 난 이렇게 기쁜데...》

정수는 나무라듯 눈가에 웃음을 띠웠다.

《정수동문 여전하군요.》 현이는 눈물을 감추며

조연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한마디도 써보내지 않았어요? 고향을 잊지 않았다고... 한마디도...》

《내가 무슨 낫으로 편지를 쓰겠소. 이렇다하게 해놓은 일도 없이... 그때 내가 고향을 사랑하고 추억을 사랑한다고 써보냈더라면 그건 빈소리였을거요. 현이동무도 그런 소식을 기다리지는 않았지...》

현이는 눈앞이 흐려지며 솟구치는 오열에 어깨를 떨었다.

《끝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난... 잊었됐어요...》

흐느낌소리는 점점 높아만갔다.

《난 정수동무를 잊었됐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였어요...》

《!!...》

정수는 흠칫하며 한걸음 물러서더니 묵묵히 고개를 들어 아카시아나무가지사이의 검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들리는것은 오로지 현이의 울음소리뿐 사위는 무거운 침묵속에 잠겨버렸다. 시내물은 흐름을 멈춘듯했다.

상실의 아픔이 두사람을 휩쌌다.

어둠속에서 정수의 석싹한 말소리가 울렸다.

《내가 생활에 너무 무심했었소... 내가 잘못했소...》

《아니예요. 정수동무는 자기를 몰라요. 저도 참엔 정수동무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도 싸늘하게 식어버렸다구요. ... 하지만 인젠... 인젠 정수동무를...》

현이는 그만 목이 메었다.

침묵이 흘렀다.

《현이...》 정수는 현이에게 다가서며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현이, 나를 기다려주던 현이로 다시 되어줄수는 없겠소? 나는...》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이는 눈물이 쏟아져내리는 얼굴에 두손을 가져갔다.

《저는 정수동무가 지금껏 그려보던 그런 처녀가 못되는걸요. 과학자인 정수동무를 이해하고 힘을 주는 그런 처녀가...》

고향의 밤은 깊어갔다.

시내물은 다시금 여울쳐흐르고흘렀다. 순진한 소년시절을 노래하며 고향의 푸른 밤을 끝없이 적시고있었다.

# 물에 비낀 세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앞에서 부른 노래)

김형준

나에게는  
인자하신 어머니가 있다  
눈물도 많고  
걱정도 많아  
무릎위에 손자들 가득앉히고도  
나를 꾸짖는 그런 어머니...

물에, 아, 물에  
하늘같이 민던 남편과  
두 자식마저 잃은 어머니  
값아야 할 원썩잖아  
두눈에서 흐르는 눈물마저  
씻어삼키며 살아온 그런 어머니...

해저물녘  
갈계구멍같은 토성랑의 집 찾아  
거적문을 열고 들어서면  
유복자인 나에게 주는 살뜰한 정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물녘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

가난에 쪼들려 살면서  
깡통에 운명을 맡긴 나였건만  
아들에 대한 애정  
아들에 대한 부탁이 그것이어서  
내 원망도 해왔다  
철부지 마음조차 몰라주는 어머니라고

그러던 어머니의 눈에서  
봄날의 샘줄기가 터졌다  
수령님 안고오신 조국광복의 그날부터  
어머니의 눈에  
맑게 고여 빛나던것은  
물이였다. 아 행복의 구슬이였다.

동네 조무래기들속에 끼워  
깡충한 더벅머리 내가 학교로 가던 날  
책가방을 메워주면서도  
세끼 더운밥을 먹고나면

어서 마음껏 물녘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주던 어머니  
  
아 나는 알았다  
물이야 말로 이 나라 너인들의  
마음의 호수였고 먼길의 길동무였고  
그래서 말못할 슬픔도 기쁨도  
너와 주고받으며 살아  
이 나라 너인들의 마음 그리도 밝음을

물은 가장 차디찬 증오였고  
물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였기에  
우리 수령님 항일의 20 성상 지나긴 나날  
조국진군의 붉은 화살표에  
용용 굽이쳐흐르지 않았더냐  
너, 보통강이여

조국광복을 안고오신 수령님  
수도건설의 첫 사업을  
보통강개수공사로 정하시고  
그이께서 쓰신 첫삽을 따라  
물은 행복의 굽을 잡아흘렸고  
세월은 흐름을 바꾸었나니

흐르는 그 물을 따라  
영영 실려갔다, 내 어머니 마음에 얹힌  
한숨과 눈물과 치욕도...  
흐르는 그 물굽을 따라  
영영 실려왔다 내 어머니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맑은 물이...

아, 물...!  
너는 흐르는 력사와 보이는 세월  
그리고 물에 비낀 어머니의 모습, 그것은  
풍만한 젖줄기와 뜨거운 미소를 간직한  
봉화산기슭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빛나는  
평양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였다

## 산촌의 미소

원종원

## 1

높낮은 산밭들어 첩첩한 산골길로 화물자동차 한대가 동음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달리고있었다.

발동기가 달린 무슨 기계인가를 적재함에 실은 자동차의 운전칸에는 나이든 운전사와 젊은이가 앉았는데 청년은 줄곧 차창밖에만 눈길을 팔고 있었다.

혈색좋은 검스레한 얼굴에 금방 먹으로 찍어놓은 듯한 눈썹이며 성큼한 코마루는 사내다운 인상을 진하게 안겨주었다. 크고 부리부리한 그의 눈길은 계절이 실어온 산촌의 풍만한 경치에 현혹된듯싶었다. 령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운전사도 차창앞으로 줄달음쳐오는 산밭의 수려함과 돌바위들의 기묘함에 마음이 끌린듯 병글썩 입이 벌어졌다.

《산골풍치가 쎄잖구만!》하고 운전사는 침묵을 깨트렸다.

《오를수록 더 아름답지요.》

청년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제 석암령을 넘어서면 여름꽃이 한창일겁니다. 산에서는 별방에서 볼수 없는 갖가지 산꽃들이 코가 알짜해나도록 짙은 향기를 풍겨줄게구 골짜기와 벼당에는 감자꽃이 만발할테니까요.》

운전사는 청년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그 무슨 달콤한 생각에 잠긴듯 혼자서 싱긋이 웃고있었다.

자기도 청춘기에 그래봤던가싶어진 운전사는 문득 젊은이의 그 마음속을 헤쳐보고싶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참, 주혁이, 자네 올봄날에 사귀었다는 그 네가 석암농장에서 뭘한다구?》

《시험포전을 가꾸지요.》

《그럼, 연구사란말인가?》

청년은 놀란듯이 운전사를 돌아보았다.

《웬걸요. 감자밭갈쳐너지요.》

《감자밭갈쳐네?》하고 이번에는 운전사가 눈을 치떴다.

주혁은 대답대신 빙그레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다시 바깥의 선경을 눈길을 주었다.

《허허... 비둘기마음은 콩밭에만 가있다구 자네 그쪽에서 도시 눈길을 떼지 못하겠는모양이구만.》

주혁은 얼굴이 뜨끈해났지만 그 말이 싫지 않

았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무성한 숲이며 깎아지른 절벽, 깊은 골짜기의 바위틈바구니를 미끄러져 부서져내리는 맑은 석계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는 이 석암령을 걸어서 넘던 봄날의 하루일이 땅우에 아물아물거리는 아지랑이처럼 금실금실 춤을 추었다.

...공장에서 기술혁신과제를 마무리하느라고 남들보다 사흘이나 늦게 지원농장으로 찾아댈뎀던 주혁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도록 숲속에서 헤매었다. 한고개를 넘으면 더 아찔하게 높은 산밭이 막아섰다. 쳐다보면 손바닥만한 하늘이 보일뿐 오를수록 심산이었다. 앞이 막막했다. 어지간히 맥빠진 주혁은 그만 벼랑가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다.

《넌장, 일이 맹랑스레 꼬이는걸.》

자기의 젊음을 믿고 우정 빠스도 안랐고 무작정 지름길에 접어든것이 어제와서 몹시 후회되었다. 령길을 찾아나가자고 해도 방향을 알수 없었다.

호미난방격이 된 그는 억이 막혀 앉은자리에서 입만 찻찻 다시였다. 별안간 머리우에서 흙이 와락 쏟아져내렸다. 주혁은 눈이 휘둥그래서 벼랑꼭대기를 쳐다보았다. 머리칼이 쭈뼛이 곤두선 그는 얼굴에 아무 나무가지나 잡히는대로 분질러 거머쥐었다.

헌데 벼랑우에서 난데없이 노래가락이 울리는 게 아닌가?! 분명 처녀의 애된 목청이었다.

사랑하는 석암령 내 고향은요

하늘아래 첫동네 구름웃동네

산에산에 피는 봄꽃 곱고곱지만

나는요 여름철 감자꽃이 좋아

아, 감자꽃이 나는 더 좋아

은방울 굴리는듯한 그 맑은 목소리는 주혁이의 가슴속에 시내물처럼 흘러들었다. 잔뜩 긴장했던 몸은 어느결에 사르륵 녹아내린다. 주혁은 터무니없이 맹수생각을 한것이 가소로와 혼자서 멋지게 웃고는 벼랑우로 시영시영 뚫아올랐다. 아 니나다를가 얼굴이 가름하게 생긴 처녀가 벼랑기슭을 따라가며 부지런히 삽을 놀리고있었다.

(뭘하는걸가?)

처녀는 굽혔던 허리를 폈다. 그러더니 손등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린다. 잠시

먼 산밭을 바라보는 처녀의 그윽한 눈매에는 어딘가 모르게 응석기가 돋았고 볼에는 빨갛게 홍조가 피어올랐다. 숲속을 헤매이면서 사람이 그리웠던 탓인지, 아니면 청아한 그의 목청을 들어서인지 한번 놀래워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주혁은 한발을 성큼 내짚으며 일부러 큰소리로 불렀다.

《동무!》 느닷없이 울리는 남자의 탁한 목소리에 건듯 고개를 돌린 처녀는 실눈섭을 세우며 겁에 질린듯한 눈길로 《불청객》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길도 없는 벼랑으로 어떻게...?》

처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주혁은 능청스레 대구했다.

《감자꽃이 하도 유명하다길래 꽃구경왔지요.》

《예? 룡담도... 아직 감자를 밭에다 심지도 않은걸요.》

《그래두 동문 꽃자랑을 제법 잘하던데요?》하고 주혁은 웃으며 능글스러운 소리를 했다. 처녀는 그제사 마음을 놓는듯 인상적인 눈매에 미소를 그리는데였다.

《그야 노래니깐요. 동문 우리 석암마을에 처음 오시나보지요?》

《그렇소.》

《맛춤한 때 오셨군요. 이제 좀 지나면 이 벼랑가에 진달래꽃이 막 황홀경을 이루지요. 여름이면 또...》 순진하고 천진스럽게 그지없어 주혁은 처녀의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동문 무섭지도 않소? 읍내 사람들은 여름한철이 석암령 소나기와 번개불이 두려워 문밖에 나서기조차 꺼려한다는데 동문...?》

《호호... 하늘조화가 산중턱에서 <와지곤 지곤> 하니깐 구름장우에 두둥실 떠사는 우리 석암땅은 언제나 푸른 하늘에 맑은 공기 그리구 맑은 햇빛천지지요 뭐.》

《구름장우에 두둥실 떠산다?》

《그러므요!》

발랄하고 리지적인 쾌활한 처녀였다. 주혁은 그 어떤 신념의 여운처럼 긍지높이 울리는 처녀의 말속에서 마음을 끄잡아당기는 힘을 느끼며 중동무이해버린 그의 뒤말이 기다려졌다.

《여름이 잡히면서부터 산과 마을앞 버덩에 갖가지 꽃들이 피는데 우리 석암땅에 미인으로 알려진 부채붓꽃과 금매화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와야 꽃이겠나요? 전 사실... 자연이 피워주는 그 모든 꽃들보담도 내 구슬땀을 바쳐서 가꾼 감자꽃을 더 사랑한답니다.

꽃과도속에 들어서면 그윽한 향기로 취하게 만들거든요.》

주혁은 꽃에 대한 처녀의 애착심이 너무도 진한 것이어서 땀방울이 또글또글 내뿜힌 그의 뒤흘한 코잔등을 새삼스레 지켜보았다.

처녀는 짚고섰던 삽자루를 돌려메었다.

《가시자요. 마을로.》

주혁은 따라섰다. 처녀가 금방 공글어놓은 흙밭을 밟으며 걷는 그의 가슴속에 상긋한 흙냄새가 싱그러이 스며들었다. ...

그 처녀와 만났던 때의 첫 인상도, 농장지원을 마치고 그와 헤어지던 때의 애틋한 감정도 심장속깊이 고스란히 간직한 주혁이었다.

(그 동문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까? 그 옥분동무가 것처럼 사랑한다던 감자꽃이 한물 지지나 않았는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자동차는 령을 넘었다. 운전사한테 꽃자랑을 늘어놓았던 주혁은 꽃이 피지 않은 감자밭을 바라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그 너머로 석암마을이 안겨들었다. 동구앞으로 한 처녀가 파란 머리수건을 팔랑거리며 쟁걸음으로 나왔다. 그러더니 인츰 산기슭의 감자밭쪽으로 돌아섰다. 주혁은 성급히 운전사한테 고개를 돌렸다.

《차를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왜?》 해놓고 운전사도 《자네 마음을 알만해.》 하듯 히죽이 웃어보이더니 그 처녀의 용모부터 보고싶었던모양 짧은 경적을 다급히 울렸다. 아닐세라 그 처녀는 놀란듯이 돌아보았다. 헌데 너무도 애되고 오동통한 불이 운전사의 눈에 띄었다. 자동차는 처녀앞에 멎었다. 주혁은 차문을 벌컥 열어제꼈다.

《은실동무!》

순간 어린 처녀의 눈빛이 맑은 광채를 뿜으며 환희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아이! 오신다는 기별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감자수확기를 만들어가지구 왔지.》

《그래요?》 처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적재함에 언땀 매달렸다.

순간 그의 눈이 반짝 빛을 뿌렸다.

《아이, 묘하게도 생겼네. 옥분언니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운전사는 천진스러운 그 모양에 기대가 허물어진듯 털썩 땅에 내려서며 좀 투박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무척 좋아하는 하는데 뭘루 품값을 내놓을테요?》

《품값을요? 올감자를 한차 듬뿍 실어드리지요.》

《그런걸로는 안되겠는걸.》

《그럼 뭘 바라시나요?》

《향기로운 산꽃을 꺾어갈테요.》

《부채붓꽃말이야요?》  
 《그것두 아니요.》  
 《그럼?》 은실은 눈이 둥그래졌다.  
 《팔짝 핀 감자꽃 한송이를말이요.》  
 《어마나!》 은실은 앞가슴에 두손을 모아쥐고 제  
 미나게 웃더니 어디론가 바빠 달아나버렸다.  
 《허허...》 하고 운전사는 사람좋은 웃음을 터뜨  
 렸다. 주혁은 시무룩이 미소를 지어보일뿐 말없  
 이 은실이의 뒤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 2

《언니 - 》  
 좁은 끝안을 짜랑짜랑 울리는 목청에 옥분이는  
 일손을 멈추고 어깨를 일으켰다. 비탈길로 은실  
 이가 금시 없어질듯말듯하며 바빠 달려오고있었  
 다.

(아니, 저 애가?)  
 은실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다.  
 《언니-! 왔어-요-》  
 (응?) 옥분이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윽고 발머리에 들어선 은실이가 감자포기를  
 마구 헤치며 허겁지겁 다가왔다.

옥분이는 조급히 물었다.  
 《뭐가 왔다는거니? 밀도골도 없이...》  
 《기계공장 주혁동무가 글썄...》  
 은실은 미처 숨을 돌리지 못해 어깨숨만 몰아  
 쉬었다.

옥분이는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간신히 누르며  
 은실이의 입만 지켜보았다.  
 《주혁동무가 자동차에다 감자수확기를 싣고왔  
 어요.》

《그게 정말이니?》  
 《금방 마을길로 들어서는데 만났지요 뭐.》  
 옥분이는 기쁜 소식을 날라온 은실이를 꼭 거  
 안아주고싶었지만 앞서는 그 마음을 꼭 참았다.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니?》  
 《관리위원회로 갔을거야요. 근데 글썄 운전사  
 아저씨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품값으로 활짝 핀  
 감자꽃 한송이를 꺾어가겠다나요?! 참, 우스워  
 서... 호호.》 하고 은실은 호들갑스레 웃었지만 옥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입가풀이 얇은 은실이가 또 종알거렸다.  
 《이제 여기로 곧바로 찾아올거야요.》  
 너무도 천진한 은실이었다. 옥분이는 괜히 가  
 슴만 두근거려났다.

올봄날에 있었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것은 시험포전에 감자파종을 끝낸 다음날이  
 었다. 가물철 발판수가 걱정되어 골짜기에 물웅  
 덩이를 파는데 난데없이 마른 봇나무잎사귀가 물

위에 떨어져내렸다.  
 옥분이는 그렇거니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삽질을 계속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파란 버  
 들잎이 하늘하늘 춤추며 내려졌다.

(바람결도 없는데 웬 버들잎인가?)  
 옥분이는 허리를 펴고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현대 맞은편 언덕반이에서 주혁이가 싱글벙글 웃  
 고있는게 아닌가.

(사람이 어찌면...)  
 옥분이는 알미운 생각이 앞서 눈을 흘겨주고  
 다시 삽자루를 거머쥐는데 그가 어디서 굴러왔는  
 지 망돌같은 바위돌을 무겁게 안고 개울로 터벅  
 터벅 내려왔다.

물동우에다 《쿵!》 소리나게 돌을 내려놓은 주  
 혁은 떡심중계 말을 걸었다.

《이런 일이야 혼자서 할 멋이 없지.》  
 《...》 옥분이는 대답을 피했다.  
 주혁은 바지가랭이를 허벅다리우로 건어올리고  
 물에 침범 뛰어들더니 불쑥 옥분이앞에다 손을  
 내밀었다.

《인주요. 애들 소꿉장난처럼 그렇게나 막아서  
 일이 되겠소? 이왕 할바엔 산천어도 기를수 있도  
 록 통이 크게 해야지.》

삽을 빼앗아친 그는 힘장사처럼 흙무지우에다  
 물모래를 와락와락 퍼올렸다. 듯밖에 나타난 주  
 혁이로 하여 코허리가 시큰해진 옥분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한나절 품을 들여 물동을 막은 그  
 들은 높은 뚝우에 앉았다.

주혁은 담배불을 붙여물고 한모금 달게 빨더니  
 다소 통명스럽게 물었다.

《동문 하많은 땅을 두고 하필 이런 외진 골짜  
 기에다 시험포전을 가꿀게 뭐요?》

《뭐가 마음에 안들어요?》하고 옥분이는 여느때  
 없이 무뚝뚝해진 주혁이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땅도 걸고 새봄이 먼저 깃드는 마을 터밭에  
 가꾸면 좀 좋으냐말이요.》

《땅이야 걸구면 되지요. 옥종가는 언제나 불리  
 한 지대와 어려운 환경조건에 자기를 세울줄 알  
 아야 하니까요.》

《동무야 농장원이지 옥종가요? 동무의 말대루  
 옥종가라 칩시다. 그렇더라도 척박한 이런 땅에  
 서 뭘 바라겠소?》

《참, 동무는... 추운땅에서 자란 감자를 더운땅  
 에 옮겨심으면 수확이 곱절 난답니다.》 처녀의 말  
 에 충격을 받은 주혁은 부리부리한 눈을 치떴다.

《진짜 그렇게 되긴 되오?》  
 《못미더운가보지요? 하지만 그건 과학이야요.  
 감자의 그러한 생태학적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종  
 자를 얻자는거지요.》

《옥분동무! 내가 도와나설 일은 없겠소?》

《왜 없겠나요. 평지밭에서는 기계로 일을 흥겹게 하지만 이런 경사지밭들은 아직 기계화를 완전히 실현 못하고있지 않아요.》

《수확기말이요?》

《수확기면 더욱 좋겠지만 자그마한 기계라도...》

주혁은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날 믿소, 옥분동무!》

《어마나, 정말 만들어주실래요?》

《믿으라질 않소.》

《...!》

떠나간후, 편지 한장 없던 그 《공장청년》이 약속대로 감자수확기를 만들어가지고 온것이다. 옥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였다.

옥분이는 의로운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될 일이 무척 기뻐다.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언니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고 은실이가 말뚱하니 쳐다보았다. 옥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서둘러 도리질을 하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귀방울이 빨강계 익었는데두 언니 그제 아니라네.》

동생같은 은실이한테 어쩔수 없이 제속을 난타들린 옥분이는 《요 깜찍한것!》하며 그의 손등을 꼬집어놓았다. 은실은 바스라지는 소리를 질렀다.

마음속을 뻘히 들여다볼줄 아는 령리한 애였다.

촉기빠른 그가 눈치챘듯이 옥분이의 가슴속에 저도 몰래 자리잡은 주혁이였다. 그 마음이 언제부터 싹터올랐던지 자기로서도 딱히 몰랐다.

울봄날, 벼랑가에서 만난 그때부터였던지 아니면 물동을 막던 그 시각부터였던지 ...

이미 가슴속에 뿌리내린 그 마음을 오늘까지 그 누구에게도 숨겨오는 옥분이였다.

잠시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골짜기아래에서 발동기소리가 울렸다. 은실은 두눈을 깜빡해보이며 옥분이를 살근히 떠밀었다.

《언니, 마중하랴요. 어서요.》

은실이의 말에 이기지 못하겠는듯 옥분이는 발머리로 나갔다. 그러더니 점차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 모양을 바라보며 깨고소하게 웃던 은실은 깜빡 잊은듯이 한마디 더 일러주었다.

《언니! 얼굴을 닦으랴요-》

했지만 옥분이는 그 말을 들은등만등 내리달렸다.

《주혁동무!》

처녀의 그 목소리에 자체력을 잃은 주혁은 감자수확기를 멈춰세우고 운전대에서 뛰어내렸다.

《옥분동무!》

주혁이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는 운전대에 뉘름 올라섰다.

《오르오. 옥분동무.》

옥분이가 발판우에 오르자 주혁은 수확기를 물었다.

옥분이는 찬찬한 눈길로 기계의 구조와 작용원리들을 간간히 살펴보았다. 발동기가 앞머리에 놓여졌는데 보습날우로 흔들이채가 두개씩이나 경사지게 달린 외이랑잡이수확기였다.

《기계가 마음에 드요?》

《써봐야 알지요.》

《하긴 걸뭇시보다 성능이 좋아야 하니까.》

주혁은 처녀의 말을 수긍했다. 비탈길로 은실이 뛰어왔다. 그는 주혁이가 손세를 써 가리켜준 감자저장통옆자리에 날래게 올라탔다. 골바람이 일었다. 바람결은 주혁이의 달아오른 이마를 식혀주었고 두 처녀의 머리수건을 기폭처럼 날렸다. 주혁은 기분이 상쾌했다. 그는 옥분이한테 고개를 돌렸다.

《시험포전에 가면 꽃구경할수 있겠지요?》

《안요, 아직은...》

《안됐소? 그럼 수확기시험을 어디서 해본다?》

김이빠진 주혁이의 말을 뒤에 선 은실이 냉큼 받았다.

《왜요? 올감자가 있잖아요.》

《그 올감자밭이 어데 있소?》

《교잡시험하러고 포전머리에 몇이랑 심었지요 뭘.》

주혁은 옥분이한테 고개를 돌렸다. 그가 애써 피운 꽃속에서 처녀의 살뜰한 마음을 보고싶은 주혁이였다.

《올감자는 꽃이 피어있겠소?》

《안요, 이미 저버렸어요.》

《벌써? 꽃구경하긴 아예 굴렀군.》

《이제 늦감자꽃이 필테지요. 하지만 감자꽃은 자기를 위해서 땀을 바치지 않은 사람한테는 땅울을 터쳐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렇소?!》

주혁은 옥분이를 마주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어느덧 그들은 시험포전에 닿았다. 수확기에서 내린 은실은 주혁이가 작업준비를 하는동안 옥분이를 발 한쪽가로 끌고가서 땀얼룩이 지도를 그린 그의 얼굴에 손거울을 비춰보였다.

《언니 그 모양을 해가지구선... 호호.》

《애두 참...》

두 처녀는 즐겁게 웃었다.

이럴 때 발동소리가 다시 울렸다.

웃음을 그친 옥분이와 은실은 황황히 수확기걸로 다가갔다. 경사지의 올감자밭이랑에 수확기

를 들여세운 주혁이가 저속으로 천천히 기계를 몰아갔다. 그러자 둔덕쪽 바위가 자동적으로 돌리면서 반듯이 놓인 보습날이 이랑흙을 통채로 파헤쳤다. 흙밥이 흔들이채밀로 떡가루처럼 흘러내렸다.

두번째 흔들이채우에서는 감자알들만이 네굴데굴 굴면서 넘적한 고무판을 타고 통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요술사의 손마냥 재치있는 기계의 동작들을 지켜보던 은실은 아이들처럼 손뼉을 울렸다.

《야! 감자알을 감쪽하게두 골라내네.》

《그렇게 좋아하긴 아직 이르오.》

《왜요? 우리 일을 덜어주는데우요?》

《부족점이 나타날수도 있으니까.》

했지만 수확기는 한알도 허실할세라 모조리 파올렸다.

은실은 그렇듯 훌륭한 수확작업을 혼자서 보게 되는것이 못내 아쉬웠다.

은 농장에 떠들썩하게 소문놓고싶었다.

《언니, 제가 얼른 마을에 갔다올래요.》

《마을에는 왜?》

《자랑할래두 구경꾼들이 있어야말이지요?》

눈을 할기죽해보인 은실은 마을로 총총히 다녀내려갔다.

《은 애두.》하고 옥분이는 정겨운 눈매로 은실을 바라보는데 운전대를 틀어준 주혁은 싱글벙글 웃는다.

《언제봐야 귀엽게 굴거든.》

작업은 계속되었다. 수확기의 뒤를 따르며 저장통속에 쌓이는 감자알들을 눈여겨보던 옥분이는 눈이 둥그래졌다. 처녀는 감자 한알을 골라쥐며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주혁동무, 기계를 멈춰줘요.》

《왜 그러우?》

《이걸 좀 봐요. 껍질이 벗겨지는구만요.》

주혁은 수확기를 멈춰세웠다.

하고는 감자알을 받아쥐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안되겠군.》

《상하지 않도록 할수는 없을가요?》

처녀의 눈에 안타까운 빛이 어리었다.

주혁은 다시 기계를 운전하면서 수확기의 매부분 동작상태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더니 무릎을 탁 쳤다.

《2 단체의 살간격을 너무 드물게 댄데 원인이 있구만.》

《그래요.》

《이 이랑이나 마저 캐고 농장수리분조에 내려가서 개조하도록 합시다.》

옥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수확기를 세

우고 뒤거둠을 말끔히 끝낸 옥분이와 주혁은 밭머리의 둔덕진곳에 나란히 앉았다. 스스럼없이 택한 자연스럽고 평온한 자리였다. 했던만 왜선지 점도록 서로 입을 열지 않고 한창 꽃망울이 잡혀 무성해가는 늦감자숲만 바라보았다. 둘의 눈길이 맺은 그곳에 노랑나비들이 꽃망울을 찾아 날고있었다. 그 나비와 꽃망울처럼 만나보고싶었고 저도 몰래 은근히 기다려졌던 그들이면서도 막상 이렇게 가지런히 앉고보니 하고싶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일시에 삼검불처럼 엉켜져버린 듯싶기도 했다. 아니 그보다도 첫마디에 담을 값있고 인상적인 말을 고르느라고 그러는것인지도 몰랐다. 이윽해서야 옥분이가 조용히 입을 열어 진정을 표시했다.

《주혁동무!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뭘, 별로... 농촌을 힘껏 돕는거야 로동계급의 응당한 본분인데 더 요구할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하오.》

옥분이한테는 그 말이 더없이 반가왔다.

《저... 간편한 파종기는 안될가요?》

《마음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지. 우리 공장에서 한번 재간껏 만들어보자고 호소하겠소.》

《고마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둘의 눈길은 은근히 마주쳤다. 옥분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먼 산밭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황홀한 꿈으로 설레었다.

《주혁동무,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해요. 높낮은 저 산밭들을 비단필처럼 짝 펴놓고 가꾼다면 우리 석암땅은 얼마나 더 풍요하고 아름답운가! 하구요.》

주혁은 노을처럼 타는 처녀의 눈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어디서인가 피팔새가 유별나게 고운 목청을 돋구며 《피팔, 피팔...》하고 울었다.

### 3

달 밝은 저녁이었다.

감자밭머리에 두 처녀가 어깨를 붙이고 앉아있었다.

성실한 로동으로 하루일을 끝내고서도 정녕 자리를 드고싶지 않은 옥분이와 은실이었다.

봄여름내 시험포전에 불어살다싶이해온 그들은 새움이 돌던 그날부터 그러은 꽃계절을 눈앞에 두고 꽃이 활짝 피여날 그 시각이 못견디게 기다려지는듯 달빛아래 시시각각으로 부풀어오르는 꽃망울을 지켜보았다.

가슴을 조이는 조금한 그 마음은 올봄날부터 옥분이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은실이편이 더했다.

꺾고앉은 무릎위에 수첩을 펼친 은실은 원주필로 《7 월 ××일》이라고 날자를 박아쓰고나서 옥분이한테 물었다.

《언니, 오늘 관찰자료를 뭐라고 쓸가요?》

옥분이는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주었다.

《감자꽃망울들이 일제히 부풀어올랐음. 망울크기는 직경 5 밀리미터, 포기당 망울수는 둘 ? 내지 셋... 빨간딱정벌레에 의한 예찰이 필요함.》《네?》은실은 눈이 커졌다. 딱정벌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실이였다.

《점심때 개울쪽 발머리에서 그 징조를 발견했었어.》

《그래요?! 언닌 정말... 전 언제 가면 언니만큼 될가요?》

《그야 네가 노력하기탓이겠지,》해놓고 옥분이는 돌고개마루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분비나무가지에 걸렸던 엷은 구름이 먼사포마냥 날리며 둥근달의 아래쪽 반권을 가리우고 발그레 물들고 있었다. 은실은 옥분이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구름장이 밀리고 엷바뀔때마다 언니의 낮색이 별스레 붉어지는가 하면 핏색해지기도 하며 야릇한 표정을 드러내곤했다.

은실은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렇지만... 언니가 자리를 훌 뜰 일이 생기면 그뎐...》

《응?》

《그뎐 저혼자서 어떻게 해요?》

《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했지만 옥분이는 화끈 달아오른 불의 홍조를 감출수 없었다.

《언니는 숨겨두 전 벌써 다 알아요. 언니의 마음을... 수확기를 돌려주면 족지 언니만은 절대로 안놓아줄테야요.》

이럴 때 숲속에서 나무가지 꺾이는 소리가 울렸다. 두 처녀는 흠칫 고개를 돌렸다. 주혁이가 분비나무가지를 활활 밀어던지며 다가오고있었다.

은실은 못할 말을 하다가 들킨 학생처럼 입을 봉하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더니 금방 도도해졌던 그 용기마저 물거품이 돼버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내려갈래요.》

《왜 그러니? 같이 가자꾸나.》

했지만 은실은 쫓기듯이 달아났다. 옥분이는 발머리의 감자꽃망울들을 쓸어만지며 안절부절못했다. 은실이가 사라진 언덕길에서 《보람찬 내 삶이 꽃피난곳은...》하는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은은하고 서정적인 그 선율속에서 《전 언니를 믿어요!》하는 은실이의 절절한 호소가 금시 울려올것만 같았다.

(주혁동무가 이제 무슨 말을 할가?)

옥분이는 가슴이 쿵마당질하듯했다.

발자국소리는 어느결에 옆에 와서 푹 멎었다.

머리우에서 웅글진 목소리가 울렸다.

《은실이는 어뎐 갔소?》

다행스러웠다. 옥분이는 어깨를 낮추며 숨을 호 ? 가버이 내쉬었다.

《먼저 내려갔어요.》

주혁은 더 묻지 않고 감자밭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옥분이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내 방금 마을앞버덩밭을 돌아보고 오는 길인데 시험포전 작황이 거기보다 월등하구만. 줄기와 이의 세력도 좋고 꽃망울도 더 크고...》

옥분이는 자기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그의 말이 고마왔다. 그러나 무슨 말로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 마음을 알아주듯 주혁이가 성큼 발이랑에 내려섰다.

그 힘에 이끌린듯 옥분이도 따라섰다. 둘은 발이랑사이를 지나 숲속길을 걸었다. 수림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듯 아니, 그 정적을 깨뜨릴가봐 저어하듯 둘은 발자국마저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속에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기라도 하듯.

옥분이는 주혁이의 말이 기다려졌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처녀는 입술을 감빤았다. 처녀의 그 마음을 무제한한 견인력을 가지고 끌어당기듯 덤덤히 발걸음을 옮겨놓던 주혁은 마침내 옥분이 한테로 고개를 돌렸다. 처녀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주혁이를 쳐다보았다.

《파종기는 언제쯤 만들어주시겠어요?》

《이왕 왔던 걸음에 설계를 끝내볼가 하는 생각이요.》

《모처럼 받은 휴가를 우리 일에 다 바치면...》

《휴가를 좀 바친들 뭐라요. 내 땀과 지혜가 옥분동무에게 기쁨을 준다면 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테요.》

둘의 눈길은 은연중 마주쳤다. 동시에 발걸음도 멎었다.

《옥분동무, 난 사실... 하고싶은 이야기가...》

주혁이는 끝내 말끝을 흐려버렸다.

그 강렬한 눈빛을 본 옥분이는 살며시 눈길을 발부리에 떨어뜨렸다.

《그렇지만...》

《...?》주혁은 가슴을 조이며 그의 뒤말을 기다렸다. 무엇인가 처녀의 말을 듣고싶은 주혁이였다.

옥분이는 선뜻 입을 열지 않고 발걸을 소리없이 옮겨놓았다. 주혁이도 그가 하는대로 발을 옮겨짚었다.

잠시 야릇한 침묵이 흘렀다. 분비나무가지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달빛은 말없는 둘의 마음



을 어루만져주는듯싶었다. 숲속의 정적은 갈수록 짙어갔다.

이윽고 옥분이는 머리를 숙연히 들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 여기서 나서자라면서도 고향마을 산과 들이 이처럼 정다운줄 몰랐었어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향마을농장으로 돌아와서 내 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묻어보구서야 새움을 틔워주고 열매를 주는 흙이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부드럽고 싱그러운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꽃은 제 손으로 가꾸고 피워봐야 향기를 알게 된다고요. 정말 그 말씀이 옳았어요. 어릴적에 감자꽃을 꺾어 소꿉놀이를 하면서도 명절날 학교에 찾아온 인민군대 영웅아 저씨에게 산꽃을 꺾어 꽃다발을 안겨드리면서도 그때는 알수 없었지요. 농장에서 일손을 잡은 첫째여름에 시험포전을 따들려 가꾸면서 내 손으로 꽃을 피워보구서야 비로소 감자꽃이 아릴싸하면서 그처럼 향기 그윽한줄 알게 되었으니깐요. 한테두 전 아직 이 땅을 살찌우고 풍성한 열매를 안겨줄 다수확품종을 얻어내지 못하고있어요. 꽃철을 앞둔 요즘은 잠도 제대로 안오는군요.》

옥분이는 말을 끊고 주혁이를 돌아보았다. 주혁은 고개를 수긏하고 덤덤히 듣기만하였다.

《주혁동무! 전 아마도 고향땅을 떠나서는 잠시도 마음 편하게 살수 없을가봐요.》

옥분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절절한 호소가 느껴졌다. 주혁은 지금껏 알수 없었던 처녀의 마음속을 거울에 비쳐본듯싶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걸었다.

숲속길을 벗어난 둘은 사열귀나무들이 들성들성 자란 언덕길을 내리기 시작했다. 달은 휘영청 밝았다 눈아래에 들죽술이 펼쳐졌다. 주혁이의 반응을 들어보지 못한 옥분이는 옥죄어드는 가슴을 불안고 한발 뒤에 따라섰다.

(주혁동문 왜 말이 없을까? 내가 공연히 그의 심정을 건드려놓은게 아닐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주혁은 여라문 발자국 앞서 내려가고있었다.

그는 마음이 순란치 못한듯 언덕길을 가려보지 못하고 풀숲을 걷어차며 터벅터벅 걸었다.

(아이, 어쩌나...) 옥분이는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주혁동무! 아래길로 내려서 걸어요.》

처녀의 그 목소리가 어쩌나 애절하게 울렸던지 우뚝 멈춰선 주혁은 풀숲에서 창황히 물러났다.

황급히 달려내려온 옥분이는 허리를 굽히고 앉으며 그가 금방 짓밟아놓은 꽃포기를 그러안고 울상이 돼버렸다.

《동문 정말...》

《허 참, 옥분동무앞에서는 산언덕에서 두발을 떼고 다녀야 할가보군.》 주혁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허구프게 웃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주혁동문 아직 모르시나 보군요. 금수강산에 유독 우리 석암땅에만 피어나는 천연보호식물이랍니다.》

《뭘길래...》

《부채붓꽃이지요.》

《그럼소?》 주혁이의 술진 눈썹꼬리가 하늘로 들리었다. 올봄날, 벼랑가에서 그가 입에 올린 금매화마저도 가려보아야 할 자기를 의식하며 주혁은 처녀의 맑은 눈동자를 내려다보았다. 이슬이 고여있었다. 달빛어린 그 한방울의 이슬에 온 하늘이 비낀듯싶었다.

자신의 무례함을 깨달은 그는 무릎을 꿇고 옥분이와 마주앉았다.

《참, 동무는...》

주혁은 뒤말을 삼키고말았다. ...

그날밤, 주혁은 책상위에 팔굽을 꿇고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눈앞에 옥분이의 얼굴이 그려지면서 그의 까만 눈이 줄곧 마주 지켜보고있는듯이 느껴졌다.

물기어린 그 눈길은 누구를 원망하는것 같기도 하고 애원하는것 같기도 했다.

옥분이를 사랑한다는것은 그 처녀만이 아닌 이 땅과 이 땅위에 자라난 숲, 저절로 피어나는 한떨기의 꽃나무와 한포기의 풀 그리고 맑은 하늘과 은은한 달빛... 이 석암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 정을 붙인다는것을 의미함은 주혁은 새롭게 느꼈다.

상해버린 부채붓꽃 한포기를 불안고 쓸어만지며 울상이 된 그 자리에서는 미처 몰랐던 처녀의 깨끗한 마음이 주혁이의 가슴속에 점차 수정처럼 정화돼갔다.

(이 석암땅에 땀과 지혜를 바쳐야 할 내 일몫이 얼마나 큰가?! 파종기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혁은 두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심장속 깊은곳에서 엄엄하고 진중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향기없는 꽃은 꽃이 아니다. 향기를 맛보았거든 그 꽃을 피워라. 꽃향기에 취하려거든 그 땅의 흙이 되고 거름이 되여라...》

주혁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다정한 어느 친구의 목소리도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주던 아버지의 근엄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앞내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놀던 유치원시절, 꽃사탕이 든 간식봉투를 쥐여주며 하던 너선생의 맑은 목소리같기도 했고 군인선서를 하던 날, 피끓는 가슴에 혁명의 무기

를 안겨주며 솔바람 세찬 해안초소에 세워주던 중대장의 우렁우렁한 그 목소리같기도 했다. ...

분명 그것은 태어난 그날부터 파스한 요람속에 포근히 안아주고 걸음마를 떼어주고 홀로 떨어질세라 손잡아 이끌어주며 청춘이 가장 빛나는 영광의 길로 떠밀어주던, 꾸지람조차도 다심하고 자애깊은 어머니당의 목소리였다. 그 어머니품의 밝은 햇빛이 쏟아져내리는 그곳, 꽃파도속에서 옥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한테 무엇인가 자꾸 속삭이고있었다.

《주혁동무! 저 높은 산밭들과 골짜기들을 비단 필처럼 펴놓고 꽃을 가꾼다면 이 땅은 지금보다 두 얼마나 더 풍요하고 아름다울까요? 여기에 우리 청춘들의 랑만이 있고 미래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황홀한 꿈과 불타는 지향,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충만된 처녀의 심장의 호소는 우뢰치듯 주혁이의 가슴을 광풍 울려주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어제겼다. 달빛이 교묘히 흐르는 마을앞버덩은 신비로운 은빛세계에 에워싸여있었다.

주혁은 버덩길에 나섰다. 옥분이가 가꾸는 감자꽃향기를 랑껏 들이키고싶었다. 사랑의 꽃향기도 그속에서 풍길것이었다.

## 4

이 며칠 주혁은 감자밭에서 살았다. 찌리굴 시험포전에도 올라가보고 버들내가의 사래긴 밭에도 나가보았다. 어디로 가보나 진록색주단을 펼친듯 포기포기 어우러져 땅을 볼수 없는 무성한 감자숲이 자기를 반겨맞아주었다. 푸르른 그 숲우에봉긋이 부풀어오른 꽃망울들이 시간을 다투어 머리를 쳐들었다. 회숙하기도 하고 누르기에 하기도 하고 물이 들가말가 연한 분홍과 진보라 빛갈을 띤것도 있다. 하지만 속깊은 어떤 색소를 띤것인지? 꽃술은 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 도무지 알수 없었다. 꽃망울은 벌써 여러날째 본격적으로 커가고있었지만 못충각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처녀의 수줍음을 품은듯 꼭 다물고 서뽕리 제속을 털어보이려고 하지 않는것이다. 벼랑우에서 만났던 그날에 옥분이가 가슴속에 심어준 꽃이어서 망울터칠 그 시각을 애타게 고대하는 주혁이었다. 그날에 자기르 근현혹케 만든 그 밝은 웃음과 불같은 열정, 고향땅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

언제나 그 웃음, 그 열정, 그 애착심을 안고 지향의 명마루를 뚫아오를 옥분이기도 했다.

눈앞에서 지워버릴수 없는 그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온 넋을 쥐여잡으며 심장속에 꽃으로

무성해갔다.

밤새껏 파종기설계에 골몰했던 주혁은 이 아침도 찌리굴로 향했다.

모름지기 옥분이가 정성을 담아부어 가꾼 시험포전의 꽃망울들이 먼저 피어나리라는 마음에서였다.

《호르륵 - 종종... 휘-익-》

숲속에서 이름모를 메새가 고운 목청으로 울었다. 주혁은 걸음을 멈췄다. 피나무의 휘늘어진 가지우에 작은 새 한마리가 노란꼬리를 깡둥하게 쳐들고 앉아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그놈은 《푸드득》 하고 하늘공중으로 높이 날아오르더니 마치 옥분이가 보낸 길안내자이기라도 한것처럼 곧바로 찌리굴숲속으로 내리꽃혔다. 주혁은 걸음이 빨라졌다.

감자꽃이 첫새벽에 핀것이나 아닌지 몰랐다. 허겁지겁 찌리굴어구에 들어선 그는 시험포전 감자밭에 눈총을 쏘았다. 헌데 여전히 꽃망울 그대로였다. 조금하던 마음은 붉은처럼 녹아내렸다. 한데도 안정감을 주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이 석암땅의 꽃은 왜 이다지도 더디게 피는것인지 바이 알수 없었다. 포전에서 한밤을 지낸듯이슬젖은 발머리에 옥분이가 서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주혁은 성큼성큼 발머리로 다가갔다.

날씬한 몸매를 가볍게 돌린 옥분이가 방긋 미소를 그린다.

《아이, 왜 또 올라와요?》

《동무는 내가 올라오는게 싫은 모양이구만?》

주혁이의 능청스러운 말에 처녀는 쌍까풀진 눈을 들어 살그머니 흘기였다. 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그 억양, 그 눈빛 속에 오가고있었다.

《언제부터 피노라던 꽃이 왜 아직도 이 모양이요?》

《이제 필테지요. 꽃은 거의다 그러는것이지만 우리 석암땅의 감자꽃은 류다르게 수줍음이 많거든요.》

《아무리 그렇다손쳐도 망울이 잡힌지 벌써 며칠째요?》

《참, 주혁동문 그럴 때 보면 꼭...》

《내가?》

《무턱대구 조르니깐 그러지요 뭐.》

눈을 치며울린 주혁은 호탕하게 웃어대였고 손등으로 입술을 가리운 옥분이는 망울굴리는 소리르 근내며 재미나게 웃는다.

《보채게두 됐지, 동무가 새봄부터 하늘만침 자랑하던 꽃구경을 상기두 못했으니까.》

《그러게 핀다지 않아요.》

《어느 시각에?》

《이제 곧.》 둘의 타는듯한 눈빛은 밝은 공간에서 마주 어리광치고있었다.

미구에 돌고개너머에서 아침해가 불끈 솟아올랐다. 해살은 처음, 등성이우에 체조대형으로 늘어선듯 키높이 자란 봇나무들의 성긴 가지와 잎사귀들 째새기를 헤치며 감자밭우에 억만오리의 금실을 늘이는듯했다.

그러더니 어느결에 그 자태를 걷어버리고는 뽕안 연무와 같은 빗발을 뿜어내려 알을 품은 씨암탉처럼 아늑하고 따스한 온기로 감자숲을 포근히 감쌌다. 이윽고 새벽이슬을 함초롬히 이고 머리를 쳐들었던 망울들이 일시에 오무리였던 꽃잎을 활짝 터뜨리며 은혜로운 태양을 향해 방긋 웃었다.

《꽃이 퍼요-!》

옥분이는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발이랑으로 뛰어들며 두팔로 감자포기를 마구 헤친다.

허리를 굽혀 꽃에다 불을 비벼보기도 하고 꽃술을 살짝 건드려놓고 방긋 웃기도 하며 꽃을 찾아헤매는 그 모양은 금시 피어난 또 한송이의 꽃이랄가.

주혁이도 발이랑으로 뛰어들었다. 옥분이가 금방 이슬을 털어놓은 그 발이랑이 아니었다. 먼 다른 발이랑도 아니다. 그가 헤쳐간 바로 그 옆이랑을 차고나가며 청신하고 발랄하고 티없이 유정한 그 꽃송이를 놓쳐버릴가봐 두렵기라도 한듯 바빠 따라섰다.

앞서가던 옥분이가 문득 멈춰섰다. 꽃바람이 일기 시작한것이다.

살랑바람에 꽃들이 불을 맛비비며 하늘하늘 춤을 춘다. 꽃대를 휘어잡고 놀이질하던 미풍은 성차지 않은듯 점점 더 세차게 밀려온다.

《좌-》

꽃물결이 인다. 흰바탕에 보라빛 물을 들인듯한 그 꽃물결은 짙은 향기를 풍기며 옥분이와 주혁이의 앞가슴에 밀려와서는 고마움에 목메여 절하듯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는 다시 꽃파도를 일으키며 저편으로 좌- 밀려간다. 둘은 한동안 꽃물결이 설레이는 포전 한골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흰구름도 이 땅의 꽃바다가 부러워 소리없이 내려앉은듯, 통채로 꽃물결을 싣고 떠가는듯싶다.

옥분이는 주혁이한테 고개를 돌렸다. 처녀의 볼에 우물이 복스럽게 패인다.

《주혁동무! 지금 뭘 생각하세요?》

《꽃에 대해서 아니,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에 대해서...》

《그래요! 피우면피울수록 곱구 그윽한게 꽃인가보지요?》

《옳은 말이요. 꼭 꽃바다우에 쪽배를 타구 동등 떠가는 기분이요.》

《이제 우리가 육중한 <고산 1 호>가 기상대를 세울 저 높은 해맞이등성이를 덮구... 봄, 여름,

가을 없이 기계로 그걸 가꾸게 될 우리 석암마을의 앞날은 얼마나 황홀해요. 그땐...》해놓고 말꼬리를 삼켜버린 옥분이는 얼굴이 확 붉어졌다. 수줍은 그 모양을 지켜보는 주혁이의 얼굴에도 빙그레 미소가 어린다.

《그렇소.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린 푸르른 이 땅과 해빛찬란한 저 하늘, 꽃향기를 풍겨주는 맑은 공기와 살들한 바람결... 이 땅우에 존재하고 이 땅우에 창조되는 그 모든것이 우리의 것이요!》

《고마와요. 주혁동무!》

《옥분동무!》

주혁의 처녀의 손을 짹 들어쥐었다.

마주 웃음짓는 둘의 얼굴은 해빛향해 피어난 한떨기의 꽃처럼 만발했다.

둘은 또다시 어깨나란히 걷는다. 꽃향기에 취하도록 해종일 그렇게 걷고싶은것이다. 꽃파도를 헤치며 사랑의 꽃열매를 무르익히며...

이튿날 살충제를 가지러 농약창고에 갔던 은실은 기계공장의 운전사와 함께 싸리골시험포전으로 올라왔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미래를 속삭이며 꽃파도속으로 어깨나란히 걸어가는 옥분이와 주혁이를 알아본 운전사는 자기의 지나간 청춘시절이 생각나서인지 땀판처럼 등글넙적한 얼굴에 히죽이 웃음발을 담았다.

《저 사람들은 아직도... 허, 오늘은 기어코 꽃을 꺾어가자던 노릇이...》

《어마나! 운전사아저씨 또 그소리나요?》

《왜, 언니를 때울가봐 겁나나?》

《겁나긴요. 아저씨! 산꽃은 아무리 화려하고 큰 화분에 떠올려두 뿌리내린 제 땅에서처럼 활짝 피지 못한답니다. 향기는 더구나 없지요.》

너무나도 오돌차고 씨알머리박힌 말에 공장의 운전사는 은실이의 오동통한 불을 새삼스레 지켜보았다.

운전사는 은실이의 감장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코잔등을 꼭 눌러놓았다.

《그 엉뚱한 처녀는 기계맛을 들이더니 사람마저 탐낸다니까!》

《그게 나빠요? 하지만 운전사아저씨! 일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뭘, 그렇게 됐어? 그럼 이 덕보는 빈털털이루 돌아가게?》

《줄을대로 하세요. 호호...》

어린 처녀의 유쾌한 웃음소리에 운전사도 허허소리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기꺼워진 그 마음처럼 산천도 맑은 하늘의 맑은 태양도 사랑에 젖어 어깨나란히 걸어가는 청춘남녀를 축복하듯 한껏 웃고있었다.

## 포전길에서

홍인란

통계원으로 일하는 나는 오늘저녁에 작업반실에서 모내기중간총화를 위한 본조장들의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려고 별로 나가고있었다.

갓가지 과일꽃향기는 5월의 시원한 들바람에 실려 꿀벌을 불러오고 이가지저가지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지저귂소리는 유난히 맑았다.

앞벌의 포전방송에서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데 모내는 기계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푸른 줄무늬를 수놓아가고있었다.

모내기철은 정말 흥겨운 계절이다.

길가에 핀 민들레꽃을 뜯어들고 등 ? 뜯 기분으로 양어장모퉁이로 에돌던 나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래 네 달린옷에서 떨어진 장식단추 하나는 그리도 아까워서 지나가던 프락프르까지 멈춰세우고 불빛을 비쳐가며 끝내 찾아내더니 대낮에 길가에 떨어진 모 한줄은 보이지 않더라말이지.》

격하여 말하는 사람은 3분조장 윤창두아바이였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버 한줄을 만지작거리는 애어린 처녀는 그의 딸 순옥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평시에는 말이 적고 대범한 그가 모 한줄때문에 큰소릴 치다니... 하고 생각하는데 그의 절절한 목소리가 다시금 나의 귀전을 울렸다.

《나같은 농장원이 천이면 뭘하구 만이면 뭘하겠니?

단 한사람의 농장원이라도 길가에 떨어진 모를 빈포기에 메꿀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게다. 어버이수령님의 주체농법을 심장에 간직한 그런 주인이 이 들판에 필요하단말이다. 주인이...》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가쁜숨을 몰아쉬더니 바람이 일게 썩 - 하니 딸의 곁을 지나쳤다.

(그러니 모 한줄때문에...)

나는 불에 덴 사람처럼 화닥닥 놀라 얼른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한것은 봄기분에 들떠서 방금전에 논뚝길을 걸어오다가 길가에서 시들고있는 모를 그냥 스치고 온 생각이 났던것이다.

모를 찾아 한걸음두걸음 옮겨가는 나의 생각은 깊어만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단 한가닥 농장원의 량심이 있었다면 해빛에 시드는 모를 스쳐지날수 있었을가?

어느덧 나는 모춤을 손에 들고 순옥을 찾아갔다.

한포기... 한포기, 빈포기를 메꾸고 물에 뜬 모를 일일이 꽃아가던 순옥은 가랑가랑 이슬뻗힌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언니...》 하고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어느때처럼 선배다운 립장에서 그를 위로해줄수 없었다. 나 역시 순옥이와 같은 자책감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순옥은 눈물이 글썽해서 중얼거렸다.

《이 빈포기 하나하나를 메꾸지 못할 때 나의 량심에 생긴 빈구멍을 메꿀수 없다는걸 난 미처 몰랐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엇그제 책상물림을 한 순옥이의 자책감에서 울리는 심장의 저 목소리...

나 역시 느끼는바는 컸다.

길가에 떨어진 모춤 하나를 별치않게 여기던 내가 아니었던가?

나같은 인간이 10년 아니, 20년을 일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천명, 만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 윤창두분조장처럼 농장일을 스스로 찾아 할 줄 아는 주인된 인간이 아니라면...

나는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다년간 통계원일을 하면서도 나는 수판에서 오르내리는 수자를 오산한적은 없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저 윤창두분조장처럼 모 한줄에서 나라의 커다란 쌀독의 무게를 헤아려보는 정확한 계산법과 성실한 심장을 지니지는 못했었다.

저런 윤창두분조장이 딸을 떠밀어주고 순옥이가 또한 것처럼 천사람, 만사람을 이끌어갈 때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농법은 이 땅우에 활짝 꽃피고 우리의 농촌진지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윤창두분조장을 찾아갔다.

길가에 떨어진 모춤이나 물에 뜬 모는 없는가를 살피며...

## 들끓는 땅에서

서성룡

### 독창과 합창

검덕의 20 리 막장길을 어느새 달려온 전동인차는 소리없이 멎었다. 무리등과 수은등 빛으로 황홀경을 이룬 《막장소재지》 앞마당이었다. 안전모를 쓰고 간데라를 맨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분주히 오가며 흘렀다. 사방으로 뻗은 여러갈래의 불빛은 갯도에서 하루일을 끝낸 광부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차에서 금방 내린 광부들이 그들과 엇바뀌며 막장으로 가고있었다. 우리는 인차에서 내린 그자리에서 한동안 넋을 잃고 용암처럼 끓는 막장을 바라보았다.

《선전실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막장으로 함께 들어온 기업소의 한 일군의 목소리가 울려서야 우리는 자기로 돌아온듯싶었다.

《지금 선전실에서는 지난달 기술혁신추진정형을 총화한답니다. 올해에 우리 기업소에서는 천가지 기술혁신안을 목표로 내세웠지요.》

나직이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친근하게 울렸으나 신심에 넘친 공지가 풍만하게 어려있었다. 선전실로 가는 복도벽에는 금방 쓴듯한 속보들이 주런히 나붙어있었다.

《상반년계획 두달 앞당겨수행!》

《새로운 기적!》

《혁신의 비결은 기술혁신!》

랑쪽벽에 주런히 나붙어있는 속보속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마치 검덕의 위훈속으로 스며드는듯싶었다.

드넓은 막장선전실에는 하루일을 마친 광부들로 꽉 차있었다. 선전실 앞락에는 세명의 일군이 앉아있었는데 우리는 그중 가운데 앉은 풍채좋은 사람이 이미 낯을 익힌 차종찬책임비서임을 대뜸 알아보았다.

《검덕갱 책임기사동무!》

책임비서동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옛!》

담찬 대답과 함께 키가 큰 중년사나이가 복판에서 불쑥 일어났다.

《동무가 한번 동무네 갯광부들의 합창을 지휘해보오.》

《합창을 맡입니까?》

객석에서 다소 설령이었다. 우리도 의하함을 금할수 없었다. 기술혁신추진정형을 총화한다고 하더니 합창이라니?!

우리의 의문에 재확인을 주듯 책임비서의 목소리가 다시금 쩌렁 울렸다.

《그렇소!》

《알았습니다.…. 검덕갱 전체 일어섯!》

수십명의 광부들이 책임기사의 주위에서 일제히 일어섰다. 갯 책임기사는 매력있는 미소를 슬쩍 지어보이며 두팔을 번쩍 쳐들었다.

《동무들, <승리의 5월>!》

책임기사는 말을 마치기 바쁘게 팔을 뻗 내리그었다. 그것은 마치 그 어떤 대하의 흐름을 막고있던 물목을 순식간에 터쳐놓는것 같았다.

합창은 온몸에서 기운이 부쩍부쩍 솟게 하였다.

《중소. 아주 중소. 이 합창대렬속에 기사동무들도 있소?》

《예. 모두 있습니다.》

《중소. 이번에는 운반갱, 운반갱 책임기사동무!》

《예-》

물 머금은 담벽처럼 힘없는 소리였다.

한쪽변두리에서 체소한 몸집의 사나이가 일어섰다. 그의 구렁이 내리자 의자 밀리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가물에 콩나듯 여기저기에서 한두명씩 일어섰다. 장내에서 와- 웃음판이 터졌다.

《무줄장군이로군.》

누군가 속삭이며 키득거렸다.

《보시오. 이렇거든. 기술자동무들이 몇명 있소?》

책임비서의 물음에 운반갱 책임기사는 대답대신 머리를 수그렸다.

《동무 혼잔데 그것두 외파로 떨어져있구. 독창을 하겠소?》

장내에서 또다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독창보다 합창이 더 좋더구만. 그렇다구 독창을 반대하는것은 아니구.》

하- 유쾌한 웃음이 터져올랐다.

책임비서는 곁에 앉은 일군에게 머리를 돌렸다.

《기사장동무, 기술혁신추진정형이 잘되고 못된 원인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책임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근엄하게 울렸다.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이며 당중앙위원회 제 6 기 제 11 차전원회의결정입니다. 검덕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당의 이 결정을 받아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건설의 전반에 다 올려갈수 있는 돌파구의 발파소리를 터칠수 있습니다.》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또다시 《승리의 5월》 선창을 뻗었다. 우렁찬 합창은 검덕의 지심을 뒤흔들며 막장으로 메아리쳐갔다.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광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크나큰 힘과 믿음으로 세차게 놀뛰었다.

올해에 검덕의 광부들은 천가지 기술혁신안 목표를 세웠다고 하였다. 목표는 천가지여도 지향하는 숨결은 이처럼 하나의 대합창으로 울리고있으니 과연 이들의 힘은 그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인가!

## 《급행렬차》

《뽕!-》

인차의 기적소리가 힘있게 울렸다. 우리는 그 인차를 타려고 하였다.

《손님들도 빨리 오르세요. 이 인차는 <급행렬차>예요.》

까만 눈이 새별처럼 빛나는 차장처녀의 말이였다.

《급행렬차!》

어째서인지 그 말이 우리의 가슴을 몽클하게 하였다. 차장처녀와 마주앉은 우리는 물었다.

《차장동무, 인차를 왜 급행렬차라고 하요?》

차장처녀는 새물새물 웃었다.

《저- 이 인차는 물론 도중역이 없기때문에 <급행렬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난 시기에는 2시간이 걸려야 갈수 있던 이 갱도길을 대형화하여 주시고 이처럼 훌륭한 인차까지 보내주신 친애하는지도자동지의 은덕에 하루빨리 높은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우리의 지향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처녀는 궁지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대규모광산들과 중소규모광산들을 적극 개발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검덕광산은 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크다. 그러니 대형화, 고속도화된 현대적인 이 광산의 주인이 되자면 그누구들보다도 빨리 달려야 했던것이다.

《급행렬차》는 살같이 달렸다. 차창밖으로 일매지게 밀어나간 갱도벽이 피끗피끗 스쳐지나갔다.

우리의 생각은 인차를 떠나 점차 검덕의 넓은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 떠나올 때 우리는 《평양-금골》행 급행렬차를 탔다. 금골의 20 리 먼 변두리에서 떠나는 《금골동-백암동》행 무궤도전차와 《상금골-

금골》행 통근렬차도 도중역이 없이 급행으로 달렸다. 7.1 청년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인차와 광전차도 잠깐이면 수십리 지하막장을 주름잡는다. 기업소소재지에서 로은산지구까지의 50 여리길을 땅속에서는 12 수직갱승강기를 타고 눈깜빡할새면 가닿는다. 그뿐이 아니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먼 구간을 달린다.

드넓은 채굴장들을 타고앉은 채굴대차느른한 한 교대시간에 백수십메터의 고속도천공을 한다. ... 통털어 검덕이라는 거창한 규모의 《급행렬차》가 이 땅에 생겨난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더 깊은 우물을 팠다. 과연 팔수록 샘처럼 솟아오르는 생각은 하나였다.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검덕에 우리 시대의 새로운 속도를 아은 대규모의 《급행렬차》를 놓아주시였던것이다! 바로 그래서 검덕은 인민경제의 중요부분이라는 책임을 걸머쥐고 그토록 높이 내세운 생산목표유에 급행으로 치달아오를수 있었던것이라.

인차는 소리없이 갱구로 빠져나왔다. 봄이 짙어가는 검덕의 산밭들에 진달래가 붉게 탔다. 인차의 기적소리가 끝안을 뒤흔들며 경쾌하게 메아리쳐갔다. 마치 그 메아리는 온 나라를 이끌어 급행으로 달릴 검덕의 힘과 속도의 위력한 잠재력을 시위하듯싶었다.

우리는 모든 광부들이 기사, 기수의 자격으로 《급행렬차》를 몰아가려는 결심을 안고 들끓는 검덕의 숨결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산정길을 내렸다.

## 산마루

우리는 해발 천수백메터의 산마루에 펼쳐진 북쪽지구개발지에서 새로운 발파법을 창안하여 발파효률을 종전보다 1.5 배로 높이고있다는 유인호소대의 자랑찬 모습을 보기 위해 《대통로》라는 12 수직갱승강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비상사건》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은 종합기업소 최종일기사장이 금붕어를 넣은 비닐주머니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 비닐주머니에 바늘구멍이 생겨 어느새 물이 거의나 다 새버렸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승강기장에는 물이 한방울도 없었다. 물론 감시초소실에 주전자들이 있었으나 신호공처녀가 완강한 태도로 내주지 않았다.

《안돼요. 이건 방금 떠온 수도물이에요요. 소독성분이 강하기때문에...》

《그럼 어쩌란말이요.》

처녀의 말허리를 끊으며 누군가 웨쳤다. 아리점직하게 생긴 처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에 젖은 이슬이 펴 돌았다. 최종일기사장은 딱한 표정을 얼굴에 지으며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북쪽개발지에 나가있는 기술자들 방에 빈 어

항이 썰렁하게 놓여있기에 몇마리를 들고왔는데 참...》

문득 신호공처녀가 감시초소실에 들어가더니 무선전화기로 지령실을 찾았다.

안타까움에 젖은 그의 목소리에 끌려 우리는 저도 모르게 그 처녀앞으로 다가갔다. 처녀는 지령실에 제기된 정황을 보고하였고 승강기호출을 시간전에 할것을 허락받았다.

《기사장동지, 이젠 살았어요!》

끝없는 기쁨을 안고 속삭이듯 웅크린 처녀는 파랗고 빨간 신호등단추를 두드리며 권양기장에 승강기호출신호를 보냈다.

《쁘쁘... 돈돈... 쑥쑥-》

지심깊은 막장에 메아리치는 호출신호를 들으며 우리는 이름할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승강기장에 그 어떤 비상사고가 난것도 아니며 긴급한 생산지령이 떨어진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 호출신호는 계속 울렸다!

이윽하여 3 층승강기가 스르르 미끄러져내려왔다. 승강기 한층에 50 여명이 타는 대형승강기였다. 우리는 서둘러 승강기에 올랐다.

움쉴하더니 승강기는 고속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10 초... 20 초...

드디어 3 분! 승강기는 멎었고 문이 열렸다. 순간 어항을 안고 기다리던 신호공처녀가 토끼처럼 짹짹 뛰어올랐다. 금붕어는 풍만한 물의 세계에로 이동되었다. 공작어, 세꼬리붕어, 홍검어...

《살았구만요!》

어항을 들여다보던 처녀는 기쁨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웅크렸다.

《살았다!》

이 한마디의 환성을 울리며 기사장과 광부들은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 순간에 우리는 생활에 대한 열렬한 애착의 희열이 그들모두의 얼굴에 질게 비껴있음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갱구로 나섰다. 우리의 눈앞에는 일망무제한 산의 바다가 펼쳐져있었다. 붓꽃지구에서 울리는 발파소리가 둔중하게 울려왔다. 우리는 해발 천수백메터의 로은산마루에 오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광부들의 생활의 높은 마루에 오른듯싶었다.

그렇다. 검덕은 바로 이런 생활의 높이에 서있기에 것처럼 빛나는 위훈의 높이를 세워가고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스라하게 물결쳐간 산발의 련속을 바라보며 거대한 검덕의 숨결을 다시금 가슴뿌듯하게 안았다.

나라의 유색금속고지의 중심을 틀고앉은 검덕! 검덕은 지심깊은 천길땅속에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며 용암처럼 끓고있었다.

그렇다. 검덕은 생활로 들끓고 투쟁으로 들끓는 자랑의 땅, 위훈의 땅이었다.

## 내가 서있는곳

량덕모

산너머 구름너머 바라보며  
때없이 이 아들을 그려보실테지요  
어머니,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깊은 땅속 어디바루 있는가구요

아세요, 어머니!  
인차타고 몇십리  
승강기로 수천척  
신문에 소문난 그 막장  
잠들지 않는 발파의 우뢰로  
보화의 더미더미 쌓아올리는곳

소낙비같이 석수가 내리는  
험한 굴길  
앞을 다투어 헤치고  
쇠돌맥에 불을 비비며  
사나이 웃음을 터뜨리는곳

아세요, 어머니!  
막장깊이 들어갈수록

당에서 보낸 축하에 목메어  
틀어잡은 착암기정끝으로  
불타는 맹세 새겨가는곳

내 여기서 캐여내는 쇠돌  
이 땅 어니 가나  
맑은 웃음으로 피어나고  
꽃물결 흐르는 아름다운 거리  
눈부시게 빛내여주나니  
떨어져있어도  
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사는것보도  
더 큰 기쁨 안아보는곳

아, 지금쯤 어디바로 있는가구요  
어머니 가장 가까운곳  
자고깨면 몰라보게 무성해지는  
땅우의 행복한 생활  
그 한가닥 뿌리가 내린곳에  
이 아들이 서있는줄 아세요!

## 《높은곳에서 사는 사람들》

리기창

제일 높은곳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독자들은 아마도 그리 어렵지 않게 대답할것이리라.

그들은 다름아닌 조국의 높은 산발들을 누려가며 사시장철 일하고 사는 철탑공들이거나 탐사대원들이 아니면 벌목공들일것이고...

하지만 나는 이와 반대로 제일 깊은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한 광부를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높은곳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느꼈다.

나의 말이 지리학적개념을 전혀 무시하나 그 어떤 《역설》처럼 들릴지도 모르리라.

나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1월부터 달마다 계획을 지표별로 편이여 넘쳐난 금골의 광부들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과 전국이 힘을 넣어 채취공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날 0 메터 수준으로부터 650 여메터나 더 깊은곳에서 고속도굴진의 불길높이 수백만톤 심부채굴장을 열어가고있는 4, 5 갱 굴진소대원들을 취재대상으로 소개를 받고 인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일하는 지하막장은 참으로 아득히 멀고 또 깊은곳이었다.

인차로 20 여리길, 그다음 다시 승강기를 바꾸어타고 한참이나 밑으로 내려가서야 마지막채굴장에 도달할수가 있었다. 듣자니 그곳은 단천앞 바다의 수면보다 150 여메터나 더 깊은곳이라고 한다. 그러고보면 나는 바다밑에 내려온셈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상한것은 내가 그 어떤 지압과 지열의 촉감도, 공기의 희박감도 좀처럼 느끼지 못하였다. 갱도로 흐르는 석수의 범람도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다.

마치 동화에서 보던 신비로운 세계에 내려온듯 눈부신 불빛에 번쩍번쩍 령롱한 빛을 뿌리는 광채며 폐부를 적셔주는 신선한 맑은 공기며 최신식 착암대차와 이동식소형압축기, 광석을 싣고나르는 이적기와 적재기, 벨트콘베아를 비롯한 막장의 종합적기계화의 조화로운 동음소리는 나로 하여금 황홀경에 휩싸이게 했다.

이곳이 과연 바다의 수면보다 수천석지하막장

이 웅단말인가?

솔직히 말해서 승강기를 타고 끝없이 밑으로 내려올 때 나의 머리에 그려지는 이곳에 대한 표상은 그 어떤 심한 지열의 압박감이 느껴지는 캄캄한 미궁의 장막속과 같은것이였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막상 찾아와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 지상우의 해빛밝은 어느 한 일터를 찾은것이나 다름없는 기분을 느꼈던것이다.

더우기 나를 놀라게 한것은 막장끝에서 울려오는 어느 녀가수의 귀에 익은 랑랑한 노래소리였다.

땅우에만 금나락 설레이는가

땅속에도 은금보화 빛을 뿌리네

...

그렇다면 여기 수천길 지하막장속에도 고성기를 놓고 중앙방송을 늘 중계하고있는것일까?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막장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노래소리에 뒤이어 환영곡과 박수갈채소리가 울리더니 오늘 계획을 2 배로 넘쳐할것을 확신한다는 격동적인 선동연설이 막장에 메아리쳤다.

이윽고 갱도가 미여지게 악기와 꽃다발을 든 경제예술선동대원들이 마주 나왔다. 나는 문득 그들속에서 중앙극장무대우에서와 텔레비준화면을 통하여 늘 보아오던 낯익은 가수들의 얼굴을 찾아볼수가 있었다. 그리고 큼직한 촬영기를 멘 촬영기자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

그제야 나는 나보다 한걸음 앞서 이곳 지하전선굴진공들을 찾아왔던 《평양손님》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

이날 나는 고속도굴진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는 김봉건굴진소대장동무를 만나서 취재를 시작했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으나 온몸에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젊음의 활력을 잃지 않고있었다.

나는 먼저 그에게 제일 깊은 지하천길 막장속에서 누가 보건말건 충성의 성실한 구슬땀을 뿌려가며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는 이곳 굴진공들의 역센 투쟁모습에 대한 글을 잡지에 실기 위하여 찾아왔노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역실한 눈으로 나를 마주보다가 머리를 가로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만일 그래서 찾아왔다면 우리들이 제일 깊은 막장에서 일한다고 쓸게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며 산다는 긍지와 영예에 대하여



써주십시오!》

그의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나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예? 아니 동무들이야 바다수면보다 더 깊은곳에 내려와 일하는 굴진공들이 아닙니까?》

그 말에 소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얇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 우리는 지상으로부터 제일 깊은곳에 내려와 일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가장높은곳에서 일하며 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무들의 경우만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지요...》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그에게서 이런 말을듣게 됐을 때 내 가슴은 각별한 반응을 일으켰다.

《아직 한일없는 저 역시 이곳에서 당원의 영예를 지녔고 굴진소대를 책임진 소대장으로 자랐습니다...》하고 그는 뜨거운 추억에 젖은 어조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그들이 제대배낭을 멘채 검덕광산으로 왔을 때 고향의 부모들은 다른 일터도 많은데 지하막장에 들어가 일할것이 무엇이나고 하면서 이곳에 한번 찾아보기조차 앓았다는것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지하막장까지 찾아오시여 돌가루 묻은 광부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동무들이야말로 땅속깊이 묻힌 광물을 캐내어 나라의 재부를 늘여가고 인민생활을 꽃피워가는 지하의 전초병들이니만큼 당에서 누구보다 더 높이 내세워주고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과 같이 가장 높은 특등대우를 해줘야 할 동무들이라고 하시면서 끝없는 영광과 사랑을 안겨주신 은정의 이야기...

하기에 자기들을 국사를 론하는 중앙의 대회가 열릴 때마다 남먼저 영광의 높은 연단우에 내세우고 비행기를 태워 외국의 이름이는 휴양소며 세계청년축전무대우에까지 높이 내세워주신다고 했다.

어디 그뿐이라. 최신채굴설비가 갖추어진 태양 등 밝은 막장에서 배행사대우를 받으며 전당,전국의 뜨거운 지원속에 높이 떠받들려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살며 일한다는것이다.

그의 말을 확증이나 하듯이 내가 취재하는 사이에도 당의 하빛은 끊임없이 지하막장으로 흘러들고있었다.

좁전에 내가 직접 만났던 중앙예술인들과 촬영기자들의 뒤를 이어 귀중한 보약을 안고 의료봉사대원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영양제식당 취사원들이 특식시간이 되었는데 왜 올라오지 않는냐고

독촉을 했으며 3대혁명소조원들이 찾아와 굴진공들의 일손을 도우며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함께토의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광산일군이 찾아와 저녁에 문화회관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전달식이 있으니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라고 이르는것이였다.

이날 내가 목격한것들은 그들로서는 레사롭고 평범한 하루의 일들이였을것이다.그러나 내가 받아안은 감동과 충격은 컸다.

조국의 가장 중요한 높은 위치, 인민경제의 첫돌과구를 맡겨주시고 3대혁명과 《80년대속도》창조의 맨 앞장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제일 귀중한 모든것을 선참으로 보내주시는 당의 뜨거운 은정을 안고 이들은 살고있지 않는가.

소대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하막장 깊이에서 일하지만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육친적사랑속에 떠받들려 일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영광의 제일 높은곳에서 산다고 말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나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수록 저희들은 당중앙을 옹호보위하는 신념의 역센 밀뿌리를 이 지하천길 땅속에 더욱 깊이 박으며 바다 밑바닥분이 아니라 지구의 중심 깊이까지 뚫고내려가 더 많은 광물을 조국땅우에 높이 쌓아올릴 결심이지요.

우리가 지금 마련하는 수백만톤 채굴장은 바다 한복판에서 큰 섬을 안아올리는것이나 맞먹는 량이지요. 이제 하반년부터 이 채굴장이 은을 내기 시작할됩니다.》

그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더니 착암대차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암벽을 억세게 밀어대는것이였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지는 눈길을 들어 그들의 미더운 모습을 높이 쳐다보게 되는 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광과 사랑의 결정우에 더 높이 내세워주실수록 땅속 깊이 뚫고내려가며 값진 억만보화를 하늘높이 쌓아올리는 미더운 지하의 척후병들!

그렇다. 바로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안고 금굴의 광부들은 오늘도 나날이 높아지는 유색금속고지우에 승리의 붉은기를 날려가고있는것이다.

영원히 조국의 제일 높은 영광의 위치에 서서...

# 금꿀녀인의 이야기

한정규

시집을 땀  
제대군인광부  
남편에게 정들어 왔더니  
어느새 온 금꿀에 정들었소

광부의 안해  
신혼살림  
한가정 꿈을 안고 왔지만  
와서는 온 금꿀을 안고사오

안전모 쓰고 간데라 들어야  
걸음새 제대로 된다는 사람  
웃어도 광석을 두고 웃는 남편의 그 마음  
첫 봄물처럼 내 가슴에 흘러들었소

출근길 바래우며  
퇴근길 마중하며 알았소  
광석이 그의 마음인줄 ...

분기계획 넘쳐한 그 봄날엔  
첫 고사리 꺾어드리고싶어  
산에산에 올랐더니 산에 정들고

작업복 빨며빨며 내가에 정들었소

첫딸아기 웃는 창밀에 꽃밭도 만들고  
남편의 퇴근길 돌뿌리도 뽑았소  
인젠 금꿀의 나무 한대, 꽃송이  
정말이지 내 살불이갈소

지금은 나도 아오  
지원물자 이고 막장에 달려가  
남편의 착암기를 함께 잡으며  
금꿀의 녀인들 왜 웃음소리 그리 높은지

금꿀은 속깊고 심장뜨거운  
나라의 만아들들이 사는곳  
그들을 위한 진정만 있으면  
저 몰래 정드는 살기 좋은곳

시집을 땀  
남편에게 정들어 왔더니  
어느새 온 금꿀에 정들었소  
어느새 나라의 맘머느리 되었소

## 기적소리 없는 도시에서 외 1 편

박원식

백두산 원시림을 다듬어 싣고  
들어서는 직행화물열차는 어디?  
동해선 천리 시원한 바다바람 물고  
들이닫는 전용램동열차는 어디?

부르며 화답하며  
들어서며 떠나가며  
엇갈리는 《붉은기》호  
드세찬 기적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기적소리 없는 대화학도시는  
새벽의 포근한 요람속에 안기여  
단잠을 잔다  
아버이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기여

아, 청춘도시건설장을  
몸소 돌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못내 만족하시여  
하늘이 배꼽도록 일어서는 도시우에  
덧없어주신 아버지 그사랑을  
꿈결에도 더듬어 청춘도시는 목메였는가

... 우리 이 도시 로동자동무들의  
새벽잠까지 마저 아껴줍시다.  
철길은 지하에 깊숙이 넣으시오!

아, 지난날 원한을 싣고  
한숨소리처럼 울리던 기적소리를  
보람찬 환희에 메아리로 바뀌주시고도  
그 기적소리마저 새벽잠을 깨운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아버지수령님

한량없는 그 은정  
그 사랑이 어리여  
은하수에 어우러진 하늘가의 도시는  
황홀한 꿈속에 나라쳐오르고  
불빛은 저 억만의 창문들은  
끝없는 행복의 웃음이 비껴있어라

아, 열차는 달려오고 떠나가도  
한가닥 기적소리 없는  
새벽의 포근한 요람속에 안기여  
청춘도시가 단꿈을 꾸는가

내가 꿈꾸는것인가

이 세상 모든 기적소리를 다 합쳐  
일시에 울린다 해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숨엄한 사랑이 기적소리가  
내 가슴에 울려와 메아리쳐와-

또 하루

새로운 위훈을 꿈꾸며  
거창한 새날의 새힘을 키우는  
대화학도시의 고요속에서...

## 한 군당일군에 대한 이야기

멀리 가까이

하나들  
거리의 가로등 눈을 뜨고  
불빛 환한 군당위원회 정문가엔  
한사람 또 한사람  
회의참가자들 모여들고

어찌된 일인가

이제나저제나  
저마다 시계를 들여다보건만  
먼 출장길에서 돌아올  
그 일군은 소식이 없고

어찌된 일인가

렬차는 오늘도  
제시간에 돌아왔건만  
어느때 한번  
회의시간 어긴 일 없는 책임비서

이 밤

군당확대집행위원회는  
준비자도 집행자도 그 일군  
자신이 제기한 철도상업관리소  
봉사성 높이는 그 문제를 두고  
준비는 어느새에  
어떻게 할지  
기다리는 딱한 마음들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봤네.

×

멀리-

산굽이 돌아 떠나는  
밤렬차의 기적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오래고

한초

또 한초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 때

제나름의 해석으로

조이는 가슴가슴 울리며  
회의장에 들어선 책임비서

손에는 묵직한 려행가방  
의하한 눈길들 일시에 쏠리는데  
다들 모였으면  
회의를 시작하자고  
묵직한 려행가방  
연락앞에 풀어헤칠 때

아니, 저건 무언가?

길주곽밥, 복청사과, 함흥사이다  
책임비서의 손길따라 오르는  
형형색색의 려객봉사구력들

한순간

동해선 온 철도상업관리소가  
여기로 다 모여라도 왔는가  
일시에 술렁이며 흥성이는 회의장

상기 따스한 김 피워올리는듯  
낮익은 상표의 곱밥은  
분명 밤금전 려차에 올린  
이고장 곱밥이 틀림없었네

온 나라 갖가지

정성담은 그 솜시를  
회의장에 앉아 다 보는 마음들  
말없는 뜨거움속에 그려봤네  
출장길 돌아오는  
책임비서의 그 모습을

갈매기 나는 푸르른 차창가

아름다운 동해선  
유쾌한 려행자들속에서  
잠시 흥겨운 시간을 보내도 좋으련만

레사로이 지나가는 려차와도 같이

어쩌면 스쳐지날수도 있는  
렬차매대 상품들을  
가지가지 사안으며  
약속한 이 회의장으로 왔네

오는 역, 가는 역 다 쫓아가며

어느 한 고장 광밥인들 놓칠세라  
그 하나하나에  
온 군의 살림을 맡은 뜨거운 마음담아  
이 회의를 준비해온 책임비서

아,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을 받드는 생각을 떠나선  
순간도 살수 없는당일군!

보고는 이렇게 시작되었네  
모임은 이렇게 끝났네

또 하나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을 한  
그 기쁨이  
책임비서의 가슴에 차넘쳤네  
그와 함께 모든 일군들의 생각도 깊었네

## 대답해주마 외 1 편

김창걸

말해보렴  
어려워말고  
먹은 맘 그대로  
너 어서 말해주렴

학과후엔  
신나는 물놀이장  
재미나는 실습장이  
많고많건만

쇠 녹이는 우리 일 보태주고파  
짹짹이 재미나는 실습장이  
많고많건만

쇠 녹이는 우리 일 보태주고파  
짹짹이 모아둔 쇠불이  
이고지고 끝머  
누나랑 이렇게 왔니

와락 안기누나  
불을 비비며 말하누나  
이달계획도 넘쳐해달라구  
오, 그 작은 가슴도  
쇠물을 안고 끓었구나  
끓으며 쇠물보다 더 뜨겁게  
이 가슴 달쿠어주누나

걱정 말아  
제품이 더운건 견딜줄 알아도  
쇠물이 식는건 참을줄 모르는  
이 아저씨들이거니

대답해주마  
계획을 넘쳐하고  
아버지원수님께 보고드렸다고  
너 어딜 가든  
강선아이로 머리 떨구지 않도록  
우리 꼭 대답해주마

## 네가 선 자리

네가 선 자리  
네가 지금  
쇠물을 강편으로 밀며 선 자리는  
아들아, 내가 첫 쇠물을 받아낸 자리다

그때엔 여기 일에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했단다  
가구라도 울릴 기중기로 했됐단만  
원래 뒤공정, 뒤바라지 일이라서  
누구도 눈여겨보질 않았더란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  
구석진 여기를 몸소 찾아주시더구나  
우리 부어낸 강피덩일 보아주시며  
저기서 쌀도 천도 기계도 나온다고  
저것만 있으면 못해낼 일 없다고

우리 손을 잡으시고 풀어주시더구나

막 기운이 솟더구나  
자꾸만 일욕심이 커지더구나  
그래 해놓은 일 돌아다볼새 없이  
서른톤자리 대주강품을,  
다음엔 또 백톤이 넘는  
6 천톤프레스 가름대를  
여기서 부어냈됐다

말시키지 말아  
쇠물을 강편이 아니라  
강재로 곧바로 밀어내야지  
앞으로만 내닫는 천리마  
이 정신 나래친곳이  
아들아, 바로 네가 선 자리다

# 서부도이칠란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의 생애와 창작활동에 대하여

리종혁

독자들은 지난해 8 월중순의 어느날, 《로동신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쁨에 넘쳐있는 한 나이지국한 외국녀성의 사진을 보았을것이다.

력사적인 조국해방 40 뚝을 맞이하여 온 나라가 성대한 경축행사들로 들끓고있던 영광의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단독접견을 받는 특전을 지닌 그 녀성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녀성은 바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부도이칠란드 녀류작가이며 사회활동가인 루이저 린저녀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선생을 오랜 전우로 대합니다.**

**우리는 다 반파쇼전선에서 싸웠기때문에 나는 당신을 전우로 대합니다.》**

올해 4월 30일로 75살이 되는 루이저 린저는 현대도이칠란드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 수십개나라 말로 번역출판되어 애독되고있다.

그러나 린저는 작가로서만 그 이름이 알려진것은 아니다.

루이저 린저는 지난 시기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운 건결한 반제투사로서 오늘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약하고있는 저명한 사회활동가로서 여러 나라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

도이칠란드의 남부도시 뮌헨에서 서쪽으로 얼마간 가느라면 피출링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도이칠란드의 남쪽변두리를 감돌아흐르는 텍호강가에 자리잡고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골마을이다.

이 마을이 자리잡고있는 상부 바이에른지방은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살기 좋은곳으로 일러왔다. 그러나 산천은 아름다와도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아왔다. 린저의 일가도 대대로 내려오는 토배기농사꾼들이였다.

루이저 린저는 이 궁벽한 마을에서 1911년 4월 30일 마을선생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바이에른은 독일에서도 카톨릭교의 아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강한 지방이다.

게다가 린저의 부모, 친척들은 모두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이였으므로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세계에서 자라났다.

이것은 린저로 하여금 그후 정신적으로 종교적 발전의 길을 걷게 하였지만 이와 함께 맹목적인 신앙심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남달리 일찍부터 가지게 하였다. 1940년에 발표된 그의 처녀작인 장편소설 《파문》에는 다섯살때부터 열여섯살때까지의 그의 이러한 유년시절의 나날이 인상깊게 그려져있다. 린저는 다섯살때 부모의 곁을 떠나 숙모가 일하고있던 웨츠브룬수도원가서 살았는데 신비스러워보이면서도 고루한 수도원생활이 어린 소녀의 개성발전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던것이다.

그후 루이저 린저는 1916년부터 8년동안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있던 에링과 위버제라는 마을에서 소학교를 다녔다.

1924년에 소학교를 졸업한 루이저 린저는 의학공부를 하고싶었으나 녀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환경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들어갈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린저는 1924년에 뮌헨에 있는 교원양성소에 들어갔으며 양성소를 다니면서 1928년부터 2년간 뮌헨종합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193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교원양성소를 졸업한 루이저 린저는 고향마을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돌보면서 마을학교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1934년에 루이저 린저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교원의 자격을 받았다.

그때로 말하면 도이칠란드인민의 머리우에 파썬독재의 암운이 무겁게 내리드리웠던 수난의 시기였다. 파시즘의 철권에 짓눌린 도이칠란드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되었으며 사람들은 전대미문의 탄압과 살륙 밑에서 공포에 떨고있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남달리 지조가 강했던 루이저 린저는 어떠한 난관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린저의 회상에 의하면 교원자격시험을 칠때 시험문제로 《독일인민의 3대교육가들인 피히테와 페스탈로치 그리고 히틀러에 대하여 쓰시오.》라는 제목이 제시되었는데 린저는 첫 두사람에 대해서만 답안을 써서 바치고는 제일먼저 시험장에

서 나와버렸다고 한다. 후에 그의 동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모두 혀를 내둘렀지만 당시 스물세 살난 처녀한테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에 대한 이 불손한 태도는 다행히도 그때 시험관으로 나왔던 량심적인 교원이 시간이 모자라서 린저가 미처 답안을 다 쓰지 못했다고 변명을 한 결과 큰 후파없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어쨌던지 교원의 자격을 받은 루이저 린저는 자진하여 니클하임이라는 궁벽한 마을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3년동안 가난한 농민들의 자녀들을 배워주었다.

1937년에 루이저 린저는 문헨교외에 있는 룽호하우젠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어 여자직업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도청에서 교학이라는 자가 《실무검열》을 나왔다. 그자는 린저를 보고 《나치스당》이나 《히틀러청년단》에 들었는가고 물었다. 린저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자는 즉시 어느 단체에든지 가입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듬해 봄에 그자가 또다시 검열을 나올 때까지 린저는 아무 파쑈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처녀의 이 고집스러운 태도에 성이 난 교학이 당장 그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자 린저는 결혼을 핑계대고 자진하여 먼저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한다.

결혼후 린저는 국립극장의 지휘자로 취직한 남편을 따라 1939년에 브라운슈바이그로 갔다. 그는 북부도이칠란드의 이 공업도시에서 가정살림을 돌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린저가 처음 쓴것은 단편소설 《틸리엔》이었는데 남편의 추천으로 그것이 문예잡지 《노이에 룬트샤우》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계기로 되어 린저는 문단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1940년에는 장편소설 《파문》을 써서 일약 하루아침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때 린저의 나이는 29살이었다.

린저의 회상에 의하면 그는 소설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놓고는 감감히 잊어버리고있었는데 어느날 거리에 나갔던 남편이 책방에서 그 책을 보고와서 소동을 일으키는바람에 그것이 출판된것을 알았다고 한다.

《파문》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말그대로 일대 파문을 불러일으켜 린저를 이름있는 작가로 알려지게 하였다.

그러나 린저와 그의 남편을 《불온분자》로 주목하고있던 나치스당국은 이 젊은 녀류작가에게 집필금지령을 내리고 그의 작품들을 출판금지시켰다.

1942년에는 린저의 남편이 징집령을 받고 동

부전선에 끌려가서 불행하게도 그 이듬해 봄에 사망하였다.

두 어린애를 데리고 홀로 남은 루이저 린저는 1942년 여름에 폭격에 집을 잃고 피난을 떠났다. 그는 정처없이 슬레지엔의 여러 지방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해 여름에 바이에른의 고향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에서도 루이저 린저는 날로 우심해지는 비밀경찰의 감시와 박해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당국의 지령으로 고향집에서도 살수 없게 된 린저는 마을끝에 있는 빈 초막을 한채 얻어 두 어린애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나 이 고독한 생활마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전쟁이 바야흐로 끝나가던 1944년 10월 린저는 한 동창생의 밀고로 게스타포(비밀경찰)에 체포되었다. 5시간동안의 끊임없는 심문끝에 린저는 《국가반역죄》로 기소되어 트룬슈타인데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1946년에 발표된 《옥중수기》에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찼던 이 감옥생활의 고된 나날들이 상세히 그려져있다.

루이저 린저는 감옥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1945년 5월 히틀러독일이 패망함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다시 자유를 찾은 린저의 가슴은 해방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길처럼 타올랐다. 린저는 반파쑈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회활동을 벌리는 한편 새로운 열정을 안고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1946년에는 단편소설 《붉은 교양이》와 《늙은이가 죽는다》, 《귀여운 마벨부인》 등 비판적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1947년에는 수필집 《페스타로위치와 우리들》, 단편소설 《어두운 이야기》와 함께 중편소설 《와르샤와에서 온 장로벨》이 발표되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1948년에는 2권의 장편소설 《고원》과 《강한 자들》이 발표되었으며 1949년에는 아동소설 《마르틴의 여행》이 출판되어 어린이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러나 린저의 생애에는 또다시 시련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인류의 일치한 저주를 받고 종말을 고한 파쑈도이칠란드의 폐허우에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도이칠란트를 건설하려던 희망은 서부도이칠란트를 강점한 미제의 분렬책동으로 검뎌처럼 사라져갔다. 서부도이칠란드에서는 《맹전》의 막뒤에서 나치스반자들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복수주의의 나팔소리가 날로 더욱 세차게 울려 퍼졌다.

설상가상으로 린저의 신상에도 불행이 닥쳐왔다. 1948년부터 폭격으로 반쯤 허물어진 문헨의

한 림시주택에서 살고있던 그가 돌연 간염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던것이다.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린저는 이렇게 쓰고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집도 약도 없었다. 나에게 남은것이란 질병과 걸머진 많은 빚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고난의 시기에 루이저 린저는 그의 창작활동에서 절정을 이루는 장편소설 《삶의 한가운데서》를 썼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출판되어 애독되고있는 이 소설에는 에티나는 대학생으로부터 성격이 강한 녀류작가로 성장한 한 녀인의 곡절 많은 운명을 통하여 사회적불평등과 부르조아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과 우정,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고심이 감동깊이 서술되어있다.

1953년에 루이저 린저는 인간과 종규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 《다니엘라》를 썼으며 1954년에는 사랑하는 주인집 딸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희생하는 늙은 하녀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속죄양》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문단에서는 성과작으로 간주하고있지 않지만 높은 극성과 독특한 성격형상으로 하여 널리 애독되고있으며 영화와 방송극으로까지 각색되었다.

1955년과 1956년에 루이저 린저는 《다비드》를 비롯한 일련의 단편소설들을 발표하는데 뒤이어 1957년에는 《삶의 한가운데서》의 속편이라고 볼수 있는 장편소설 《미덕의 모험》을 창작하였다.

편지형식으로 된 이 소설은 불안과 근심, 비애와 절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새생활을 개척해나가려는 주인공 니나의 곡절많은 생애와 7명의 각이한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인류가 겪고있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실망,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형상하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소설을 《삶의 한가운데서》보다 구성이 더 짜이고 조화가 잘된 성과작이라고 평가하고있다.

1959년 이탈리아로 간 린저는 처음 어느 한 수도원에 자리를 잡고 무솔리니의 통치시기 학생들의 생활을 그린 장편소설 《갈테면 가라》를 썼으며 그후에는 련이어 여러편의 수기들과 평론, 심리학저서들을 집필하였다.

1959년에는 론설집 《기적의 항행》을, 1960년에는 5명의 현대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분석한 평론집 《중정》을, 1962년에는 심리학저서 《슬픔의 의미에 대하여》와 인간의 자기희생정신

을 찬양한 장편소설 《완전한 기쁨》을 창작하였다.

1962년에는 린저의 유년시절을 그린 3권의 《성탄절이야기》가 발표되었으며 그 이듬해 봄에는 하루동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세계관과 내면세계, 기쁨과 고통을 심리학적으로 파고든 장편소설 《9월의 어느날》이, 1966년에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한 청년의 생이를 그린 장편소설 《나는 토비아스》가 세상에 나왔다.

1966년이후 루이저 린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에 려행도하고 강연도 하면서 주로 일기책과 수필, 려행기, 조사보고 등을 썼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일기책 《건설장》(1970년), 일기책 《국경을 넘어서》(1972년), 윤이상선생의 창작활동을 소개한 담화집 《부상당한 룡》(1977년), 일기책 《전쟁놀이장》(1978년), 자서전적작품 《승냥이를 끌어안으라》(1981년), 일기책 《겨울의 봄》(1982년), 일기책 《어둠속에서 노래를 부르노라》(1985년)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린저는 그 기간에 일기책만 쓴것은 아니다.

린저는 1976년 남조선을 방문하고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에 대한 군사파쇼도당의 탄압만행을 폭로한 책 《고래싸움에》를 써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1981년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기행문 《북조선 일기》를 발표하여 우리 나라 현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루이저 린저는 1974년에 전후 서부도이칠란드에서의 반인민적인 사태발전과 군국주의의 재생을 신랄하게 폭로한 장편소설 《검은 하늘소》를 창작하였으며 1984년에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 력사소설 《미르얌》을 집필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부조리속에서 빛어지는 녀성들의 슬픔과 용기, 정신적인 갈등과 참된 사랑을 주제로 하고있는 린저의 작품들은 고상한 인디아주의사상과 사회비판적인 정신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의 섬세한 필치, 간결한 문장은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부각시켜주고있으며 그들의 정신적인 발전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올해 75살의 고령인 루이저 린저는 지금도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의욕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로마교외의 피서지인 로까디 빠빠에 자리잡고있는 자기의 검소한 처택에서 창작에 전념하고있다.

# 숫눈길

류정옥

## 1

《영미야!》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영미는 창가에서 물러났다. 눈내리는 거리는 한적해가고있었다.

땡-땡... 벽시계가 여덟시를 쳤다.

《아무래도 내가 공장에 나갔다 와야 할가부다.》

영미는 부엌을 내다보았다. 어머니는 보자기에 밥박을 싸고있었다.

《제가 갔다오겠어요.》

《넌 자거라. 곤할텐데 내가 갔다오마.》

《일없어요.》

영미는 얼른 외투와 목도리를 들고 나섰다.

《하긴 지금 네 마음을 알만도 하다.》

영미는 대담대신 방긋 웃음지으며 밥박을 받아들었다.

어머니의 말을 옳았다. 영미는 바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방금까지 창밖을 지켜보았었다.

오늘 있는 일을 어서빨리 알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싶었다.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실 그 시각을 앉아서 기다리고만있고싶지도 않았고 또 한편은 요즘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알아보고싶던차였다.

아버지는 직포기술준비실 기사이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직기고속화가 벌어지자 거기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였다. 오늘은 아버지가 예견치 않게 종교대작업에 들어간것이다.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할수도 있고 집에 들어올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정성스레 밥박을 꾸렸다.

영미는 밥보자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눈이 내리고있었다. 차거운 눈송이가 살눈섭을 간지럽히며 차분히 내려왔고 발밑에서는 눈발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뚝뚝거렸다.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도 가로등 불빛을 받아 파르스름한 꽃잎처럼 보였다. 눈송이들은 가로등주위를 천천히 감돌며 내리고있었다. 가로등과 무슨 사연이라도 속삭이는듯했다.

영미는 그 어떤 축복에 답례나 하듯이 밝은 미소를 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가지와 지붕에도 흰눈이고 발밑에도 허공에도 온통 눈이였다.

끝없는 랑만과 모든것의 정화를 불러오는듯한

밤이었다.

눈송이와 함께 영미의 기쁨이 뚝뚝 떠도는 밤이기도 했다. 오늘 영미네 직포에서는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결기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영미도 토론했다. 그의 토론에 모두들 박수를 보냈고 직장장은 만족을 표시했다.

《대단한 결심이요. 기대를 말은지 몇해 안되는 직포공이 많은 기대 말아보기운동을 벌리며 년간계획을 4월 15일까지 완수하겠다는것은 정말 기쁜 일이요. 영미동무처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직장적으로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길수 있소.》

이 칭찬만으로도 영미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런데 작업반원들은 영미에게 그의 요구대로 4대의 직기를 더 주되 1호단위구간의 직기들을 맡겨주자는것이였다. 1호단위구간의 직기들은 작업반적으로 성능이 그중 좋은축이며 수리공도 기능이 아주 높았다.

이것은 작업반에서 영미의 결의를 기특하게 여가면 진심으로 도와주려는것이였다.

영미는 감동이 컸다. 자기의 결의를 이처럼 크게 여기고 받아들여줄줄은 몰랐다. 지난해에는 한해분계획을 석달 앞당기고 일등품생산을 높였다고 직장영예게시판에 사진으로 소개해주었었다.

언제나 영미를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는 직장이고 작업반이였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알면 무척 기뻐하며 만족해할것이다.

《우리 영미가 용쿠나! 그래야지. ... 영미는 년간계획을 앞당기고 아버지는 2직포직장 직기고속화의 1단계를 끝내는것으로 4.15명절을 맞이하자.》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영미는 아버지의 웅글은 목소리를 벌써부터 듣는것만 같았다.

차분히 내리는 눈송이를 밟으며 걷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황홀한 공상이 봄아지랑이처럼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제 직기 녀대를 더 말고, 다음 또 녀대, 다음은 8대를 그리고 다음번엔 그 두배를, 또... 그렇게 되면 그도 역시 온나라가 알고있는 로력영웅들처럼 7개년계획을 일년, 일년반동안에 앞당겨완수하게 될것이며 방직력사는 15억메터 천고지를 점령하는 전투,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새기록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한 영미에 대해서 알게 되며 먼후일에도 기억하게 될것이다.

영미는 가로등 불빛에 환히 드러나는 속보판을 보고도 방긋 미소를 지었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웃음을 보냈다. 길을 어기던 한 청년이 영미를 찬찬히 바라보며 고개를 기웃하였다.

청년의 눈길과 부딪친 영미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두손으로 밥팩을 꼭 껴안았다. 따스한 감촉이 손바닥으로 흘러들었다.

(식기전에 어서 가야지.)

영미는 2직포직장 고속화기대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였다. 어데론가 잠시 자리를 뜬 모양이었다.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창턱에 밥팩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들을 바라보았다.

고속화가 완성되면 2직포직장에서만도 수십대의 직기를 거저 얻어내는것으로 된다고 했다. 현대 직포기의 능력을 그만큼 높이는 이 고속화의 실현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아버지는 걱정했었다.

정말로 직기소리가 고르롭지 못하다는게 벌써 알렸다.

복이 깨지고 복침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개장신호대들이 여기저기 빨강게 올라갔고 가동상태는 아주 나쁘다.

파장하기 좋아하는 수리공들의 표현을 빈다면 《쑈대발》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직포공도 몹시 힘들어하는것이 알렸다.

땀을 흘리며 거의 뛰다싶이 기대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기계는 돌아가는것보다 멎어있는게 더 많은것 같았다.

회전이 빨라지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건 (질 높은 자재, 부속, 고도의 정밀한 기계조절,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제품등...)이 잘 보장되기전까지는 고장도 많고 실 끊임률도 그만큼 늘어난다. 게다가 천에 흠집도 자주 생겨 직포공을 곱절로 바쁘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 일정한 기간 생산에서도 지장을 받게 되기마련이다.

고속화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생산이 파동없이 계속 높아지자면 아직 거리가 먼것 같았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가.)

끊어진 실을 이어놓으며 분주히 걷고있는 직포공의 순회동작을 지켜보던 영미는 고개를 기웃했다.

(왜 저렇게 갈가?)

앞으로 곧추 가야 할 때 뒤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꼭 정리해야 할 날실도 그대로 두고 급급히

달려가기도 했다. 어떤 기대는 실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니까 울상이 되며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걸음걸음에서 당황과 초조감이 그대로 엿보였다.

(저래서는 안되겠는데. 저털수록 침착하면서도 재빨라야 할텐데... 그런데 실은 왜 자꾸 끊어질가?)

이상하게 생각된 영미는 다가가보았다.

귀실조직이 잘못 꿰여져있었다. 그래서 런속 끊어졌다.

(당황했구나.)

영미는 귀실조직을 고쳐 꿰주고 물러나서 다시 직포공을 지켜보았다. 볼수록 안타까웠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고속화단계에 있는 직기를 말아보기에는 기능이 약했다.

(직포공이 고속도회전에 걸음을 맞춰야 할텐데 왜 여기다 저런 직포공을 배치했을까?)

영미는 문득 언젠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키웠다.

《...고속화라는게 단순한 방직설비의 회전능력을 높이는 일이 아니구나...》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깨달음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말의 뜻을 알만했다.

직기의 회전을 높이자면 기대공들의 기능도 그만큼 높이 따라가야한다. 따라서 생산지휘일군들은 거기에 맞게 기능이 높은 기대공들을 배치해야한다.

현대 눈앞의 생산만 생각하는 일부 일군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직기에 무엇때문에 고급기능공들을 박아두고 직장의 전반생산에 지장을 받겠는가 하는 타산밑에 보통수준의 기대공들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이것이 바로 생산본위주의이고 고속화에 무관심한 표현이다. 영미는 누군가 옆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 돌아보았다. 아버지인가 했는데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수리공이었다. 그가 아버지의 행처를 대주었다.

고속화에 쓸 부속을 담당하고있는 공무직장에 들렀다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겠다고 했다는것이다.

영미는 밥팩을 들고 부리나케 되돌아섰다.

## 2

《어머니!》

영미는 현관에 한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물었다.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영미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안에서 맞받아나왔다.무척 반기는 어조였다.

《네-》

영미는 풍-뿔여오른 고무공처럼 방문턱을 넘어섰다.

장대한 키를 더 보태주듯 얼굴이 길쭉한 아버지는 병긋 웃음을 띠었다.

《내가 공무직장에 들린 사이 길이 어긋났구나.》

아버지는 집에 있던 밥으로 방금 식사를 치른 뒤였다.

《영미가 보구파서 일부러 좀 시간을 냈더니 마침 기쁜 소식이 있구나.》

영미는 방금 피어난 꽃잎처럼 활짝 웃었다.

《어머니에게서 다 들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쪽을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어째선지 풀먹인 빨래가지에 푸푸 안개만 날리면서 아버지와 딸의 기분에 별로 화합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4.15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겠다면서? 괜찮아. 그래야지... 우리 영미가 용커든!》

아버지는 아낌없는 칭찬에 영미의 얼굴엔 여전히 기쁨이 생글생글 피었다.

《우리 영미 용쿠나!》하는 말엔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서 더욱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 말은 유치원때부터 들어오는 말이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유치원현관에 붙은 이 글자를 보면서 줄줄 외웠을 때도 그랬고 학교에서 최우등을 할적마다 또 처음 직포기를 맡았을 때도 그랬다. 하긴 아마도 썩 그 이전인 첫 걸음마를 땔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아버진 제가 뭐 아직도 어린앤줄 아시나보지요.》

《하긴 우리 영미가 이제야 어엿한 직포공이지. 벌써 3년째던가?! 어제같은데 지난해엔 사진가지 나더니 이젠 년간계획을 절반이상이나 앞당기겠단말이지!》

《또 사진이야기시네.》

영미의 사진이 소개된 직장영예게시판앞을 지날 때면 늘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는 아버지였다.

시설운반공인 어머니도 번번이 걸음을 멈추곤 하였다. 한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보고있는것이 영미의 눈에 띄운적도 있었다.

영미는 보기가 딱해서 뒤로 다가가 어머니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넌 먼저 가거라.》

영미는 얼른 물러났다. 얼마 가다가 돌아보니 그들은 사진이 아니라 영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있었다. 그 얼굴에는 기쁨과 자랑, 대견스러움이 가득 어려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표정은 단순히 그 어떤

감회나 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뭔가 다른것을 생각하는것 같았다.

(무얼 생각하시는걸가?)

영미는 아버지의 기색을 찬찬히 살폈다. 오십이 넘은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혈색이 좋고 건강해보이던 아버지의 얼굴이 오늘은 별로 주름살도 많아보이고 수척한듯싶었다.

(고속화때문일거야.)

《아버지, 힘드시지요?》

《그건 또 새삼스레.》

《아버지 얼굴이 막 못쓰게 됐어요.》

아버지는 꺼실꺼실해보이는 턱수염을 슬슬 쓸어만지었다.

《허, 내 얼굴이 <쑥대발>같이 됐다는거냐? 수리공들말처럼.》

영미는 아버지가 이제 곧 웃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힘들긴?!... 걱정 말아라.》하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별로 정겨운 표정을 지으며 영미의 손우에 자기의 커다란 손을 올려놓았다.

《그래. 힘들구나.》

영미는 그손을 꼭 쥐었다. 이제껏 힘들다는 말을 모르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당에서 그토록 바라는 고속화가 왜 빨리 제대로 되지 않는지 생각해봤느냐?》

《?...》

《너 현장에 나갔됐으니 형편을 보았겠구나?》

《봤어요.》

《그래 뭐 생각되는게 없느냐?》

《기대공의 기능이 고속화에 따라가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무얼 더 물으실가? 생산일군들에게 기대공들을 기능공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세우시면 될텐데.)

아버지는 딸에게서 그 어떤 현명한 대답을 기다리듯 영미를 주시하였다.

투닥-투닥-

어머니가 꼭꼭 개킨 옷가지들을 손바닥에 놓고 손다듬이질을 했다. 마치도 아버지의 시선을 판데로 돌려보려는듯이.

영미는 어정쩡해있다가 생각나는대로 대답했다.

《직기고속화에 낫을 적게 돌리는 사람들의 그릇된 견해를 깨야 한다고 봐요. 고급기능공들을 배치하도록말이지요.》

《우리 영미가 이젠 생각이 깊어지거던. 문제를 옹계 본단말이야.》

아버지의 눈이 번쩍하고 빛을 뿌렸다.

《그걸 네가 좀 깨볼수 없겠냐?》

《어마나?! 제가 그런걸 어떻게 해요. 직장장동지나 작업반장들이 제 말을 들을게 뭐예요.》

아버지의 눈에선 불꽃이 꺼졌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냈다.

아버지의 입에선 물씬 흘러나오는 뿌연 연기속에는 은근한 한숨이 섞여있는듯했다.

이상했다. 번쩍 빛을 뿌리던 눈길, 맥없이 꺼져버린 그 불꽃, 담배연기속에서 숨은 한숨, 그 모든것은 영미에게서 커다란 의혹과 불안을 남겼다.

딸이 보고싶어 시간을 냈다는 말도 우연하게 나온 말이 아닌것 같았다.

이제껏 말이 없던 어머니가 밀도 끝도 없이 아버지에게 불쑥 물었다.

《공무직장 주물작업반에선 용선로를 개조한다는건 어떻게 돼가요?》

어머니의 물음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그 용선로 개조가 바로 직기고속화부속을 생산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만큼 관심할수는 있겠지만 이 순간에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말머리를 돌리기 위해 일부터 꺼낸 말 같았다.

했지만 아버지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잖아두 방금 거기 들려오는 길ियो. 거기 일도 생각처럼은 간단치 않소.》

아버지의 어조에 책임적인 걱정이 어려있었다. 용선로를 개조하고 부속품을 보장하는것은 아버지의 책임범위가 아니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만약 그로개조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아마도 불붙는 로속에라도 뛰어들것이다. 지금 아버지의 표정엔 그것이 섞여있었다. 그만큼 직기고속화에 온 넋을 바치고있는 아버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아파하는 일에는 말없이 성실한 아버지다. 그래서 영미는 아버지를 무척 존경하며 아버지의 의사라면 다 옳다고 인정하였고 따랐다.

《영미야, 네가 지금 몇급공이던가?》

영미는 놀랐다. 뜻밖의 물음이었다. 아버지가 몰라서 묻는것도 아닐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건너다보았다. 다리미를 든 어머니의 손이 영미의 앞치마위에 무춤 몇었다. 영미는 자기가 들어오기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갔다는것을 느꼈다.

《4급공이지?》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예》

《날새처럼 일손이 재다구 알려졌구.》

《...》

사실이다. 누구나 영미의 일솜씨를 칭찬했다.

직장에서든 작업반에서도 그를 보배라고 말했다.

《영미야!》

아버지의 손이 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영미는 왜서인지 마음이 섬찍하였다.

《네가 고속화기대를 맡아볼 생각은 없느냐?》

《예?!》

영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아버지가 바라는것이 설마 이런것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기의 손을 놓치고 허전해하는 아버지의 손을 본 영미는 눈길을 허둥거리며 방황하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오늘 네 결의를 듣고보니 내 마음도 잠시 동요를 일으켰다만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일이니 말하지 않을수 없구나.》

《...》

《고속화에 기능공들이 외면하면 곱절로 힘들고 완성의 길은 그만큼 멀어진다.》

《여보, 당신은...》

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 도로 삼키고말았다.

《나는 네 생각을 알고싶다.》

지시도 아니고 강요는 더구나 아니였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이마뺨을 뚫는것만 같았다.

영미는 떠듬떠듬 말을 더듬었다.

《저- 거긴 우리 직장도 아니고... 또 오늘... 전...》

영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자기의 대답에 자기가 놀랐다. 이제껏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다 옳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의사를 거역해본 일이 없지 않은가.

아버지는 재떨이를 더듬어 담배를 비벼졌다.

거기에 눈이 간 영미는 가슴이 아팠다. 담배에는 불이 붙어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갈 차비였다.

《오늘은 대답안해도 좋다. 래일도.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겠다.》

덜컹- 방문이 열리고 뒤이어 삐걱하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영미는 계단을 내리는 아버지의 발걸음소리를 가늠해들었다. 그것은 자기에게서 영영 멀어지는 발걸음처럼 들렸다. 또한 그소리는 아침노을과도 같은 꿈을 향해 곧추 뻗은 길을 버리고 수렁길로 들어서라고 구령을 내리는것 같기도 했다.

### 3

이것은 또한번 닥쳐온 생활의 분기점이였다.

...중학교를 졸업할무렵 영미에게는 하고싶은 일도 많았고 갈곳도 많았다.

어머니는 의학이나 어학에 은근히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데도 보내길 원하지 않았다.

《영미야, 너야 방직공장에서 출생(공장병원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했고 세상밖에 나와서 처음 눈을 뜨고 본것이 어머니의 얼굴과 함께 공장지붕들이 아니냐 ...너는 공장탁아소에서 주는 젖

을 먹고 공장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자란 애다.》

어머니는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영미는 어쩔지 아버지의 의사를 따르는게 옳을것 같았고 또 그것이 싫지 않았었다.

그일이 3년전에 있는 첫번째 분기점이었고 오늘이 두번째인것이다...

영미는 머리를 들었다.

《어머니, 어쨌으면 좋아요?》

그는 구원을 청하듯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눈길은 놀랜듯 영미를 마주보았으나 곧 아래로 떨어졌다.

《나라면... 아니, 나도 모르겠다.》

밤이 깊어갔다. 창유리에 날아와 붙던 꽃잎같은 눈송이도 지친듯이 떨어버렸다. 하지만 영미의 가슴속에 일어난 회오리바람은 소란스러워지기만 했다. 두툼한 이불도 고요한 탁상등도 그것을 잠재우지 못했다. 밤이면 황홀하고 무한한 꿈세계를 안겨주고 평온한 안식을 주던 방이 썰렁하기만 했다.

하늘로 날아오를듯이 책상위에 서있는 도자기 선녀며 경대우에 앉아있는 치장거리 장식품들이 모두 무의미했다.

영미는 불을 꺼버리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서는 새까만 동그라미들이 뱅글뱅글 돌아쳤고 머리속에서는 서로서로 부딪치며 맞서는것들이 있었다.

수많은 축하의 눈길과 꽃보라속에 묻혀 더욱 빨강게 된 얼굴, 크고작은 렌즈들이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그순간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평범한 일 지나지 않는것 같지만 조국이 알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높은 언덕위로 오르는 첫 디딤돌과도 같이 귀중하였다. 그순간 어머니는 딸이 하늘에라도 솟아오른듯이 행복에 겨워 웃을것이다.

아버지도 《우리 영미가 용쿠나!》하고 칭찬하시겠지. 아니, 아버지의 그런 칭찬은 이미 끝났어...

영미는 눈을 떴다. 주의는 텅 비어있었다. 쪼각 달빛이 습새여든 희미한 작은 공간이 자기를 둘러싸고있을뿐이다.

아버지는 다른것을 바라고있다. 아버지는 이딸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꽃다발우에 올라앉기를 바라는것이 아니다. 4.15까지 년간계획을 하는것보다 굶절로 힘을 들여도 아직은 빚도 영예도 없는 그 길을 택할것을 바라고있다.

그 길은 웅근 한해를 고생해도 자기 궤도에 올라서기 힘든 길이다.

어렵고 힘든 고생 그 자체가 두려워서는 아니였다.

그럼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충실으로부터 반원들앞에 결의했다. 성의를 다해 받아들여주는 작업반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는 그길을 버릴수 없다. 정말 그것뿐이냐?

그것뿐이다. ... 아니 모르겠다. ...

영미는 눈에 모래알이라도 끼운듯이 점점 더 째째해났다.

은연중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은 친근한 얼굴들도 떠올랐다. 영미를 받아들여주고 내세워주려는 큰 《집》의 식구들이다. 가정을 벗어나 처음으로 사귀고 정들인 작업반원들이다.

작업반장의 유순한 얼굴이며 너그러운 직장장의 얼굴, 불같이 뜨겁고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반원들의 사랑, 그 모든것에서 어떻게 떠날수 있단 말인가.

가슴속에서 또다시 물었다.

정말 그것뿐이냐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마음속 깊이깊이에 얼굴을 숨긴 그 무엇이 또 있는지...

가슴속에서의 싸움은 밤이 새도 끝날듯싶지 않았다.

새벽에 영미는 문득 아래방에서 울리는 말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 소리는 때때로 끊어지면서 사이문으로 흘러들었다.

《...그 직장에 다른 기능공들이 없어서 하필 영미를 거기다 보내겠어요. 그 애보다 기능이 높은 직포공들도 많지 않나요?》

아버지를 늘 존중하는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여보, 거긴 두가지 리유가 있소. 그 애가 마음만 먹고 접어든다면 누구보다도 잘해내리라 믿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건이 어려운 일 앞에서 제 딸은 슬쩍 밀어놓고 남들보구만 나서라구 한다면 그게 무슨 처사겠소.》

《하지만 큰 마음먹고 일을 시작한 애가 아니에요. 이제 한창 날기 시작했는데...》

《큰 마음먹고 하는 일로치면야 고속화만한 일이 어디 있겠소. 공장적으로 고속화가 완성되면 현재 있는 직기와 로력수를 가지고 수만메터의 천을 더 짜게 되는데 그게 보통일이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게 그래 어느한 직포공이 년간계획을 앞당기고 기대를 몇대 더 말아보는것하고 같겠소.》

《하지만 영미의 발전으로 보면야 이쪽길이...》

《참 야단이라니까...》

아버지의 성난듯한 목소리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바로 당신같은 사람이 문제요. 혁신자의 간관이나 생산에 대한 책임성이 간관을 이마에 내붙인 그 <충실성>이 우리 고속화의 치차에 끼워 방해를 논단말이요.》

조용했다. 얼마후 아버지의 말이 다시 들렸다.

《여보, 우리가 영예게시판에 붙은 그애 사진을 쳐다보면서 기뻐하게 뭐겠소.》

어머니를 타이르는듯한 좀 부드러운 목소리

다.

《나는 그애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딛는게 대견했소. 고사리같은 손을 쳐들고 작은 발로 아장아장 첫 걸음마를 떼며 나를 향해 걸어올때처럼 장해보였소. 그래서 늘 우리 영미가 용쿠나 하는 말이 나갔던것이요.》

어머니는 더 말이 없었다.

영미는 호-하고 한숨을 쉬며 이불을 뒤집어쓰고말았다. 것처럼 믿고 따르던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에 가슴이 얼어들었다. (어찌 나의 마음을 저다지도...)

어느새 날이 밝았다. 영미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아버지와 나란히 출근길을 걷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했던 그였건만 오늘은 아버지 몰래 부엌에서 그것도 동정에 찬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찬밥을 한술 뜨는등마는등하고 혼자서 공장으로 향했다.

## 4

직포기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룰동적인 음향으로 영미를 맞이했다.

영미에게는 왜서인지 그소리가 두려웠다. 자기에게서 그 무슨 대답을 바라는것만 같았다. 그누구든지 만나는것조차 싫어서 고개를 수그리고 일손만 놀렸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아버지가 일하는 2직포직장 쪽으로 자주 가군하였다.

영미네 직장과 중간복도 하나를 경계로 한 2직포직장은 서로 뻗히 바라보게 되어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자주 살폈었다. 허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그곳에서 보고있을가봐 두려웠다.

몇번 훑쳐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다행한 일이었다.

(아니 다행이라니?!)

영미는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놀랐다.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무척 기다려지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소리는 영미결을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그 애가 마음만 먹고 접어든다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해내리라고 믿소.》

아버지의 말소리는 우뢰소리도 죄다 삼켜버리는 요란한 직기소리에도 끄떡없이 따라다녔다.

《...혁신자의 간관이나 생산에 대한 책임성의 간관을 이마에 붙인 <충실성>이 고속화의 치차에 끼워 방해를 놓고있소...》

영미는 옆의 직포공처녀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것을 결눈으로 보았다. 더욱 눈길을 내려깔았다. 그가 자기의 기분을 알아볼것이 싫었다. 그러나 그가 팔굽을 툭 건드리며 속보판쪽을 가리키는바람에 얼결에 쳐다보았다.

보지 않던 속보가 눈에 띄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대문자 표제 아래는 어제 결기모임에서 한 영미의 결의가 소개되었다.

영미는 침울하게 속보에서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처녀결을 인차 떠나버렸다. 그러는 영미는 자기자신도 왜서인지 깨닫지 못했으나 속보를 마주 대하기 괴로웠다.

《정말 대단한데... 언제나 앞장에서 나가거든...》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속삭이는 말들이 무심중에 들려왔다.

점점 더 거북살스러워났다. 기계소리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로 도망치고싶었다.

될수록 그쪽을 외면하던 영미는 순회길 굽인돌이에서 그만 기대뒤에 풀썩 몸을 숨기고 말았다.

굽을사한 아버지의 잔등이 눈앞에 보였다. 그 잔등넘머로 속보 한귀통이가 마주 보였다. 아버지는 분명 속보를 보고있었다.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는 마치 자기가 못할것을 저질러놓은것 같이 부끄럽고 두려웠다.

아버지가 이처럼 두려울수 있으리라고 그 언제 한번이라도 상상해본적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

영미는 불쑥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래일도 모레도...내내 이렇게 아버지를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고...이것이 무슨 생활이겠는가. 이렇게는 살수 없을것이다.

온몸에 맥이 풀리고 마음은 허전했다.

## 5

영미는 지친 걸음으로 구내길에 나섰다. 차거운 대기가 얼굴을 식히며 몸안으로 스며들었다.

맞은켠 공무직장쪽에서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떠들썩하며 영미쪽으로 다가왔다.

잠시후 그들은 영미를 따라 앞섰다.

《...정말 위급했었는데... 큰일날뻔했지.》

영미는 바투 따라섰다. 고속화부속생산을 위한 주물작업반 로공사이야기였다. 용광로 공사장엔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영미로서는 무엇이 이렇게 위험했는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수는 없었지만 매우 위급한 정황에 놓였던것 같았다.

《그런데 그제 글썽 누군가말이요?》

《모르겠더니까. 끝난 다음에 찾아보니 없두만. 그 뻔안 재가루속에서야 사람을 알아볼게 뭐요. 키가 크다는것밖엔 하여튼 우리 직장 사람은 아닌것 같애.》

《가만 있자. 이제 생각하니 어디서 보긴 보던 사람같애... 직포기술준비실?... 설비과? ... 어쨌든 우리 직장엔 더러 오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나말이요.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게말이요.》

(누가 그렇게 큰일을 하고도 말없이 가버렸을가?)

《그런 사람이 바로 숨은 영웅감이지, 뭔가 제 몫을 바라지 않는 정말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란 말일세.》

웅글은 목소리가 결론이나 짓듯이 말했다.

영미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는 가려들지 못했다.

(누굴가? ...어떤 사람일가. 기술준비실? 키 큰 사람. 혹시 아버지가 아닐가? ...그런데 왜 그렇게 인차 없어졌을가...아마도 다른 급한 일이라도 있어서 가버린게지...아니 티없이 깨끗한...)

여기까지 생각한 영미는 문득 가슴에 걸리는게 있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남들은 나에게도 그런 평가를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영미는 이름모를 사람에 비해 자기는 뭔가 자리가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마음이 허전해졌다.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가? ... 그 사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씩씩히 가버렸을가.)

영미는 도리질을 했다. 작업반장이나 직장을 위해서 사소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칭찬해주고 내세워주면 은근히 좋아했던 자기였다.

《4월15일까지 연간계획 완수!》

《새 기록을 돌파한 신영미!》

《온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직포공 신영미!》

영미는 이 모든 평가를 바랐다. 아버지 의사를 선뜻 따르지 못하는것도 바로 그것때문이었다. 그것이 방해를 놓았다.

현장의 속보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영미는 스스로 얼굴을 붉혔다. 대기대를 말고 연간계획을 앞당기는 거기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올리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한치의 천이라도 더 짜겠다는 오직 하나의 순결한 일념뿐만이 아닌 자기 이름, 자기명예, 자기 몫에 대한 생각도 한 자리를 차지한것이다. 그래서 남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공장일이 어떻게 되든간에 자기만을 생각했다. 고속화때문에 그토록 애쓰는 아버지마저 외면하지 않았는가, 무례한것이다, 아니, 무서운 일이다.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아버지를 만났던것이 어제저녁이 아니라 몇달전처럼 생각되었다.

고민의 세계란 악몽과도 같이 길게 느껴지는가 부다. 영미의 세계에서 이처럼 깊은 고민속에 묻혀보기는 처음이었다.

뚜벅 뚜벅...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났다. 영미는 얼핏 돌아보았다. 키가 큰 사람이 직포직장 정문을 등지고 다가오고있었다. 아버지였다.

영미는 저도모르게 부르짖었다.

《아버지!》

그는 막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싶었다. 두렵고 산란하고 피롭던 그 모든것을 죄다 털어놓고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영미는 자기가 벌써부터 아버지를 무척 기다렸다는것을 느꼈다.

아버지도 딸을 오래간만에 만나기라도 한듯이 큰소리로 반겼다.

《영미로구나!》

등지고 오는정문의 두리기둥처럼 키가 크고 든든해보이는 아버지, 그 어떤 공명이나 사리사욕의 유혹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듯싶은 모습이였다.

불현듯 영미는 그 키가 크다는 이름모를 사람이 아버지일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아버지가 그 로공사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던가.

영미는 아버지결으로 다가서며 얼굴이며 손발을 휘둘러 살폈다.

《왜 그러느냐?》

호-영미는 대답대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화상이라도 당했나 했어요.》

《화상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전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였다.

《뭘 착각하는게 아니냐?》

《주물직장 로 공사에 가시지 않았었나요?》

《오늘 다른 일이 제기돼서 거긴 가볼새가 없었단.》

(아니였구나.)

영미는 눈길을 내려뜨렸다.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버지는 딸의 기색을 살폈다.

영미는 공무직장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자기가 생각한것을 죄다 말했다.

아버지는 딸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넌 어째서 그 사람을 내라고 생각했느냐? 혹시 이 아버지만이 그런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건 아니냐?》

《전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걸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도 다 아버지와 다를바가 없다. ...지금 공장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고속화가 빨리 완성돼서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질 좋은 천이 폭포처럼 끊임없이 쏟아지길 바라며 제 한몫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금이 어떤 시대냐. 개인의 명예나 평갈을 앞세우려하지 않는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신적미이고 높은 지향이 아니겠냐.》

영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것이 바로 누구나 말은 쉽게 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일것이다.

그는 아버지앞에서 무엇때문에 이처럼 두렵고 부끄럽고 미안했었는가를 다시한번 깨달으며 피롭게 머리를 숙였다.

시대의 지향에 어울리지 못하고 외토리 기름방울처럼 걸면에 동동 떠서 돌아치고있는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딸의 그러한 마음을 짐작이나 한듯이 말했다.

《이 아버진 영미도 이제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아버지!》

영미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의 믿음이 한없이 고마웠다.

×

주위는 온통 은빛이었다. 구내길 버들가지에도 공원의 솔잎에도 눈서리꽃이 활짝 피었다. 매화며 개나리가지들에 맺힌 눈서리도 마치 은방울꽃을 드리운듯이 아름다웠다.

나무줄기도 가지도 온통 은백색 세공을 한듯한 동화적인 세계가 펼쳐졌다.

그 어떤 조각가도 화가도 도저히 창조할수 없는 희귀하게 아름다운 설경이었다. 신비로운 가득찬 대자연이 영미에게 안겨준 이 아침의 축복이었다.

아버지와 딸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독차지한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네가 꼭 그렇게 고속화기대를 말아줄줄 믿었다.》

《전 어머니가 섭섭해하시면 어찌나 했는데 어머니도 벌써 다 이해하셨더군요.》

《그래, 자식이 나라의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된다면 그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부

모의 마음은 언제나 기쁜것이다.》

구내에는 엷은 솟눈길이 펼쳐졌다. 어린 시절에 이런 눈판을 보면 네 활개를 벌리고 벌렁누워 《눈사진》을 찍곤했던 영미였다. 발자국으로 《꽃을 그리기도》했고 손자라도 냈으며 무엇이든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곤했었다. 그것이 왜 그리도 좋았던지.

그러나 지금 영미는 이 순간 이 깨끗하고 눈부시게 흰 눈이 오래도록 어지럽혀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우에 떨어진 삭정이가치가 마치 무슨 티처럼 생각되어 조용히 치워버렸다.

마음속의 티를 집어내듯이,

《아버지, 그런데 우리 직장장동지랑 작업반장동지가 보내줄가요?》

《아쉬워할테지...허지만 당조직은 기뻐할게다. 선구자가 나왔다구. 그리고 네 이동을 적극 방조할게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맺으며 걸음을 늦추었다.

영미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흰숲에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계실까? 저 아름다운 설경에 대해서일가. 아니면 이 딸의 성장을 두고 걱정하는걸가?

《아버지, 뭘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음지으며 딸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영미가 짜는 천은 저 설정보다도 더 아름답고 깨끗할테지.》

영미도 방긋 마주웃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서 무엇을 바라고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렸다.

아버지와 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 가사

# 당이 준 심장 혁명위해 바치리

## 황명성

혁명이 총창 틀어쥐고 전호에 서니  
조국에 다진 전사의 맹세 피로 뚫는다  
무엇을 위한 청춘이나 묻지 말아  
당이 준 나의 이 심장 혁명에 바치리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  
그 품에 안겨 나의 운명 꽃피였어라

무엇을 위한 청춘이나 묻지 말아  
당이 준 나의 이심장 혁명에 바치리

통일의 념원 불타는 나의 심장이아  
결전의 날엔 이 한몸 바쳐 육탄이 되리  
무엇을 위한 청춘이나 묻지 말아  
당이 준 나의 이 심장 혁명에 바치리

## 마음의 계절

박래수

## 1

퇴근고동이 울리려면 아직도 일렀다. 석양무렵이었다.

하루일을 마친 가공직장 공구창고원 주현옥은 서둘러 현장창고문을 닫았다. 아버지를 만나러 공장자재창고에 갔다오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

지난봄 동해안의 어느 한 노동자휴양소에서 사권, 아직은 마음을 허락치 않았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고야 말 한 총각으로부터 긴한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이웃군에 있는 탄광의 자재지도원인 그 청년의 이름은 임철모, 지금 자기네 탄광에서 새 운반기를 창안했는데 미처 계획에 못물린 상태에서 제작하다보니 본체에 쇠를 압연강관이 걸렸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현옥이네 공장에 없는지, 있다면 얼마간 돌려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첫사랑에 빠진 처녀들의 심리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현옥은 그의 부탁을 무조건 접수했으며 지어 그 이상 더중요하고 절박한 일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작업복을 벗고 거울앞에서 옷매무시를 살펴보는 데 불현듯 임철모와 처음 사귀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휴양생들은 천렵의 하루를 즐기며 유람선에 올라 자그마한 섬으로 갔다. 바다 건너 멀리 떠나간 님을 기다려 안해는 기슭에 바위로 굳어지고 죽음의 파도를 넘고넘어 정다운 안해를 찾아오던 랑군은 섬이 되어 부부가 지척에서 늘 바라만 보며 산다는 애뜻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섬은 아름답다웠다. 해풍에 시달려 키가 크지 못한 청솔들이 절벽우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푸른 물결우에 제모습을 비춰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한쪽의 그림이었다.

남자들은 낚시질을 하던가 아니면 공기총을 들고 자맥질을 했다. 녀자들은 치마허리를 걸어매고 미역과 굴을 따다. 점심은 저저마다 마음드는 사람들끼리 해먹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일이 우습게 되느라고 조개잡이에 정신이 팔렸던 현옥은 그만 짝을 다 놓쳐버렸다. 홀아비섬에서 외로리가 된 처녀를 끌려줄 썸으로 누구도 짝패에 받아주지 않았다. 예상 못한 이 놀림속에서 현옥은 타고르는 두볼을 싸권채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이 열린다고

마침 그때 저만치 바위뒤에서 공기총을 든 청년이 하나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팔뚝같은 다리를 줄줄이 늘어뜨린 문어가 들려있었다. 구원자라도 만난듯 청년에게로 달려간 현옥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의했다.

《저와 짝을 못자요.》

《??...》

청년은 처음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나 벌써 여기저기서 오르는 모닥불을 보고는 선선히 응하는 것이었다.

《그래봅시다.》 이렇게 그들도 어엿한 짝패가 되었는데 남들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대신 문어회가 이채로와 만장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그 일이 있던 뒤부터 현옥은 정구를 치거나 다 이아몬드를 놀아도 꼭 그 청년과만 짝을 무었다.

알고보니 그는 제대군인으로서 든든한 체구라던가 역설역설한 눈매에 비해서는 여간 어질고 순한 성미가 아니었다.

둘의 사이가 서로의 리상까지도 이야기할만큼 가까워진 어느날 저녁, 파도가 잠자는 교묘한 바다가를 거닐며 현옥은 말했다.

《그런데말예요, 난 참 이해할수가 없어요. 동무처럼 주변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재사업을 하는지... 한번 구경시켜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룡담삼아 한 그 말이 상대방을 크게 노엽혔을줄이야.

임철모는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지더니 나직하나 심각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난... 나는 동무가 뭘 말하려는지 알수 있소...

하지만 우리 일이란 말이나 잘하고 둘러치는 수완으로 하는게 아니요. 그건 랑심과 성실성으로 하는 일이에요. 거래에서의 신용이란 뭇지 동문 아오? 믿음이란 뜻이요, 믿음!! ... 동문 자신은 물론 아버지까지 자재창고장을 한다면 아직 그걸 모르다니...》

집어던지듯 이 말을 해버린 청년은 돌파서 걸어가버렸다.

들뜬 기분에 실없는 소리를 했다가 뜻밖의 봉변을 당한 현옥은 입술을 깨문채 망연히 서있었다.

그는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를 어지고 순해빠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온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짧은 생각이었는가. 더구나 임철모가 것처럼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대하고있는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리고 그날 그 저녁부터였는지 모른다. 처녀의 숨진 마음속에 한 사나이가 자리잡더니 점차 그 존재를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제와서 그를 잊어버린다는것은 거짓말이며 번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퇴근시간을 앞둔 저녁녘의 공장구내는 들끓었다. 언제나 이맘 때면 생산일보를 전 통계원들이 직장과 사무실사이를 뛰어다니고 속보관이 늘어선 구내길로는 단조롭으며 광차설비를 안은 지게차들이 쾅무니로 파란 배기가스르 뿜으며 분주히 오갔다. 쿵-쿵 공기함마의 둔중한 마치소리가 끝없이 울리는 단조직장을 지나자 저만치 전용선 곁에 길게 자리잡은 자재창고가 바라보였다.

갑자기 현옥은 저도모르게 걸음이 떠지고 속이 조마조마해졌다. 혹시 창고에 필요한 강판이 없거나 있어도 아버지가 안된다면 어쩌랴싶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현옥의 아버지 주영표는 직장장으로부터 창고에 옮겨왔은 뒤 지금까지 출창 여섯해를 창고장으로 일해오는데 무뚝뚝하고 융통성이 없기로 공장안에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상대가 누구던 그리고 별사정을 다해도 딱 취울린 희스희스한 상고머리를 저으며 《없소.》 혹은 《그건 안돼.》하고 돌아서면 다였다.

언젠가 현옥이 자신이 겪은 일이었다.

그날 현옥은 추가로 공급하는 기공구들을 받으러 창고에 갔었다. 그런데 주영표는 노기스니, 바이트니 하는 중요한것들은 다 내주면서도 별치않은 전구만은 끝내 주지 않았다. 대품으로 바쳐야 하는 폭자가 없다는것때문에.

현옥은 사정사정하다가 나중에는 뽀로통해서 그제 어디 국가물건이지 아버지 개인거냐고까지 하며 강짜를 부렸다.

《그래, 그건 네말이 옳다. 이 모든건 다 공장재산이다.》

주영표는 딸이 약이올라해대는 모양이 오히려 귀엽다는듯 이렇게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왜 공장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쓰냐 말예요.》

《내가 권세를 써?!》

주영표는 어이없는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현옥은 한술 더떴다.

《사람들이 아버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그건 나두 안다. <구두쇠>라는거겠지?》

주영표는 그 말을 아주 쉽게, 마치 제이름처럼 자연스레 외우더니 더 할말이 없다는듯 장부책을 덮고 손을 툭툭 털며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바로 이런 아버지에게서 압연광관 한톤을 그것도 후에 물어준다는 조건도 없이 과연 뽑아낼수 있겠는가. 하지만 기어코 설득시켜 승낙받고야말테다. 이러나저러나 나는 딸이 아닌가.

그런데 창고에는 아버지대신 자재과에서 본듯

한 낯선 사람이 앉아있었다.

《어째서 왔소?》

현옥이가 머뭇거리는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저, 창고장을...》

《내가 창고장이요.》

《아이참, 그런 룡을...》

《룡이라니? ...오라, 동문 주영표아바일 찾는모양이구만?》

《네, 그래요.》 현옥은 얼른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그 아바인 이젠 창고장이 아니요. 오늘 해임되었소.》

《네??...》

현옥은 그만 아연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버지가 해임되나니? ...한순간 현옥은 가슴밑에 어떤 썸이 있어 얼음같이 차거운 물줄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현옥은 자기가 어떻게 창고장을 떠나왔는지 몰랐다. 직장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생각할 여유를 가질수 있었다.

(왜 아버지가 갑자기 해임되었을가? 까닭이 무얼가? 오늘아침 출근할때까지만해도 별말씀이 없지 않았는가? ...)

현옥은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해임을 무책임성이나 더우기 창고물건을 가지고 어떤 룡간을 부러서 철직된것으로 생각할수는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 죄스러웠다. 단지 아버지는 너무 딱딱하고 규정과 원칙밖에 모르는것이랄이라면 탈이고 그것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뒤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혹시 그것때문이 아닐가?

그렇지도 모른다. 생활에서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을 리해하지 못한 이른바 《원칙》이 때로는 놀림을 받거나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노상 없지 않으니까.

현옥은 분명 아버지가 그 《비능동적》인 성미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났으며 종당에는 밀려난것이라는 짐작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 동무의 부탁은 어떤담? 그도 아버지가 자재창고장하는걸 알고 그런 부탁을 했을텐데.

자기 또한 아버지를 믿고 장담까지 했었다. 있기만 하면 문제없이 뽑아주겠노라고, 그런데 이제와서 일이 여사모사하게 되었은즉 단념하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창고장직책에서 밀려난 아버지의 일까지 합쳐 나에 대한 아주 못미더운 인상을 가질수 있지 않는가. 그건 안된다.

상대가 제아무리 마음의 벗이래도 그건 처녀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그럼 현재의 조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수 있겠는가.

어쨌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볼가? 창고에서 나왔으니 차라리 딱할것도 없고 전 창고장의 안면

으로 오히려 해결하기 쉽지 않을까? 허나 그것은 해임으로 하여 가뜩이나 생각이 복잡할 아버지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 일이 이렇게도 난처하게 되다니...속상한 나머지 현옥은 울고싶은 심정이었다.

퇴근고동이 울린것은 그때였다.

## 2

어째서 아버지가 해임되었을까? ...

그리고 그 동무의 부탁은...?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현옥의 생각은 오직 이 두가지 물음에 귀결되어있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대답을 찾지 못한채 마당에 들어서서는 순간 그는 또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마음속에 번민과 슬픔을 안고계실 아버지를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드릴까 하는것이였다.

모르는척할가, 하지만 그런 속임수로 과연 몇분을 지탱할것인가, 차라리 아버지가 아직 들어와 계시지 않았으면...

그러나 부엌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희망이 부질없는것임을 깨달았다. 거기 신발장 비닐보우에 단정히 놓여있는 아버지의 구두를 보았던것이다.

《인제 오냐?》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어머니가 어쩐지 시름겨운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진 언제 들어오셨어요?》

현옥은 필수룩 태연하려고 애썼다.

《아까. 그런데 애야, 옷방엔 들어가지 말아.》

《왜요?》

《아버지 누우셨다. 아마 또 다리가 아프신가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에도 젖어있었다.

아버지의 왼쪽 무릎우에는 전선에서 입은 두개의 총상이 있었다. 그 저주로운 상처때문에 이따금 고생하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현옥은 지금 아버지가 여느때없이 일찍 누우신것은 그때문이 아니라 해임으로 하여 마음이 피로때문일것이라고 짐작했다.

옷을 갈아입은 현옥은 여느때 같으면 소설을 읽던가 혹은 수틀이라도 손에 쥐였겠지만 이 저녁에는 다 마음까지 앓아 아래목에 오도카니 앓아있었다. 부엌에서 가끔 들려오는 그릇소리만 아니라면 집안은 물속처럼 조용하였다.

현옥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맞은편 창문턱우에 걸린 액틀로 이끌려갔다. 그것은 백설의 흰 바탕에 푸르청청한 소나무 한그루가 가지마다에 흰 눈을 소담하게 실은채 곳곳이 서있는 수예품이였다.

제작년, 아버지의 요구로 현옥이가 자수한것인데 그때만 해도 솜씨가 서툴어서 지금 보면 어색

하고 세려되지 못한점이 많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에 그 이상 없는것처럼 여기는 《결작》이였다.

수틀에서 마지막으로 실을 뽑던 날 저녁 아버지와 나누던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났다.

《차라리 나비가 찾아드는 고운꽃이나 구룡연을 수놓았을걸...》

현옥의 말에 아버지는 대답했었다.

《아니다. 꽃이나 폭포보담 그게 더 멋있다.》

《뭐가 멋있나요? 흰눈에 소나무밖에 없는데...》

《그게 좀 좋으나, 눈속에서도 황이 들지 않는 깨끗한 기상이... 세상에 꽃도 많고 나무도 많지만 나는 늘 한본새로 푸르청청한 솔이 제일 좋더라.》

《호호 아버지두... 취미가 별라시네.》 ...

《애, 현옥아.》

문득 옷방에서 아버지의 석심한 목소리가 내려왔다. 생각에 잠겼던 현옥은 얼굴에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거 랭수 한그릇 다오.》

그리하여 현옥은 어머니가 떠주는 물사발을 들고 아버지의 침대앞에 서게 되였다.

몸을 일으켜 물그릇을 받은 주영표는 베개밑에서 약봉투를 꺼내더니 가루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약간 여윌사한 목에선 날선 울대뼈가 분주히 오르내렸다.

현옥은 측은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나 마음속 번민이 크면 낮색이 저리도 어두우실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아버지는 이 하루에 몹시 늙은것 같았다. 오금을 꺾고 살며시 침대앞에 앉은 그는 두개의 부상자리가 있는 (현옥은 어릴 때 그 끔찍한 흡침을 보고 기겁한 나머지 오래동안 아버지결으로 가지 않은적이 있었다.)아버지의 무릎을 어루쓸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생각마세요 아버지. 까짓 차라리 잘 되였지요 뭐.》

말을 해놓고서야 현옥은 실상 그 말썽 많던 창고장자리에서 물러난것이 아버지자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요, 그런데 이젠 무슨 일을 보시래요?》

현옥은 아버지의 어두운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될수록 밝은 표정으로 말도 상냥하게 했다.

《허허허, 내 이제부터 정문경비원을 하게 됐단다.》

《정문경비원요?》

《음.》

주영표는 무슨 큰 중책이나 맡은듯 사뭇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은근한 미소까지 지었다.

현옥은 창고장직무에서 해임된것으로 하여 고민하리라 짐작하고있던차라 아버지의 그 미소가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글픈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사람들의 흔히 말하기를 인생의 마지막직무라고 하는 정문 문지기, 경비실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피고 때맞추 고동을 울리거나 차단봉을 올렸다내렸다 하는 직업이다. 만일 직업이라 할수 있다면... 거기서 한발작만 더 내짚으면 공장올타리밖이고 그것으로 한 인간의 노동생활은 끝을 본다. 현옥은 아버지의 한생이 벌써 그런 막바지에 이르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열두살 소년시절부터 왜놈철공소에서 합마를 메었고 쫓아 한창때는 주먹질 몇번에 감독놈을 죽게 만들어서 해방되는 날까지 변성명을 하고 숨어살아왔다는 아버지, 만일 미국놈과의 싸움에서 부상만 입지 않았던들 지금도 아버지는 직장장을 하시며 위신있으리라.

하지만 그 모든것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을 뿐 아버지의 한생은 황혼을 바라보는것이다. 정문경비원, 얼마나 무맥하고 서글픈 직무인가.

그러나 현옥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두워질것을 염려해서 우정 대수롭잖은 어조로 말했다.

《됐어요. 아버지, 그까짓 창고장이면 어떻게 경비원이면 또 뭐래요? 공장일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주영표의 낯색이 알리게 활짝 밝아졌다.

《옳다, 너 그말을 아주 잘했다. 일터야 어디든 그게 무슨 상관이었니, 내 생각에는 지배인이나 당비서두 광차나 착압기를 만들자는 사람들이요 창고장이나 경비원도 역시 같다고 본다. 그런데 두 네 어머닌...》

《어머니가 뭐라세요?》

《날더러 떨어졌나? 허허허.》

《호호호》 현옥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한데 나는 그 경비원이라는걸 꽤 해내겠는지 그게 아무래두 걱정이거든.》 웃음이 어렸던 주영표의 낯색이 이 말과 함께 어두워졌다.

《온참 아버지두, 그까짓걸 뭘 걱정하세요. 경비실에 완장끼구 척 앉아서 판데 사람들이 들어오나 살피고 때맞추 고동이나 울리면 되는데.》

현옥은 아버지의 걱정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었다.

《글쎄 그렇기는 하다만 아무러나 원칙대루만 하면 되겠지.》

(원칙대로라...?)

쌍가풀진 고운 눈을 내리간채 현옥은 생각에 잠겼다. 그 지나친 원칙이 창고장직책에서 비난을 듣게 하고 종당에는 밀려나게까지 한줄 모르고 아버지는 의연히 원칙밖에 모른다. 이런 아버지에게 전 창고장의 안면으로 압연강관을 해결해달라고 한다면 뭐라실가, 그건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잖을까? 필경 그럴것이다. 그러자 다른하나의 생각- 현옥이로서는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당돌한 결심이 불타올랐다.

(차라리 지배인동지께 제기한다면...?)

그는 자기가 왜 이제야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아버지》 현옥은 상냥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직장장 하실때 우리 지배인동지가 아버지밑에서 작업반장을 하였지요?》

《그랬지, 그땐 총각이었는데 우리 집에도 자주 댕겼다. 왜 너도 생각날텐데, 고장난 우리 라디오를 고쳐준다고 하다가 아주 망가뜨린 일이...?》

《생각나요, 내가 울면서 당장 소리나게 해놓으라고 야단하니까 스피카를 사다 라디오에 집어넣고는 날 속였지요?》

《그랬지 허허.》

《호호호.》

어린 시절의 추억이란 매양 즐겁다.

《참, 아버지.》 현옥은 갑자기 생각난듯이 또 물었다.

《창고에 2.8 미리 압연강관이 있지요?》

《있구말구. 협동자재로 들어온게 자그만치 30톤이나 있다. 한데 그건 어째서?》

《누가 좀 알아봐달래서...》

《누가?》

《저...》말문이 막힌 현옥은 얼굴을 활짝 붉히며 재빨리 변명했다.

《아이참 아버지두, 누구라면 아시겠나요뭐?》

현옥은 더 따지면 어쩌라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둘러댈 구실을 만들고있는데 마침 부엌에서 어머니의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얼른 물사발을 들고 콩지가 뿔뿔해서 정지로 내려갔다.

그러는 딸의 모양을 주영표는 사뭇 수상한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 3

공장정문으로 말하면 첫 노동생활의 시작과 함께 익숙된곳이지만 지금까지 현옥은 아침마다 거 거서 출근기록을 한다는것밖에 별다른 표상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경비원이 되자 드나들 때마다 경비실을 살피보고 창턱에 놓인 전화기로부터 차단봉공무니에 매달려있는 광차바퀴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새롭게 보고 감수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아버지 주영표가 경비원으로 되면서부터 정문의 면모와 질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선 출근부 건사가 달라졌다. 전에는 경비실 창턱에 출근부를 쌓아놓고 겨끝매기로 찾아서 도장을 눌렀다. 그러다보니 자연 이것저것 주무르며 지체되었다. 성미가 급한 축들은 눈을 흘기며 다투는 실례조차 없지 않았다. 그러던것을 문견함같은데다 직장별로 칸칸이 넣어두고 문을 달았는데 출근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자물쇠를 걸었다. 그것은 간혹 출근이 늦어지는 규률위반자들에게 주는 경고와도 같았다.

자동차 단속질서도 변하였다. 경비실에 앉아서 단추를 누르면 필요에 따라 차단봉이 오르내리고 하던 자동장치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경비원이 반드시 검열한 다음 손으로 차단봉을 들어 통과시키곤하였다. 대신 쇠로 만든 자그마한 접이식 다리가 생겨났다. 적재함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몇가지 소소한 규정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공장정문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엄격해졌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또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주영표가 경비원이 되더니 정문통과하기가 여간 말쑥진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모자를 빼뚜름히 썼거나 앞가슴을 해쳐놓고 다니는 젊은 노동자들 속에 있었다.

어느날 아침이었다.

현옥이가 출근하는데 앞서가던 한무리의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 하여튼 꼭자령감이야, 꼭 기계라니까. 하긴 내가 다루는 프로그램선반에도 허용공차가 있긴 하지만.》

《너무 그래서 창고장자리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있습네.》

그러자 누군가의 점잖은 목소리가 부정했다.

《실없는 소리 말라구. 무슨 그래서겠나. 령감이 구두쇠 부렸지만 그바람에 창고에서 통간부리던 일이 싹 없어지고 술한 자재가 절약되었답네.》

그 말을 다시 프로그램선반공이 받았다.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해.》

《젠장 그 령감 막내딸이 곱다는데 사위될놈 굶기 십상이겠군.》

《그건 또 왜?》

《원칙적으로 가시집에도 량표 떼가지고 오랄지 모르니까?》

말끝에 와하하 웃음이 터져올랐다.

현옥은 더 들어낼수 없어 혀를 깨물며 옆길로 빠졌다. 분한 마음같아서는 돌파서서 그런 뒤소리군들과 한바탕 해보고싶었지만 그럴수 없는 처지라 속에서 피만 끓어번졌다. 그는 아버지도 원망스러웠다. 창고장을 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형편에서 경비실이나 조용히 지키고있으면 될텐데 왜 중뿔나게 일하느라고 남의 뒤소리를 듣는담.

엇그제 목격한 일도 그렇다.

현옥이 무슨 일때문에 정문을 나가는데 마침 아버지가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자동차를 검열하고 있었다. 접이사다리에 올라서서 적재함을 굽어보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제관에서 당장 쓸게로군. 이보게 운전수, 이진 중앙창고에 말구 2 분창고에 입고시키게. 두번 일하잖게스리.》

운전수가 웃으며 한마디 씩둑거렸다.

《알겠수다. 한데 아바인 경비원 겸 자재창고사업까지 그냥보우다?》

주영표는 그런 야유쯤에는 개의치 않고 차단봉을 닫더니 창고에서 붙은 습관대로 손을 툭툭 털며 경비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모든 일은 이러했다. 지나치게 원칙만 내세우는가 하면 융통성이란 조금도 없고 게다가 아무 상관없는 일까지 거들며 수고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서 사람들이 비평하지 않으며 사업에서 거치장스러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것때문에 창고장직책에서 밀려났으면 (이제와서 현옥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단정했다.) 지금이라도 사는 방식을 달리해야겠는데 의견 그 본새다. 경비원이 무슨 대단한 간부인줄 아시나봐. 아이 속상해...

그날 점심때 현옥은 결심한대로 지배인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그는 만일 지배인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안된다면 어찌랴 싶어 몹시 가슴을 조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명한 걱정이었다.

지배인은 현옥이 주영표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 무슨 귀한 손님이기라도 한듯 쏘파에 이끌려다 앉혀었다. 그리고는 압연강판문제도 자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유분중에서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아, 문제가 이리도 쉽게 풀리는걸 나는 얼마나 속을 썩였는가.)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 이 은혜를...》

현옥은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쏙나올 지경이었다.

《허허, 무슨 은혜까지야. 형봉탄광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단위이기도 한데... 하지만 정 은혜값음을 하려거든 시집갈때 큰상에 놓았던 술이나 한잔 달라구.》

《어마나 지배인동지두...》

현옥은 기쁨반에 부끄러움반을 해서 두볼이 장미꽃처럼 붉게 타올랐다.

《허허허... 그래 날 찾아온것이 그 때문이었나?》

키가 크고 몸이 거칠진 지배인은 미소가 어린 눈길로 현옥을 바라보았다.

《네, 아니 또 한가지 있습니다.》

《또 있어?》

지배인이 놀라는바람에 현옥은 다소 주저되었다. 그러나 이왕 내친 걸음이라 용기를 내었다.

《저, 우리 아버지를 판데 옮겨주었으면 해서...》

현옥은 말꼬리를 여물구지 못했다. 자신의 어디에서 그런 당돌한 생각이 싹터났는지 스스로도 놀라왔다.

지배인의 표정이 자못 심중해졌다.

《그건 아버지 의향이냐?》

《아니 그런건 아니고...》

《그럼?》

그래서 현옥은 그래야 하지 않을수 없는 사연을, 아버지 주영표가 창고장을 할 때와 경비원이 된 이후의 일들이며 사람들로부터 받고있는 비평에 대하여 커다란 수치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했다.

《음.》

천천히 쏘파에서 몸을 일으킨 지배인은 담배를 피워물더니 생각에 잠겨 방안을 두벅두벅 거닐기 시작했다. 지배인의 그 말없는 행동은 어쩐지 현옥의 가슴에 까닭모를 불안을 몰아오는것 같았다.

이윽고 창문앞에까지 걸어갔다가 몸을 돌린 지배인은 입을 열었다.

《혹시 현옥인 아직 아버지를 잘 모르는게 아니냐?》

《네?》

《왜, 내 말이 억울한가?》

아닌게아니라 현옥은 억울하였다. 아니 어이없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르다니?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 하지만 어쩐지 나는아버지를 알아도 너무나 잘안다고 당당히 말할수 없는 자신이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나는 이문제를 현옥이에게 숙제로 남기려 한다. 그러니 자신이 아버지를 다 알았다고 생각될 때 알겠냐? 그때 다시 오라구. 아버지의 조동문제는 그때 논의하자구.》

지배인의 어조는 심상한 속에도 깊은 의미를 띠고있었다.

직장으로 돌아온 현옥은 생각에 잠겼다. 귀전에는 아직도 자기더러 아버지를 다 모르는것 같다고 하던 지배인의 굵은 목소리가 뻗돌았다. 지배인동지는 어째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였을가. 혹시 내가 아버지의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모르고있는것이 아닐가. 하지만 모를것이 뭐란말인가. 집안에서도 과묵하지만 공장에 나가서는 더욱 무뚝뚝하고 피뻘한 아버지, 그 대가로 존경이나 칭찬은 고사하고 비평과 미움만 벌어들인다. 왜 그렇게 산단말인가. 생활이 그대로 웃음이고 노레인 우리 사회에서 애써 남들과 싱갱이질을 하고 등을 지며 살 까닭이 무엇이란말인가, 물론 복잡다단한 생활속에서는 양보 못할 원칙이나 주장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레외도 있는법이다. 그래서 생활이고 인간을 가리켜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한가지 않는가...

그는 왜 지금에야 이런 멋진 생각들이 머리에 떠올랐는지 분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에게 다시 찾아갈 결심은 아직 서지 않았다.

## 4

레사롭지 않은 그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였

다.

자재과의 지시로 교외에 있는 상사에 일보러 갔던 현옥은 바빠 공장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검은머리가 폭포마냥 흘러내린 목뒤며 팽팽한 가슴앞을 깊이 파낸 류행의 회백색 긴 원피스에 굽높은 구두를 신은 그의 모습은 맑고 우아하였다. 걸음걸음 또각거리는 구두의 야무진 울림속에 손가방의 나비자물쇠가 반짝반짝 은빛을 뿌린다.

그는 서둘렀다. 오늘은 형봉탄광의 임철모가 압연강관 가지러 오는 날이다. 자기가 없는 사이 왔다가 끝내 기다려내지 못하고 가버린다면 그런 랑패가 없는것이다. 그새 얼마나 기다렸고 만나보고싶은 사람인가, 아마 이런 기다림, 못견디게 그림고 기쁘면서도 정작 만나게 될 시각이 눈앞에 닥쳐오자 까닭모를 불안으로 가슴조이는 이런 심정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멀리 공장정문이 바라보였다.

경비실앞에 망둥이고기처럼 운전칸만 덜썩 큰 낮선 자동차 한대가 이쪽을 향해 차단봉 바투 서있었다.

(혹시 저 차가 아닐가?)

현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그런데 정문앞에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근무중인 아버지 주영표가 자동차의 주인인 어떤 젊은 사람을 담아세우고있었는데 그러는 상대인즉 이 며칠간 현옥이 그토록 기다리고있던 임철모였다.

(어마나, 이를 어째...)

현옥은 당황한 나머지 낮빛이 다 해쓱해졌다.

뒤늦게야 어서 빨리 이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외래자 대기실로 뛰어들어갔다.

다행히 대기실은 비어있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서서 바깥의 동정을 엿보았다.

《아바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고 임철모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것이였다.

《비법적으로 빼가다니요. 원 그럴리가 있습니까. 우린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배인동지의 승인까지 받았답니다.》

뒤따라 울리는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

《아니 이동무 한다는 소리가 점점... 여보, 내 명백히 말해두지만 협동생산자재를 가지고 <선심>을 쓸 우리 지배인이 아니요.》

그러자 임철모의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그럼 저게 협동생산자재란말입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젠가?》

《...》

임철모는 침묵으로, 주영표를 멍히 쳐다보는것으로 그것을 수긍했다.

《좋네. 그럼 이제라도 알아두라구. 이 2.8미리

압연강관으로 말하면 전전달에 우리 공장에서 협동생산자재로 받아온거네. 내 말이 거짓말같거든 저기 저걸 좀 보라구.»

주영표는 적재함에 실은 철판모소리에 백묵으로 큼직하니 《협동자재 2.8》이라고 써놓은 글자를 마디굵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창고장으로 있을 때 다른것과 헛갈리지 말라고 그 자신이 써놓은것인데 마침 차에 실려있었던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그런즉 동무두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사람이거든 수고스런대로 도루 들여다 부러놓으라구.》

주영표의 마지막말은 오히려 제편에서 사정하는 어조였다.

(오, 그랬었구나.)

현옥은 비로소 사태의 진상이 리해되었다. 문제는 아버지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그 피박한 성미가 또 《일》을 만들어낸것이다. 참 답답하기란, 경비원이면 출입증이나 확인하구 통과시키면 될노릇이지 왜 남의 일에까지 간섭해나서며 저런단말인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같아서는 뛰쳐나가 모든걸 까발혀주고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공개할수 없는 임철모와의 관계때문에 그럴수도 없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쩐단말인가. 현옥이가 무엇보다도 우려하는것은 저러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장차 서로 화해하기 힘든 계선에까지 도달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제 눈앞에서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는걸 허용할수 없는 현옥은 결정적인 대책을 생각해냈다.

(버릇없다고 욕하잖을가?... 하지만 리해하실거야.)

현옥은 대기실과 면한 경비실피창을 살며시 열고 구내용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그는 교환수더러 지배인실을 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는 인차 련결되었다.

《지배인동지십니까? 제 현옥이...》

밖에서 들을세라 한손으로 입을 가린 그는 지금 정문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 아버지의 피박이 빚어낸 어이없는 정황을 조금씩 설명하고나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흔비백산한 현옥의 전화를 받은 지배인은 아주 재미있다는듯 꺾꺾 웃더니 알겠노라고, 마침 시에 회의를 떠나려던 참이니 곧 정문으로 나가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전화기를 제자리에 밀어놓은 현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침 지배인동지가 방에 계셨기마정이지 어쩔 뻔했는가?)

그는 총망중에도 며칠전 지배인과 나눈 담화를 회상했고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였다.

그렇다. 이제야 지배인동지는 날더러 아버지를 잘 모른다고 아니하실것이다.

밖에서 차소리가 났다. 내다보니 《망둥이》가

돌아설 차비를 하는지 뒤걸음을치고있었다. 저만치 구내길 갈림목에 가선 임철모는 손을 흔들어 자동차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고있었다. 그러고보면 결국 아버지의 고집이 이긴 모양이다.

(참 아버지두 어쩔 저리도 피박하실가.)

바로 그 피박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것을 임철모가 알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본다. 깜짝 놀라던가 아니면 기막혀서 입을 찻찻 다실것이다. ...

현옥은 일이 더 우습게 되기전에 이제라도 멈춰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밀고나갔다. 될수록 임철모의 눈에 띄우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버지에게 다가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왜서 저 차를 안통과시켜요?》

《협동자재를 내가는데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

《참 아버지두.》 현옥은 안타까운 속에서도 어이 없었다. 《무슨 그런 일까지 간참하면서 그러세요. 출고확인이 옳은답에야 아버지가 책임질것도 없잖아요?》

《그럼 일이 잘못되는걸 뻔히 보면서도 가만있어야 옳겠니?... 걱정말아. 저 젊은이도 그게 협동자재라는걸 알구는 제편에서 되려 사죄하더라. 제 발등에 떨어진 불만 생각하고 남의 눈섭 타는걸 알지 못했노라고... 젊은 사람이 아주 돼먹었거던...》

주영표는 감심한 어조로 이 말을 했다.

이런 경우를 예상 못했던 현옥인지라 말문이 막혀 아버지의 두툼한 입술만 멍청히 바라보았을 뿐이였다.

마침 그때 지배인의 승용차 《갱생》이 경적소리와 함께 그들의 옆에 와 멎어섰다. 또 한번 웅색한 정황에 부닥친 현옥은 얼른 아버지의 등뒤에 숨어버렸다.

차에서 내린 지배인은 주영표에게 인사를 건네더니 저만치 돌아서다가 길옆에 가로 비켜서있는 《망둥이》를 보며 물었다.

《형봉에서 압연강관 실러온 차가 저 참니까?》

지금도 작업반장 시절처럼 주영표를 존경하며 대하는 지배인이라 각뚱이 경어를 썼다.

《그렇수다. 한데 그걸 어떻게 아우다?》

《내가 주라 했으니까요. 현옥이가 말 안합니까?》

《아니 우리 애가요?》 주영표는 이제 무슨 소리는듯 등뒤에 서있는 딸을 돌아보았다.

그제야 지배인도 현옥이를 알아보고는 아니할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현옥은 부끄러운김에 돌아서서 고개를 푹 숙인채 구두코로 땅바닥만 굽었다.

주영표는 비로소 모든것이 리해되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배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낮색

은 눈에 띄게 침울해졌다.

《지배인동무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것 같수다. 그 압연강관은 협동생산자재우다.》

주영표의 정색한 말에 지배인은 먼저 걸걸하니 웃기부터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도 안다고, 자재파와도 토론하고 여유분에서 떼준것이니 생산은 조금도 걱정할것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주영표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이나 하는듯 잠시 말없이 서있더니 짐짓 미안한 어조로 말하였다.

《글쎄 그렇다면 몰라두... 허허허.》

지배인도 미소를 지었다.

《우리 공장정문에 이제야 진짜 경비원이 들어앉았습니다. 생산을 걱정하는 주인이말입니다. 생각납니까? 자재창고일이 터가 잡혔으니 이젠 정문경비가 더 중하다면서 정문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던 일이...》

(아니.)

한순간 현옥은 흠칫 놀랐다.

아버지가 창고장직무에서 해임된것은 아버지 자신의 요구였던말인가. 그런줄을 모르고 지나친 《원칙》과 《피벽》때문에 밀려난것이라고 억측을 한 나는 얼마나 경망하고 어리석은가...

그리고 지배인동지는 말했다. 우리 공장정문에 이제야 생산을 걱정하는 주인, 진짜 경비원이 들어앉았다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성실성에

대한 가장 정당한 평가고 표창이 아니겠는가.

《...좌우간 나는 정문에 나와서도 여전한 아버지를 보니 기쁩니다.》

진정이 폭 배인 지배인의 이 말에 주영표는 다소 어색해하며 말하였다.

《원 지배인동무두, 늙어간다구 마음까지 변하겠소... 겨울이라서 황이 들면야 술이 아니지요다.》

《웁은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계절을 모르는 그 마음이 중하지요.》

이윽고 지배인은 시계를 보더니 떠나려는듯 《갱생》에 한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몸을 돌려 현옥이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그의 눈에는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이런 물음이 담겨있었다.

《내가 준 숙제는 풀었나?》

현옥은 대답할수 없었다. 지금에야 비로소 리해했노라고 말하고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아버지에게 지은 죄의식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대답하고있었다.

《내가 아버지질 모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소나무수예를 좋아하는줄은 안지 오래답니다. 사시절 변함없는 소나무수예를...》

그것은 늦게나마 눈을 뜬 리성의 속삭임이였다.

## 나는 못떠나

림선철

철새들 깃을 찾아

바빠 날으는

고향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정깊은 이 땅에

때없이 속삭이는 말

나는 못떠나

내 태어나기전

분여지의 논두렁을 그려안고

눈물 흐르던 웃는 얼굴에

나의 아버지 비벼보고 쓸어보았다는

이 땅이 귀중해

가꾸는 진정

바치는만큼

알찬 열매로 우리 기쁨 안아오는

이른새벽 가시던 길 멈추시고

우리 수령님 웃으시며 안아보시던

그 순간에 한생을 이어놓고 사는

그 약속이 이 땅에 뿌리내려

씨앗을 묻고

열매를 거두며

소박한 마음들이 나는 정

비바람 세던 그 나라 그 발머리에서

넘어진 한대의 어린 모를 놓고

그 높았던 언성조차

나에겐 더없이 정들어

못떠나 나는 못떠나

우리 사는 세월의 인연이

오직 이 땅에 뿌리내려

희망도 미래도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이 땅이 귀중해

이 땅이 정들어

#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는 견지에서 볼때

-1.4 분기 《조선문학》에 발표된 시들을 읽고-

류 만

## 1

올해 1.4 분기 잡지 《조선문학》 지상에는 90 여편의 시가 발표되었다. 그가운데는 서정시도 있고 풍자시도 있으며 시초도 있고 련시도 있었다. 비교적 긴 시와 함께 짧게 씌여진 시도 있었으며 그 주제사상적내용이며 정서적색깔도 각각각색이었다.

각이한 시인들에 의하여 씌여진 다양한 시편들을 읽어보면 인상깊게 안겨오는 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들도 있었다.

비교적 인상깊게 읽을수 있는 시편들에서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제외없이 새로운 시세계를 펼쳐보이려는 시인들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적노력을 엿볼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나가면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아내야 한다. 예술의 력사는 창작가들의 끊임없는 창조적탐구와 정에 발전하여나간다.》**

창작에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고 작품마다에 새로운것을 내세우는것은 예술창작의 본성적요구이며 일반적합법칙성이다.

새로운것이 없으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며 누구도 공감시킬수 없다.

더우기 몇련 안되는 시작품일수록 거기에 현실을 체험하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시인이 새롭게 느끼고 발견한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는 단숨에 읽히면서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시는 끝나도 지울수 없는 여운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남겨줄수 있는것이다.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는 견지에서 볼 때 1.4 분기에 발표된 시작품들가운데는 주제사상적측면에서나 시형상의 측면에서 시인들의 사색과 탐구가 기울여진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서정시 《세월은 흘러가도》(구학철), 《간절한 소원》(김종실), 《아, 그이께서 오신다》(박함집) 등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와 존경,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는 뜨거운 심정을 토로한 작품으로서 물론 그 시적소재나 이상이 전혀 새롭게 개척된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는 숙영차와 승용차를 그대로 집으로, 집무실로 삼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은정깊은

사랑이 노래되고있으며 (시 《세월은 흘러가도》) 지금은 국제친선전람관에 보관되어있는, 아직 한번도 풀린적이 없는 낚시줄을 두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한순간의 휴식만이라도 바라는 간절한 념원이 (시 《간절한 소원》), 그리고 실무지도의 길에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제고장에서 맞는 환희와 감격 (시 《아, 그이께서 오신다》)이 비교적 진실하고 감명깊게 토로되고있는것이다.

시형상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난 시기 이러한 시들에서는 많은 경우 사변적인 이야기가 많고 시인들의 이러저러한 설명적인 투가 느껴지는 편향이 있었다면 이 시들에서는 그러한 편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필수록 시의 초점을 명백히 하고 사색을 집중시킨 흔적을 찾아볼수 있다. 이것으로 하여 이 시들은 비록 좀더 새롭게, 형상적으로 원숙하게 되여야 할 여지를 남기고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동적인 감정을 사회하기 위한 탐구과정에서 시인들이 기울인 사색을 찾아볼수 있게 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는 견지에서 볼 때 1.4 분기에 시인들은 또한 오늘의 벽찬 현실을 깊이 체험하면서 현실에서 감수한 다양한 감정을 새롭고 특색있게 일반화하는데서도 좋은 결실을 보여 주었다.

검덕의 수직갱 승강기에서 체험된 생활에 기초하여 창작된 서정시 《승강기 내려가네》(김종백)는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제목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시의 소재로 된것은 극히 평범한 생활의 한 토막이다.

...수직갱 승강기가 내려간다. 새 안전모를 쓰고 광부들과 함께 비좁게 올라탄 낯선 손님들, 그가운데는 개성의 방직공이며 평양-금골행 열차 승무원들도 있고 차레진 60 뿔 생일상을 그대로 들고온 단천할머니도 있으며 휴가온 군인, 향산골의 판매원도, 복통을 안고온 소년단원들도 있다.

시에서 노래된바와 같이 천정을 때리는 석수소리 섞인 천길 막장에 그들이 안온다고 탓할 사람은 없으며 와보지 않는다고 허물될 일 또 없는 것이다.

하다면 무엇이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고장도 다른 그들을 여기 지하막장으로 달려오게 한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 마련하는 행복 그대로



받아안기에》너무도 송구스러운 마음과 《돌과구를 열어가는 검덕의 큰 걸음에 제 작은 자옥도 남기고싶》은 간절한 소망때문이었던것이다.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뜻깊은 사연을 수직갱승강기가 내려가는 순간을 시적계기로 포착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을 집중시켜 시화하면서 《승강기가 내려가네 온 나라가 내려가네》라고 노래함으로써 당의 뜻을 받들고 온 나라가 검덕을 지원하는 시대의 벽찬 숨결을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검덕에 대한 온 나라의 지원을 노래하는 시는 지난 시기에도 적지 않게 씌어졌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표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체형세계를 통하여, 지원과 관련된 요란한 말마디들은 쓰지 않으면서도 《온 나라가 내려간다》는 얼핏 보면 너무 일반적인것 같기도 한 이 하나의 시구에 온 나라 지원의 뜨거운 심정을 집약한 여기에 이 시의 새로운 발견이 있으며 다른 시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것이다.

온 나라 지원의 뜨거운 마음을 수직갱승강기에서 뜨겁게 느낄수 있었던것도, 그 크나큰 충격과 감동을 《온 나라가 내려간다》는 극히 평범한 시구로 표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길수 있었던것도 다 시인의 예민한 감각과 거듭되는 사색과 탐구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시인은 이미 많이 노래된 생활내용이었지만 생활을 제눈으로 새롭게 보고 자기대로 사색하고 탐구해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노래할수 있었다.

서정시 《봄빛》(박철)이나 《저녁》(김송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시들의 소재는 극히 흔히 볼수 있는 일상사이다.

한 시인은 간석지제방 한끝 현장식당 모퉁이에 자리잡은 한때기 파발에 시선을 모으고있으며 (《봄빛》)다른 시인은 평범히 맞고 보내는 하루의 저녁을 두고 생각을 모으고있다.

어찌보면 한편의 시를 쓰기엔 너무도 작고 일반적인 사실같지만 그러나 시인들은 그것을 두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함으로써 시대정신이 비낀 사상감정을 웅심깊게 토로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봄빛》에서는 간석지제방쪽의 한때기 파발을 보고 느낀 체험세계가 높은 사색속에 승화되어 돌격대원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파발이 아니라 《80 만정보의 간석지에 넘치는 푸르른 봄》으로 느껴진다고 노래함으로써 간석지건설자들만이 느낄수 있는 보람과 긍지, 삶의 희열과 기쁨을 낭만적정서로 노래할수 있었다.

특히 련시 《우리의 하루》중의 서정시 《저녁》은 시적사색의 생활적인 구체성과 지성적인 높이, 폭과 심도의 웅건성으로 하여 새로운 시세계를 뜨겁게 느끼게 하며 철학적 여운을 강하게 안겨 준다.

나는 별이 흐르는 창가에 서있다.

아이들의 방에선

새 동화집의 책장넘기는 소리

부엌에선 기름이 튀는 소리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날이 남겼던 마지막시간조차

가지가지 즐거운 음향이 되어

머리우엔 언제나

웃어주는 별이 있고

발밑엔 내 디디고 선

행복이 있을 뿐

하늘땅 사이에 주인으로 내가 살아

조국이 이리도 고마운 저녁의 기쁨이여!

얼마나 웅심깊은 시적화폭이며 얼마나 가슴드겁게 하는 시세계인가.

사람마다 늘 맞고 보내는 저녁, 그 저녁에 누구나 들을수 있는 《책장 넘기는 소리》며 《기름이 튀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두고 그저 풍족한 생활의 만족과 기쁨만이 아닌 《하늘 땅 사이에 주인으로 내가 살아 조국이 이리도 고마운》줄을 느끼는 시인의 사색의 세계는 참으로 높고 아름다운것이다. 시의 계기는 평범한 저녁에 바탕을 두고있지만 시인의 사상감정을 벌써 그 저녁을 시대정신의 높이으로 한껏 승화시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람과 긍지, 조국의 품에 안긴 존엄높은 삶에 대한 환희와 량만으로 들끓으며 한껏 뿔어져 솟구치는것이다.

이러한 시적사색과 탐구는 련시 《우리의 하루》의 다른 시들에서도 느낄수 있다. 련시의 구성자체가 시인의 사색과 탐구의 산물이라는것이 느껴지며 또 그에 포함된 시들에도 사색의 번뜩임이 엿보이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긍정하면서도 련시의 일부 시들이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상념의 세계에서 사상을 펼치고 또 정서적인 감정의 생활적안받침과 축적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채 비약된것 등은 시인의 좋은 의도를 살리는데 일정한 지장을 주었다는것을 부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오늘의 불마찬 생활과 행복을 누리면서도 가릴처절했던 전화의 나날을 잊지 않고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목숨으로 조국을 수호했던 그때처럼 언제나 신들메를 조이며 오늘에 살며 싸우는 우리 시대 인간의 사명감과 자각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깊은 정서로 노래하고있는 《전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속에》(손승태)와 못잇을 고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을 다감한 정서로 노래하면서 숭고한 애국주의와 위훈에 대한 갈망으

로 불라는 심정을 절절하게 일반화한 《고향아》(최준경)와 《붉은네타이시절》(박세일) 그리고 민족분열의 고통과 조국통일에 대한 갈망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파쇼살인광인 전두환역적을 준렬히 단죄한 《박우물》(신병강)과 《돌박에 모르는 전두환》(김경기)등은 비교적 새맛을 주고 공감을 주는 시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최근 우리 사단에서 풍자시창작이 이리 저리하게 지향되고 왕성해지고있는것만큼 풍자시 《돌박에 모르는 전두환》이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을 좀더 이야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풍자시는 어디까지나 대상을 희화하고 풍자적인 웃음으로 타매하는것으로써 반드시 날카로운 풍자적조소와 웃음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풍자적대상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조소와 웃음이 없이 그저 욕설만 퍼붓는다면 그것은 풍자시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물론 풍자시에 된 욕설도 있고 정론적인 규탄도 있어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풍자적 조소와 웃음의 형상을 동반할 때, 예리한 풍자의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울려나올 때 응당한 무게와 힘, 타격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돌박에 모르는 전두환》은 풍자시창작에서 긍정적인시사를 주는 작품이다.

만팔라  
한잎을 쥐여줄 때도  
5천팔라  
두잎을 쥐여줘야 흐뭇해하는  
그래서 그 이름도 두환이라 부르는  
《전각하!》

이렇게 시작되는 작품에서 시인은 전두환역도의 더러운 이름풀이로부터 그놈이 추구하는 《두개조선》조작음모에 이르기까지 돌박에 모른다는 데 초점을 박고 놈의 인간적추악성과 반동적본성을 풍자적조소와 야유, 웃음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발가놓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둘이라는 의미를 전두환역적의 종말과 재치있게 결부시켰다.

둘을 그렇게도 좋아하신다면야  
그 소원 기꺼이 풀어주지 못하랴  
콩크리트장벽을 번쩍 들어  
으쩍 갈라주마  
네 이름이 두환이인것처럼  
네 대갈통도 두개의 환으로!

그 돌박에 모르던 두개골  
거적때기에 둘둘 말아  
둘이 그렇게도 필생의 소원인  
너의 두 상전에게 《선물》로 주마!

이처럼 이 시는 시종일관 풍자적형상속에서 시의 격조와 사상을 심도있게 천명하였다.

일부 풍자시들이 풍자적인 조소와 웃음에 의한 형상의 예리화로써 대상을 타매하기보다는 서툰 정론적규탄을 앞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할 때 《돌박에 모르는 전두환》의 풍자적형상은 풍자시창작에서 전진을 보여준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새로운것을 발견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의 자취를 여러 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좋은 인상을 주는 시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작품들의 경험은 이미 다른 시인들이 다른 일이 있는 소재를 취급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시를 창작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것, 새로운 시세계를 찾아내야 그 시가 살아날수 있으며 독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참된 길동무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2

새로운 시세계의 탐구의 견지에서 볼 때 1.4 분기에 발표된 시작품들가운데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감흥을 주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씌여진 작품들도 있었다.

어떤 시들을 읽어보면 시인들은 이러저러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생활의 특성에 맞게 형식도 새롭게 하고 형상의 색깔도 돋구느라 애쓴 흔적이 없지 않으나 일부 시들이 인차 시야에서 거침없이 사라져버리고 지어는 저조하게까지 생각되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1.4 분기에 발표된 시작품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문제의 하나가 일부 시작품들의 경우 시인의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된 뚜렷한 주장-초점이 없이 이러저러한 생활현상과 감정세계를 그것도 상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엮어놓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시작품들의 경우 생활속에서 체험되고 충격받은 시인의 강한 느낌이 없이 그저 시적대상과 관련하여 또 그에서 환기될수 있는 이러저러한 감정이나 련관된 사실들을 《예상》하거나 《종합》하여 정서적으로 소화하지 못한채 그대로 시줄에 옮기는 현상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작품일수록 종자가 새롭고 참신하지 못하고 따라서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형상적초점도 명백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작품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을 잡다한 생활사실들이 끼여들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편향은 시 《검덕의 마음》(리영복), 《영원히 26 호선반을 따라》(리의석)등 작품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찾아볼수 있다.

《검덕의 마음》에서 시인의 미학적주장은 쌓이는 쇠돌산이 금골의 마음인줄 알라는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 전반에서는 그것을 살리기 위함으로 사상을 집중시켜나가야겠으나 검덕이 보고싶어 왔다는 전제로부터 회상을 펼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쇠동발, 태양등, 인차 등 널리 알려진 사연을 새삼스럽게 더듬으면서 이것저것 시에 끌어들이고있는것이다. 그러다나니 시인의 주장은 주장대로 남고 시상은 집중되고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시의 사상감정이 일반적인것으로 되어버리고말았다.

시 《영원히 26 호선반을 따라》에서 26 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내용을 시줄에 그대로 옮긴것도 《날려라 영광의 기발이여》에서 《붉은기》호 기관차의 사연을 두고 화전의 그날로부터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의 나날을 거슬러 오늘에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것도 다 시인의 미학적발견에 기초한 뚜렷한 초점이 없고 또 이러저러한 초점으로 형상을 집중시키는 경우에도 그 감정이 새롭고 참신하지 못하고 일반적이며 산만하게 전개되고있는데 있다.

시에 시인의 새로운 발견이 있다고 하는것은 생활속에서 새롭게 잡아챈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형상적초점이 뚜렷하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뚜렷이 부각하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초점이 없이 이러저런 느낌을 점철해놓는것은 결국 어느모로 보나 시적발견과 거리가 멀다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에 뚜렷한 발견이 없이 이러저러한 감정을 점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것은 직업의 영예와 긍지, 보람을 노래한 작품들에 대한 문제이다.

1.4 분기에만 하여도 《사돌공》, 《양식공》(오제신), 《직포공쳐너들》(문기창), 《차갈이공에게》(조창선)등 각이한 직종과 직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초소에서 헌신해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을 노래한 시가 창작되었다.

물론 그들 서정적주인공들은 숨은 영웅들이거나 생산혁신자들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것은 서정적주인공들의 직업상특성으로부터 오는 공정이나 과정에 대한 이러저러한 설명이다. 어찌보면 시의 제목자체의 요구로부터 공정이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드는것은 불가피한 느낌을 주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소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매 직업에 따르는 작업공정의 특성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설명을 주고 뒤끝에 그 직업의 의의와 노동에 대한 평가, 또는 미래와 결부된 결의를 시적으로 강조해주는것과 같은 창작태도는 흔히 보아온것이며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의 유형을

낼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이런데 비해볼 때 시 《날마다 만나는 사람》(김취조)의 경우 철길원을 노래한 시이긴 하지만 시인은 그의 미담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황적으로 제시하면서 주로 거기에서 보고 느낀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새롭게 천명하기 위한 견지에서 사색과 탐구를 심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는 우리 시대 숨은 영웅의 정신세계를 비교적 높은 경지에서 생동하게 부각해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떠한 직업을 노래하든지 거기에서 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부각하기 위함엔 힘을 넣어야지 직업이나 직종을 바꾸어가면서 모범적인 사실이나 작업공정을 소개하고 설명하여서는 시의 생리에도 맞지 않거니와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할수도 없다.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는 견지에서 볼 때 1.4 분기 시작품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문제의 하나가 시의 결구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과학론문의 맺는말처럼 시마다에 결속말이 따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또 시인의 미학적주장과 시의 정서적흐름이 반드시 결구에서만 집약되는것은 아니다.

시의 소재적특성과 감정조직에 따라서 또 시인의 창작적개성과 다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시인의 사상감정이 다양하게 표현될수 있으며 또 표현되어야 한다. 어떤 시들은 시작과 마감이 각이한것만큼 특별한 결구가 없이 시의 흐름속에서 시인의 미학적인 주장이 정서적으로 강하게 타올라 그 자체로서 독자들의 심장을 울려줄수도 있으며 또 어떤 시들은 감정을 조화롭게 토로해 나가다가 결구에서 새롭게 터드리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1.4 분기 시들을 읽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적지 않은 시작품들에서 시인들이 결구를 통하여 자기의 미학적주장과 새로운 발견의 진가를 형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있으며 또 시의 인상과 여운이 결구와 뗄수 없이 련결되어있다고 생각할 때 시에서 결구는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인것이다.

개개의 시편의 경우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의 견지에서 볼 때 결코 결구는 시 전반에서 추구된 감정정서의 질과 농도, 색깔과 통일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그것은 사상정서적측면에서 시전반의 정서적흐름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인의 미학적주장을 섬광처럼 번뜩이게 하는 그런 심오하고 의의있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너비뛰기선수가 일정한 거리를 가속도적으로 달리다가 결정적순간에 강한 도약으로 목적을 이룩하듯이...

이렇게 놓고 볼 때 시 《승강기 내려가네》, 《봄

빛》, 《저녁》 등 작품들이 인상깊고 여운있게 된것은 결구의 《덕》을 크게 입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즉 이 작품들에서 시인들은 평범한 일상사를 생활적감정으로 노래하면서 그것을 결구에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일반화하여 그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미학적주장을 토로한것으로서 결국 시전비나에서 토로된 사상감정이 새롭고 웅심깊게, 의미 심장하고 진실하게 울릴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들은 결구에 응당한 힘을 넣지 않음으로 하여 더 오를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시 세계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한 작품들가운데는 《목련화》(정렬), 《자매도에서》(강남섭)와 같이 노래된 사상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머문 시들이 있는가 하면 《금골의 시내가에서》(한정규), 《빈자리》(한원희)와 같이 흥분된 감정의 축적과 정서적 준비도 없이 주관적 의도가 그대로 로출되어 주정토로가 억지감이 나고 과장된 시들도 있으며 《생활의 한토막》(리석)과 같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수 없는 시들도 있는것이다.

물론 이런 작품들가운데 시전반의 감정흐름이 비교적 생동하고 조화롭게 된 작품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결구를 잘 처리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시들이 있었다는것을 부언하는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발견이 있는 시일수록 시의 결구가 심오하고 특색있게 되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창작에서는 결구에 응당한 품을 들여야 할것이다.

새로운 시세계를 탐구하는 견지에서 볼 때 1.4분기 시인들속에서는 생활적인 시, 짧은 시형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형식을 탐구하려는 지향이 이모저모에서 나타났으며 거기에는 비교적 새롭고 특색있게 씌여진 시편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들도 있었다. 특히 자연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현상에 의탁하여 감정을 토로한 시들의 경우 시인의 미학적리상이 높지 못하고 단조로우며 지난 시기의 그런류의 시들보다 전진이 느껴지지 않았다는것을 지적해야 할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시초 《한 당일군의 일기장에서》(리석)를 염두에 두고있다.

일상 생활속에서 보고 느끼는 생활감정을 통하여 참된 당일군의 풍모를 갖추어가려는 지향을 일기형식의 주정토로로 시화하려는 시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의도와 함께 그 구현을 위한 형상적인 사색과 탐구의 견지에서 볼 때 사색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나 시대정신의 높이에 있어서 이 시초의 시들은 새롭게 느껴지지 않

며 일부 저조한 느낌까지 주는것이다.

시초의 시편들은 그 비유대상이 대체로 향기풍기는 꽃, 배나무의 밑거름, 겨울철의 낚시군, 대동강의 밀물과 썰물로 되어있다.

이런 자연현상을 비유의 대상으로 설정할수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선적으로 비유되면서 단순히 너처럼 되리라는 식의 결론이 매 시에서 한결같이 로출되고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비유자체가 유치하고 시인의 미학적리상이 너무 단조롭고 저조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시에서는 시인의 주장이 자연현상에 의거하였지만 뻔드름하게 드러나고 거기서 새것이란 쉽게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특히 《생활의 한 토막》같은 시는

...

아, 추운 겨울날  
강반에 홀로 앉아있는 낚시군을 두고  
사람들이 즐겁게 주고받는 말  
이 가슴 깊이깊이 울려주누나

-너에겐 천만심장 끌어당길줄 아는

크나큰 힘이 있느냐

-너에겐 무슨 일이든 하고파하게 하는

저렇듯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느냐

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인상깊은 겨울날이어

라고 노래함으로써 당일군의 자세를 겨울철에도 제가 하고파 낚시질에 정신을 판 낚시군에 비유했는지 아니면 낚시군을 겨울철에도 강으로 끌어당긴 그 무엇에 비유했는지 도대체 이해할수 없게 하였다. 그 어느 경우거나 이러한 비유는 부정확하고 지성도가 낮으며 뜻이 닿지 않는다.

자연에서 체험한 감정을 노래하고 생활에서 체험한 사상감정을 자연에 의탁하여 노래하는 시는 얼마든지 쓸수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것을 찾아내고 사색과 탐구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깊이 하지 않을 때 그러한 시는 미학적리상의 지조성을 드러내고 시에서 류사성과 도식을 가져오는데로 벌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사상정서적측면에서나 시형상의 측면에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아내는 심정으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함으로써 창작되는 시 한편한편이 시단을 특색있게 장식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여운을 주는 사상예술적으로 품위있는 작품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 안 연

리복은

## 1

골동품상점에서 나온 《광명병원》안과의사 오기석의 손에는 보자기에 쓴 웬 물건이 들려있었다.

그는 그 물건을 사느라고 한달수입금에 맞먹는 돈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컬어 수백년 전 유물이라 하는 사기꽃병이다. 비취색바탕에 참나무그림을 놓은 그 꽃병을 현대도자기업자들은 비웃으며 만들지 모르지만 오랜 유물이라는데서부터 그 값도 현재에 와서는 이렇듯 엄청난 것이었다.

그는 오늘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부속병원 원장 홍달호로부터 닷새후 벌리는 연회에 꼭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는데 거기로 가자니 자연히 손에 들것이 걱정되어 한동안 갑자르던 끝에 드디어 골동품상점으로 발길을 놓았던 것이었다.

유물을 보면 그것이 갓난아기 기저귀에 달았던 단추진 상관없이 오금을 못쓰는 홍달호였다. 닷새후 있을 연회를 미리 예고한것을 보면 분명 연회를 핑계대고 무엇이나 공짜로 먹을수 있는거라면 다 걸어들어겠다는 수작이 분명한 것이어서 오기석은 홍달호가 오금을 못쓰는 골동품을 사는데 본의아니게 마음을 크게 먹고 호주머니먼지까지 털어낸 것이다. 먹일바치고는 홍달호의 입귀가 터지도록 하는것도 실은 이런 세상에서 한수를 더 뜨는 일일지 모른다.

다방이며 음식점들이 탁지탁지 들어앉은 골목길을 헤어난 오기석은 이윽고 자기의 개인병원이자 집인 사랑채 대문을 빼걱 열고 안뜰로 들어섰다.

인차 안방에서 류행에 따라 머리카락을 실하게 늘어뜨린 딸이 급히 나와 물건을 방아들었다. 그리고 딸은 보구레미의 무게를 가늠해보듯 한변 손저울질을 해보고나서 나직한 소리로 묻는다.

《뒷을 샀어요. 아버지?》

《꽃병이다.》

《얼마짜리예요?》

《...》

오기석은 한순간 딸의 얼굴을 훑쳐보고나서 값을 불러대었다.

《어마나?! 그렇게 비싼걸 샀어요...》

딸은 다시 보구레미 술가리를 헤쳐보며 《정말 요즘 돈은 휴지장보다 못하다니까. 장사치들은 체면도 없어요. 가짜는 아니겠지요?》하고 쏘아붙인다.

오기석은 그러는 딸이 오히려 더 귀엽게 여겨

저 무심코 미소도 흠뻑 지으며 속으로만 대답해준다.

(너도 살아가느라 다 알 때가 있느니라. 요 귀염바치야.)

했으나 오기석은 재차 쏘아붙이는 딸의 성화에 입을 열고야말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기분에서 홍선생이 이번에 한턱 낸다는걸 너도 알지 않니... 증정품으로는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것이 좋지...》

네가 그나저나 대학을 지금껏 다닐수 있게 된것을 생각해서두... 또 병원이 말썽없도록 한것을 봐서두 거뵈한거야 들고갈수 없지 않느냐...》

《아버지, 알아요. 너무 비싼거니까...》

딸은 골동품이 결국은 얼마후이면 대학을 졸업할 자기와 또한 병원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물건임을 알게 되자 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쳐놓고 싶지 않았다.

《자, 돈타령은 그만하고 저녁이나 먹자. 배가 다 출출하구나...》

오기석은 이제 들어갈 안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딸은 비로소 생각난듯 방금과는 다른 어조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지금 대기실에서 한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석은 문득 사랑채 끝머리에 있는 대기실쪽으로 시선을 옮기었다. 그리고 한동안 멍청히 서서 잠자코 있더니 언짢은듯 피로가 느껴지는 어투로 중얼거렸다.

《거참, 치료해주어 보낼거지 늦도록 잡아둘건 뭘냐.》

《치료하고 약까지 뺐지요 뭐.》

《그런데두 여적 남아있어? ...》

오기석은 갑자기 의하한 생각이 들어 한걸음 딸한테로 다가섰다.

《아버지를 만나겠다는거지요 뭐,》

《청년? 몇살이더냐?》

《스물댓...》

오기석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었다.

혹시 한창 피는 딸의 미모에 이끌려온 비위살이 좋은 청년은 아닐가. 오기석은 부러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청년이 나를 만나자는것을 봐선 필경 네가 환자를 성의없이 치료해준 모양이구나.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

딸은 아버지의 충고가 가슴에 맺히는지 방금

환자와 자기사이에 있었던 일을 재빨리 말하였다.

동공결막염으로 오는 눈병이라는 처방에 환자는 코방귀만 끼며 제나름의 《처방》을 내려고 우기는 상경이질이 있었다는것이다.

《그래 환자는 왜 자기 눈병이 네가 내린 처방과 달리 시신경마비에서 생긴거라고 우기더냐? 근거가 있겠지! 어디 소견을 말해봐라.》

딸은 방금과는 다른 아버지의 거동앞에서 한동안 움지락거릴뿐 대답을 못했다. 아버지가 물어본 그 뒤에는 반드시 자기로서는 생각 못하는 어떤 웅심깊고 의미심장한 뜻이 실려있음을 느껴본 데서였다.

딸은 지금 외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있었다. 올해 졸업반으로서 졸업전 마지막실습을 아버지의 손탁밑에서 하는중이었다. 의술을 닦는 수련이가 대학부속병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혼시와 눈초리를 받도록꼭 된데는 이 개인병원의 원장이자 치료의사인 오기석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흥달호가 승낙하여 마련된것이다.

그리하여 딸은 이 기간에 아버지의 의술을 모조리 익혀두느라 극성도 여간 아니였다. 했지만 아직 자기의 의술에서 공허감을 느끼며 아버지의 엄한 꾸중을 받고는 눈물도 몰래 훔쳐볼 때가 그 몇번인지 모른다.

한동안 말이 없던 딸은 이윽고 입술을 한번 가만히 감빨고나서 나직이 대답했다.

《근거란 펍 단순한거예요. 언젠가 머리에 된타격을 받았는데 그때 시신경이 자극을 받았다는거예요.》

순간 오기석은 가슴에 무엇이 와 박히듯 훔칠 놀라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딸을 쳐다만 본다.

《...?!》

(된타격이라니... 그러지않아도 지금 안전기획부에서 데모에 나섰다가 부상당한 환자들을 개인병원들에서 치료해준다고 말이 많은데...)

오기석은 환자에게 쏘리던 한가닥의 마음마저 싹 베어버리며 돌아섰다.

《애, 밤도 되여오는데... 환자를 어서 돌려보내거라...》

오기석은 성큼 걸음을 옮기였다.

《아이, 속상해. 진찰을 받고싶어하는 환자를 어떻게 돌려보낸담...》

오기석은 딸의 목소리에 서너발자국 옮겼던 걸음을 멈추었다. 당국의 퍼런 눈초리가 무서워 환자에 대해 아닌보살하러 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고보니 지금 자기는 의사로서 량심도 없는 행동을 하는상싶었다. 아니,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한테 죄를 짓는것만 같았다. 문제가 제기될 때 딸은 당국의 눈초리를 받아도 일없고 아버지인 자기는 환자를 밀어버린 그것으로 무난히 보내자는 속심의 무엇이 더 다른것이 있는가. 아,

이렇게도 몰인정한 인간이 되었는데. 의술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 오기석은 딸의 목소리같기도 하고 환자의 목소리같기도 한 그 어떤 목소리에 일순 몸을 떨었다.

《애, 잠깐. 아직 환자가 있단말이지. 나를 꼭 만나겠다는거지. ...》

《예...》

《...》

오기석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대관절 어떤 청년인가?

데모에 참가했던 인물이라고만 단정한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제나름의 생각이였다는데로 마음이 쏠리자 그는 마음을 돌려 환자를 찾아 진찰실로 들어갔다.

순간 그의 눈동자로는 땀에 폭 절은 격자직과 이샤쓰에 밤색바지를 입은 얼굴이 의원 환자가 확 비겨들었다. 오기석은 환자의 물끝에 한층 놀랐다. 빈민굴에 살면서 《생활전선》에서 님이우는 최하층의 청년임을 오기석은 얼른 가려보고는 얼굴을 붉히였다. 이대로 환자를 그냥 내보내다면 어떻게 될번했는가. ...

이윽고 몇마디 실무적인 말들이 그들사이에 오갔다.

오기석은 한술을 들어 환자의 앞에 내대였다.

《정확히 보이오?》

《씨원치 않습니다.》

《그렇소? 언제부터 눈이 아파났소?》

《이젠 한달이 펍 넘습니다.》

《용케 견디였소. 무슨 일을 하오?》

《별로 직업이라고 할만한것이 없습니다.》

《그럼...》

《비상품도매소에서 일했는데 그만 눈타에 밀려났습니다.》

오기석은 고개를 버릇처럼 끄덕였다. 그는 본인의 말에서 나왔다는 그 《된타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무엇때문애와 같은 질문이 그 《된타격》뒤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것이여서 오기석은 그런 말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것처럼 여기며 치료에 달라붙었다. 차라리 병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것이 마음편한것이다.

딸의 진단은 옳았다. 오기석은 환자가 우겼다는 그 신경마비가 눈병의 원인으로 되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스러운것처럼 여겨지였다. 헌데 매우 난처한것은 몇번의 치료로는 청년에게 밝은 눈을 줄수 없다는 그점이었다. 각막이 파손되면서 생긴 병이었던것이다.

혹시 생활난애 쫓기던 나머지 돈과 제 눈각막을 바꾼것이 아닌지?... 요즘 피도 팔고 눈도 팔며 사는 사람은 그 수가 나날이 더 늘어나는판이다. 재차 환자의 눈상태를 들여다보고난 오기석은 언젠가 이와 비슷한 환자를 치료해보았던 일

이 불현듯 돌이켜졌다. 각막을 어느 병원에서 떼낸 후 치료를 방관시킨 탓으로 눈병이 수습하지 못한 지경으로 되었는데 그때 환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선생님, 자기 눈을 팔아도 살아가기 힘든 이 어지러운 세상에 대고 무어라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보이니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오기석은 그날 치료를 단념하고 외판방에서 꿈 꿔 갑자르며 자기 의술의 무능력을 한탄했었다.

《우리 애가 뎨 처방이 옳소. 약은 받았소?》

《예...》

환자의 눈동자에는 일순 간신히 피어난 불꽃과도 흡사한 생기가 비껴갔다. 유능한 안과의사에게 눈을 보였다는 일종의 안도감으로 해서 피어난 생기의 불꽃이었다.

오기석은 환자의 얼굴에 떠도는 한가닥의 미소를 보자 사람들에게 밝은 눈을 주자고 의술을 닦은 자기의 의무가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얼마후 환자는 방에서 나갔다.

환자가 나가자 오도카니 앉아있던 딸은 일어나 얼굴을 밝게 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정말 아버지한테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는군요. 호호호.》

《넌 이겼다고 웃는구나.》 하고 딸의 응석을 받아주듯하던 오기석은 인차 낯색을 바꾸고 말했다.

《헌데 넌 하나를 진찰 못한것 같다.》

역시 매사에 세밀하고 엄격한 아버지였다.

《넌 웃었지. 의사의 얼굴에 웃음이 해퍼선 안된다. 그래 환자의 눈동자에서 본것이 무엇이나? 극상 병명만 찾아냈지... 원인은 따져보지 않고... 각막이 분명 누구한테 묘하리만큼 수술된 흔적을 가려봤느냐? 못봤지, 눈병의 원인이 된 타격을 받았기때문에 생긴건 아니다. 각막을 떼후 치료를 잘하지 않아 눈도 지금 그 지경에 빠진거다.》

《아이, 끔찍해...그때 그... 그 각막을 판것이 원인으로 되어서...》

《허허... 그런 환자를 대할라면 나도 진땀이 나고 속이 떨리는걸 어쩔수 없구나...》

그들 아버지와 딸은 지금 눈이 멀어져 차라리 어지러운 세상을 보지 않게 되어 좋았던 그 환자를 생각하고있었다.

## 2

사흘이 지나서 오기석은 자기 딸을 쫓내기의사로 대해준 그 청년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방금 진찰이 끝났다. 소독수에 손을 씻고난 오기석은 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는 이제는 오른쪽 눈까지 피가 저있는 청년을 다시한번 띠어보고나서 새삼스러운듯 한마디 물었다.

《젊은이, 내 물음에 허심히 대답해야 하네. 솔직히 말해주게. 각막은 언제 떼냈소?》

《예?!》

순간 피빛이 앙킨 청년의 두눈은 튀어나올듯 휘둥그레졌다.

《뻘뻘하게 알리네.》

오기석은 강조하듯 한마디 더 하였다.

《...각막을 떼내다니요?!》

《아니란말인가?!...》

오기석은 사뭇 놀라며 청년의 눈동자를 이윽히 지켜보았다.

《지금 왼쪽 그 눈에는 각막이 심히 파손된 상태네.》

《...선생님, 그건 잘못된 말씀같습니다. 아무리 먼 제눈에 수술칼이 닿는것도...》

오기석은 한층 더 놀랐다.

《?! ... 그렇지 않다는거요?!》

《예...》

《눈은 현재 뻘뻘한 흔적이 확실한데?》

《그럴수 없습니다.》

청년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해쓱해졌던 얼굴에 빙긋 미소를 실었다.

오기석은 매우 당황해졌다. 사흘전 병명을 놓고 청년이 싱갱이를 부렸다면 딸의 말이 문득 뇌리로 굴러왔다.

《어디 한번 눈을 더 봐야겠소.》

오기석은 흔들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년은 그러라는듯 눈을 슬며시 감고 의사에게 얼굴을 내대었다.

오기석은 마음을 다잡고 환자의 눈꺼풀을 뒤집었다. 그리고 환자가 동공에 구멍이 날듯 살살이 살피며 진찰을 해나갔다. 분명했다. 각막은 어느 사람의 손에 의하여 묘하게 도려졌다는것이 틀림없었다. 다른 흔적은 없었다. 각막을 떼후 치료만 적극적으로 했다면 눈은 현재상태까지는 되지 않았을것이였다.

《음-》 하고 가벼운 소리를 속으로 내지른 오기석은 손을 댄바치고 오른쪽 눈도 보고싶어 각막을 찾던 그 시선을 그대로 다른 눈동자로 옮기다가 불시에 몸을 떨며 머리를 번쩍 들었다. 왜서인지 이어 얼굴까지 새하얘졌다.

미간에서 왼쪽눈동자로 약간 내려올듯말듯한 눈두덩에 돋은 작은 기미를 본것이다.

눈앞에서 무엇이 얼른거린다.

그는 어느새 환자한테서 물러났으며 자기 몰골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다. 그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 어떤 알지 못할 환각의 세계에서 넋을 잃고 서있는것만 같았다.

《선생님, 어디 몸이 편찮습니까?...》

《아, 아니요... 본래 빈혈이 좀 있어서...》

오기석은 그제사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자기자  
리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마음을 가파스로 진정하고서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눈에 아픔이 오기 시작한지가 한달이 된다고  
했던가요?》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오기석은 수궁하듯 고개를 약간 끄덕이었다.

《군은 금년봄에 외과대학 부속병원에 갔던적이  
없소?》

《…》

《없으면 좋은거고…》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안전기획부에서 선생  
님같은 개인병원에 경계선을 치고있다는걸 알고  
서도 전 찾아왔습니다. 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더 해보자니 당장 보이지 않는것이 급해서말입  
니다.

금년봄 전 학생데모에 나갔던 몸입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선생님한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

청년의 입에서 학생데모라는 말이 울려나오자  
오기석은 눈을 슬며시 감았다.

《되타격, 학생데모… 공연한 소리가 아니군…》

그는 등골이 오싹 저려나자 눈을 번쩍 떴다.

《그래 데모후 어떻게 됐소?》

오기석은 저도 모르게 물음이 나갔다.

《퇴학맞았습니다.》

사실 물으나마나였다.

《선생님, 여기 뛰여든것으로 해서 말썽이 생기  
면 제가 다 말아나서겠습니다. 선생님이야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여하튼 군은 속히 눈을  
고쳐야 하… 하오.》

이때 딸이 진찰실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오기  
석은 환자앞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곤경을  
치르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딸에게 처방전을 재빨리 써서 주며 속히  
약을 가져다 환자에게 주라고 일렀다.

처방전을 받은 딸은 라틴어로 갈겨쓴 아버지의  
필적을 새삼스러운듯 읽어보더니 아버지와 환자를  
번갈아보며 뺨을 뺨힌 사람처럼 서있었다. 병  
원에서 비상용과 다름없는 고가의 약명이 처방전  
에 찍여져있었던것이다.

《속히! … 꼭채로 가져오거라.》

멍청히 서있는 딸에게 하는 오기석의 재촉의  
말은 호령이 가까웠다.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쫓기듯 딸은 방에서  
급히 사라졌다.

얼마후 딸이 방안에 들어왔다.

오기석은 봉합이 된 약팩을 딸한테서 통채로  
받아가지고 주저없이 청년한테 내밀었다.

《받게, 약이네.》

청년은 안절부절 못했다.

《받게, 쓰면 차도가 있을거네.》

이윽고 청년은 굳어졌던 몸을 풀며 호주머니속  
에서 종이에 쓴 가쁜한 무슨 물건을 꺼내었다.

《… 값이 되겠는지…》

《됐네, 도로 넣게.》

오기석은 쥐여주는 돈을 뿌리치었다.

《어서 넣으라는데… 이러단 정말 돈까지 사람  
을 잡겠네.》

환자가 방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오기석은 그가  
사라진 문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딸은 커다란 의문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성급  
히 물었다.

《웬일이예요? 아버지…》

《ैया… 오늘은 더 묻지 말거라. 난 혼자 있고  
싶다. 환자가 오면 네가 대신 치료해야겠다.》

《아버지, 어디 몸이…》

《…》

오기석은 딸을 한번 볼뿐 더 말이 없었다.

돌연 방안에 무덤속같은 정적이 깃들었다.

《창문을 좀 열거라. 가슴이 막 답답해 견딜수  
없구나.》

《아버지, 웬일이세요… 편치않으면 어서 방안  
으로 들어가 누우세요…》

《응, 늙자.》

### 3

어떻게 하루밤을 보냈는지 오기석은 눈을 뜨자  
바람으로 딸한테서 가슴 섬찍한 말을 들었다. 헛  
소리를 치더라는것이다.

《그래 내가 뭐라고 중얼대더냐?》

오기석은 이즈러진 얼굴로 딸에게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 이렇게 몇번 뇌이시더  
니 갑자기…》

《그래 뭐라더냐?》

오기석은 급해맞은 사람처럼 딸의 말허리를 동  
강내며 다시 물었다.

딸은 얼굴을 붉힌채 소곳이 고개를 떨구었다.

차마 아버지가 친 그 헛소리를 그대로 옮길수  
가 없었던것이다. 생각할수록 몸서리치는 헛소리  
가 아닌가.

《난 그한테서 눈을 빼앗지 않았소! 아니요. 아  
니요!》 이렇게 헛소리를 친 아버지였다. 빼앗다니,  
아버지가 무엇을 빼앗았던말인가. 환자를 위해  
서는 얼마나 극직한 아버지인가.

맥빠진 웃음소리가 아버지의 입에서 갑자기 흘  
려나와서야 딸은 번민속에서 헤여났다.

《허허허… 도무지 나도 뭘지 모르겠다. 혹시  
꿈결에 염라국에 가 대왕과 한바탕 싸운 모양이  
구나. …》

《오늘은 제가 치료실에 앉아있겠어요.》

이날 오기석은 딸에게 치료를 몽땅 맡기고 한



것 안방에서 잡념을 털어버리자고 요새 못봤던 신문이며 의학잡지 등을 읽고나서 오후무렵에 거리로 나갔다.

한강의 잔교를 따라 산책도 하고 공원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다보니 어느덧 해를 뉘엿이 넘겨버렸다. 그는 한층 번잡해진 거리로 발길을 내맡기었다. 거리의 랑전에 붙어있는 별별 광고장들이 그의 눈길을 끌며 겨끔내기로 나타나서 오기석은 정신이 다 얼떨떨해지었다. 요새 더 능지의 오물통에서 썩으며 돌는 곰팡이처럼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광고장들이었다. 방금 그는 해외에 나가 2-3 년간만 있으면 일확천금을 모을수 있다는 어느 《인력수출》 회사의 얼림수 인부모집광고장을 읽어봤는데 얼마후 그의 앞에는 코가 매부리같은 한 사나이의 능글맞은 미소에 머리카락을 잔뜩 형클어떨군 녀자 아닌 녀인이 맞장구미소를 짓고있는 어느 관광소의 《써비스백프로》 광고짝이 나타났다. 만화도 아니고 추상파미술도 아닌 그 《써비스백프로》 광고짝에 구역질이 난 주먹을 불끈 쥐고 옆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젠장, 털보의 가슴팍에 개다리권총을 내댄 미국영화광고장이 눈에 걸려든다. (저놈도 인간을 살인하는 도적놈, 강도단놈이로군. ...)

오늘 처음으로 거리를 걸어보는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광고판들도 아니건만 여간 정신이 얼떨떨해나지 않는데는 그 자신도 알수가 없었다.

눈을 뜨고서는 차마 볼수 없는 저 광고장들을 두고 무엇이랴 말해야 옳은가.

오기석은 까닭모를 반항심에 사로잡혀 자꾸만 목이 달아올랐다.

그 청년, 그 환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있을 것인가. 데모에 참가했던 청년이고보면 필경 자기로서는 견주지 못할 그 어떤 거대한 힘을 안고있는것이 아닌가. 살아가자 해도 그렇고 더 무엇을 하자고 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모든것을 각오하고 병원을 찾았다고 했지. 더 무엇을 하고싶었다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이 길로도 그 청년이 파썬독재정권퇴진과 학원의 민주화를 웨치며 달렸을거라 생각하니 오기석은 어쩐지 걸음이 무거워지었다. 이것 역시 평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무겁고 어지러운 생각을 쫓으며 스즈스적 걷는 사이 해도 자기를 피해 숨어버린듯 사라지었다. 다만 멍이 들었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빛같은 노을이 서울시내 하늘의 한쪽귀퉁이에 걸려있을 따름이었다.

시간도 썩 지났음을 새삼스레 인식한 오기석은 걸음을 빨리하였다.

한동안 걸어가던 그는 한쪽으로 빠진 갈림길에

구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웬 사람이 자기를 찾는것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오기석은 청을 걸어온 사람쪽으로 몇걸음 나갔다. 본도로와 한쪽 골목새로 뻗어나온 작은 길에서로 교차된데서 집을 만채한채 처박혀있는 자그마한 마차가 눈에 띄었다.

한강에 이맘때면 올라오는 화물선에서 짐을 받아실고 구루병환자의 다리목같은 불품없는 그 지름길을 따라 오다가 리득은 커녕 그만 마차가 빠져 시간도 힘도 몽땅 진창에 쏟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상 싶었다.

창출간에 동정심이 복받친 오기석은 서둘러 짐군한테로 다가갔다.

마차뒤에서 짐군이 나오며 중얼거린다.

《...바퀴가 낡아빠져서 이만한 진창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

순간 오기석은 와들 놀라며 걸음을 딱 굳히었다.

《아니?! 임자군그래? ...》

눈을 잃은 그 환자였다. 한쪽의 눈은 딱지처럼 만든 봉대에 눌러워있었다.

《선생님이군요!》

청년도 환성을 올렸다.

《허허 참, 나요... 무슨 짐작들이요?》

오기석은 결박끈을 잡아당겨보며 청년의 얼굴을 눈치시 쳐다보았다. 그새 얼굴은 펴 축잡다.

《그저...》

청년은 두리몽실하게 대답해버렸다. 의사에게 약값을 물고싶어 샅을 내어 짐마차를 얻어가지고 나선 청년이었다.

오기석은 한번 더 옆으로 청년의 얼굴을 띠여 보았다. 그 인상적인 기미가 눈땀지를 맨 두줄의 끈 사이로 또렷이 보인다.

《눈을 치료하고 일을 해도 할게지...》

《약을 써보니 썩 낫습니다.》

《계속 중단하지 말고 써야 하오.》

《선생님...》

《...아... 알만하오.》

《면목이 없습니다.》

《그만하라는데...》

오기석은 목이 꺾 잠기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죄는 과연 누가 해야 하는가?

오기석은 가슴이 떨려났다. 그는 청년을 한옆에 꿰어앉히며 나직이 물었다.

《금년봄에 데모에 나섰다고 했지요. 허허허... 솔직히 알고싶어 그러오. 그날은 바로 토요일 오전 봄비가 내리던 날이지. ...》

추억의 실머리를 잡느라 애쓰는듯 오기석은 허

궁 한곳을 주시하며 군침을 넘기었다.

《예? 선생님이 어떻게...》

청년은 흠칫 놀라며 말끝을 삼키었다.

전두환괴뢰정권퇴진을 부르짖으며 웨치던 구호들, 서로 어깨를 걸고 바리케이트인양 대오를 짓던 억센 팔뚝들, 힘과 피와 심장이 하나의 도가니속에서 끓던 대오와 대오들... 어찌 그날을 잊으랴.

피가 튀고 최루탄이 튀고... 그후 불의의 정황에 부딪쳐 경찰의 곤봉에 맞고 쓰러진 순간 눈에서 튀던 불꽃, 그다음 몇시간 지속된 암흑의 세계...

바로 그날이었다.

...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부속병원 수술실로 오기석이 급히 호출장을 받은 그날은 이해 첫 봄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저녁무렵이었다.

원장 홍달호가 정문까지 나와있다가 그를 맞이하였다.

하체에 비해 상체가 들쭉지게 퍼지고 턱에는 부두살이 늘어져있는 홍달호를 대하자 오기석은 등골로 얼음조각이 흐르는듯한 감을 느끼었다.

홍달호는 상냥한 어조로 부르게 된 까닭을 직방 말하였다.

《급히 오선생의 손이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각막이식수술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각막이식수술이라는 소리에 오기석은 사뭇 놀라며 홍달호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

《놀랄건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안과 의사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야 오선생한테 전출만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하고 오기석을 힘껏 취울리고난 홍달호는 계속 지껄이였다.

《다르게 아니고 최장관(전두환의 턱주거리에 바짝 붙어사는 국회의원이다.)의 아들이 위싱턴 류학을 앞에 놓고 그만 공교롭게도 왼쪽눈에 타박상을 받지 않았겠소.》

부르지 않을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리해해달라는것인지 권력자의 아들녀석의 눈을 고쳐준다는 중지감을 가지라는것인지 오기석은 홍달호의 거동이 묘연하고 오강뚜껑으로 물을 퍼먹으듯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났다. 따지고보면 안속은 뻔하였다. 영광이 차례지라고 메스를 쥐여주는것은 백번 아닐것이였다. 수술후 경과가 예상외로 나빠져 책임문제가 제기되면 제 목건사를 위해 미리 방패를 치느라 부른것이 분명한것 같았다. 또

그 반대의 경우라 해도 넝쿨채로 떨어진 호박에서 자기한테 썩은 꼭지 하나 쥐여줄 홍달호가 아니였다. 단지 자기의 출세와 권세를 위해 오늘은 몸을 제공해야 한다는 속심을 오기석은 대뜸 간파하였다.

그것을 말해주듯 홍달호의 위압적인 말이 다시 울려나왔다.

《참, 요즘은 안전기획부에서 시끄럽게 굴지는 않는지요?》

《법벌이도 씨원히 되지 않는데서 무엇을 찾고 시끄럽게 굴겠소. ...환자치료대장은 받아갔지만...》

《허허허, 그 량반들이란...》

홍달호는 롱트림하듯 꺾꺾 웃었다.

《요새 대학에서 불온학생들이 란동을 부리는데 방금도 그것을 진압하느라 경찰들이 땀동이나 흘렸더군요... 딸에 대한 통제를 각별히 해야 합니다. 혹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면 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다. 이제 한해만 공부하면 아버지의 뒤를 몇몇이 이을 딸인데...》

수술과 인연이 없는 이런 예외적인 《동정》에 오기석은 오히려 얼굴이 간지럽고 가슴은 가위에 놀리는듯 답답하였다. 웅하지 않으면 병원도 또 딸의 앞날에도 벼락을 치겠다는 암시가 아닌가.

사실 오기석의 운명은 바람목에 말긴 등피없는 불과 다를바가 없었다. 이력저력 경영하던 병원은 이즈막에 와서 약비난에 허덕이는데다 당국의 눈에 났는지 안전기획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오는 판이었다. 봄절기에 접어들자 더했다. 정부의 퇴진이요, 학원의 민주화요와 같은 구호를 들고나선 《불온자》들의 은신처가 개인병원의 울타리속에 있다는데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지금 개인병원들에 대한 《지도》라는 명색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몇몇 병원들은 한지에 나앉은 신세에 처해있었다. 정부를 반대한 데모자들중 경찰의 방망이를 받은 환자들을 치료해주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해서였다.

오기석은 언제 자기 머리에 무슨 그런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마음을 조이는중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진찰보다 머리에 낮게 떠서 돌아가는 검은 구름을 더 살피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오기석이었다.

머리위에 드리운 그 암운은 시시각각으로 오기석을 불안에 몰아넣고있었다. 바로 지금 빚어지는 일도 구경은 오기석을 질식시킬 암운의 한조각에 불과할따름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괴뢰침도 없는 자기 운명에 순응하며 잠자코 홍달호를 따라 수술실로 들어갔다.

두 간호부의 수술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복판에 놓인 수술대우에는 백포를 씌운 한 환자가 누워있었다. 누군지 가려보지 못하게 미리 온통 봉대로 얼굴까지 감아놓은 환자다. 이제 각막을 떼내야 할 환자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인지 오기석은 알수 없어 뒤에 서있는 홍달호를 얼핏 훑어보았다. 허자 홍달호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사늘한 미소가 비웃듯 비껴갔다. 오기석의 심정을 알만하다는듯 눈길도 매섭고 쏘듯 있었다.

《환자의 강경한 요구도 있어 디카인 대신 전신

마취를 시켜놓았습니다. 돈때문에 제 눈을 파는 것이 본인도 부끄러운지 자기 정체를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여간 요구가 강하지 않아 우린 지고말지 않았소. 방금 마취를 했으니 환자의 고통같은데는 상관할바가 없을것 같소.》

잔말 말고 시키는대로 어서 환자의 눈에서 각막을 도려내어 최장관 아들녀석의 눈에다 이식하라는 언명이였다.

오기석은 천천히 환자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메스를 받아야 할 한쪽 눈만 봉대를 해치고 드러난채로 누워있는 환자를 멀뚱히 쳐다보던 시선속으로 작은 기미가 오기석의 동공을 찌르며 물려들었다. 미간 아래쪽에 살짝 박힌 기미였다. 그는 그 흔적을 보자 공연히 서글퍼졌다. 부모가 준 흔적이 아닌가, 환자의 부모는 지금 자식이 수술대에서 눈을 돈과 바꾸고있다는것을 알기라도 하는지, 알고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가...

자기도 자식을 둔 아버지였다. 그는 한숨을 깊이 몰아쉬며 환자의 몸에서 시선을 뺐다...

환자가 오늘 낮에 전두환피뢰정권퇴진과 학원의 민주화를 웨치며 거리에 펼쳐나섰던 연세대학교의 학생이라는것을 오기석은 수술을 끝낸 그후에도 알지 못했다. 경찰의 저지선앞에서 공교롭게 곤봉에 맞아 정신을 잃은후 피묻은 몸 그대로 홍달호의 음흉한 손에 감쪽같이 끌려와 수술대에 오른 환자라는것을 그자리에서 오기석이 알았더라면 당초에 수술칼을 들지 않았을뿐더러 즉석에서 넋을 잃고 기절초풍했을지 모른다.

한 인간의 광명을 빼앗아 인간이 아닌 한 인간에게 넘겨주도록 꾸민 홍달호의 출세작극은 준비부터 막을 내릴 때까지 철두철미 비밀에 붙여있는데 눈을 백주에 빼앗긴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물론 눈에서 각막을 빼앗긴후 청년의 위치는 병원이 아닌 어느 침침한 감방으로 정해있었고 또 거기서 전신마취되었던 몸도 풀고 정신을 차렸었다. 청년은 정신이 들자 눈알이 빠지는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것이 곤봉타이라고만 믿었지 백주에 각막을 잃은 그 끔찍스러운 일때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응당 감방의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있으리라 믿었다...

그 청년이 틀림없었다. 지금 청년의 침묵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있었다. 이제 더 무엇을 물어보라.

오기석의 뇌리로는 돌개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지금 청년은 자기가 누구의 손에 의해 몰래 병원으로 끌려갔으며 그다음 어떤 의사가 눈에 메스를 댔는가를 모르고있었다. 홍달호와 공모한 서퍽짜리 인간, 그 의사가 옆에 있다고 청년이 알면 과연 일은 어떻게 될가...

오기석은 이 모든것이 아직은 비밀로 붙어있는

것이 불안했고 또한 가슴저리도록 안타까웠다. 말해주자니 입에 자갈이 물린듯 허바닥은 굳어져있다. 이런 고민의 도가니속에서 심장을 만나마 태워버린 오기석은 가슴이 쓰리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환자가 고민한다면 필시 눈병은 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질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의 아픔은 그것을 말해줄만한 용기를 주지 않고있었다. 수치였다.

음흉한자에게 속히워 의사의 량심과 인간의 지성을 더럽혔던 일이 저주로왔다. 최장관 아들놈은 수술후 결과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홍달호는 하루새 버락형재를 했다. 박사감투를 그 덕에 받지 않았는가. 더럽다! 살인자의 꼭두에 월계관을 씌워준자도 그 덕에 붙어 아부와 부귀를 노리는자도 다 악당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기석은 앉아있는 땅덩어리가 금시 두쪼각으로 동강나는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힘을 내어 청년에게 래일 꼭 병원에 찾아오라고 당부하였다.

청년과 헤어져 집에 들어선 오기석은 방문을 열자바람으로 딸을 불렀다.

《애, 술이 있느냐?》

《... ?!》

딸은 어안이 병병해서 아버지를 멀뚱히 쳐다만 보며 서있었다.

술에 대해서 그닥 흥미를 느끼지 않고있던 아버지였다.

《안주는 필요없다. 어서!...》

아버지의 호령같은 요구에 딸은 병병한 어안을 풀새도 없이 부엌으로 내려가 장에서 술병을 뽑아가지고 인차 방으로 들어와 술을 잔에 부어 내밀었다.

《고맙다...》

공복에다가 잔도 엄청나게 큰것이여서 오기석은 대번에 취기를 받았다.

《넌 이 애비가 뭇으로 보이느냐?》

오기석의 질문은 말꼭지부터 의미심장하게 울려왔다.

딸은 웬 영문인가싶어 아버지를 여전히 말뚱히 쳐다만 본다.

《애,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 애비가 진짜 의사같으나 ...》

《아버지... 오늘은 어찌된 일이세요? ...》

《놀랄건 없다. 난 의사가 아니었다.》

《... 아니예요. 아버지는 벌써 취하셨나봐요...》

오기석은 갑자기 꺾꺾 웃었다. 정말 취한것 같았다.

《그래, 그래 취해 살았지. 아니, 이놈의 세상을 누르고있는 더러운 공기에 취해 살았지. 약을 주고 병을 고쳐주면 다 만사로 되는줄... 알...알았지. 허허 참, 세상이란... 애비손에 피가 묻어있

는것이 보이느냐?》

오기석은 한손을 들어 딸에게 보이며 두눈을 쪼프렸다.

《...》

벌써 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었다.

《애야, 난 그...그 청년의 눈에서 각막을 빼냈구나. 그 청년의 광명을 빼앗아냈구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니!》

오기석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너와 다툼바 있는 그 청년의 각막을 도려낸 의사는 바로 나다. 그것도 백주에...》

순간 딸의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방바닥에 떨어 떨어져 모재비로 넘어졌다. 다행히 깨지지 않고 병모가지로는 딸의 흐느낌처럼 술이 꿀떡꿀떡 쏟아졌다.

오기석은 얼른 병을 쳐들었다.

《<광명병원>, 무엇이 광명이란말이나, 어디에 빛이 있느냐말이다. 너를 위해서도 그렇구 조용히 살아가자 했는데 어디 숨이 가빠 살아가겠느냐 모질구나.

오늘... 아니 방금 난 그 청년을 또 보았구나.

약값을 벌어 나한테 갚자구 샅마차를 끌더구나.

그 눈을 가... 가지구...》

《아버지, 아버지진 그런 의사가 아니예요. 그런 아... 아버지가 아니예요.》

드디어 딸은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와락 묻으며 눈물을 터치었다.

오기석은 제 손으로 다시 술을 한잔 따르어 단숨에 쭉 들이키었다.

오기석은 딸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며 청년의 눈에서 각막을 빼내지 않을수 없었던 자기의 처사에 대해서 천천히 말하였다.

딸은 아직도 아버지의 무릎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가슴에 찬 먹물을 이 밤 강그리 태워버리려듯 오기석은 빈술병을 한번 더 기울였다.

(아, 답답한 세상이로구나.)

## 4

그 이튿날 홍달호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고난 오기석은 또다시 무덤속에 몸을 잠근듯한 기분으로 사로잡혀있었다. 백주에 남의 눈을 강탈해낸 그 비밀이 어느새 새어나가 지금 온 대학이 물끓듯 한다는 전화가 그에게 걸려온것이였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분을 돌려야겠다고 홍달호는 으름장을 놓고는 오기석이 어서 대학에 나와 떠도는 그 모든 소문이 날조된것이라고 말하라는 강박의 전화를 받은것이이다.

이번에도 자기를 끌어내려는 홍달호의 요구에 오기석은 화가 치밀어 창문을 탁 열어제겼다. 여느날 없이 찌물쿠는 더위가 방안으로 몰려들었다.

날씨는 금시 한소나기를 퍼부을것만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기는 매일반이다. 어제는 한 인간의 넋을 뽑아냈다면 오늘은 수십, 수백의 겨레들의 넋과 광명을 빼앗아내라는 수작이 아닌가!

(고현놈! 속히워 산것만 해도 천당에 가서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오기석은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었다.

바로 이때였다. 얼굴에 땀동이를 들 쓴 딸이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대학에 나갔던 딸이다.

《아버지, 종내 일은 터졌어요.》

딸은 숨이 넘어갈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오기석은 이미 알고있는데려서 별반 놀라지 않으며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안다, 너도...》

오기석은 한껏 상기된 딸의 얼굴을 조심히 쳐다보았다.

《온 대학이 떨쳐나섰어요. 그리고 연세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호소문까지 보내왔어요.》

《연세대학?》

오기석은 문득 청년의 얼굴이 떠올라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은 아버지의 예리한 눈길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말보다 더 큰것을 암시해주는 딸의 호소에 오기석은 두눈을 슬며시 감았다.

딸은 마음을 다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각막을 백주에 빼앗긴 청년의 내막이 드러나자 연세대학에서는 성토회회를 열고 우리 대학에 호소문을 낸거예요.》

어제 아버지한테서 들은 가슴떨리는 그 이야기를 환자청년에게 죄다 말한 딸이였다.

딸은 그때 들은 청년의 말을 아버지에게 다 옮기고싶은듯 다시 입을 열었다.

《...청년은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만 잘못이 있는것이 아니라 했어요. 눈을 뜨고도 못보는 이 사회가 아닌가고 말이에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청년의 말처럼 자기 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것말예요...》

《그래, 넌 어떻게 하자는거냐?》

오기석은 딸의 한팔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어조로 물었다.

한순간이면 모든것이 끝장나는 판국이였다. 운명은 벌써 결정되거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오기석은 아직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한가닥의 알지 못할 그 어떤 근줄에 매달리고있는 자기를 억제할 힘이 없었던것이다. 최상의 기력을 요구해야 끊을 그 줄이였다. 그것은 딸, 바로 줄업을 앞둔 제 살불이의 운명에 매워진 줄이였다.

그래서 오기석은 딸의 말을 듣고나자 불현듯 마음이 심란해졌던것이다.

딸은 한동안 아무 대답을 못한채 웃고름만 만지작거리고있었다.

이윽고 딸은 결심이 된듯 저고리안실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들었다. 차곡차곡 접은 종이였다.

오기석은 얼른 종이를 받아 펼치었다. 낯익은 딸의 필체가 확 안겨들었다. 이제 대학으로 가서 성토대회장 무대로 나가 읽을 토론문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한테서 들은 홍달호의 죄행에 대한 내막이 신랄하게 씌여있었다. 아버지가 아니면 바로 그 비밀을 아는 두번째의 증언자 자기가 말해야 한다는 자각을 딸은 벌써 이미 가지고있었던 것이다.

오기석은 딸의 토론문을 본래대로 차근차근 접었다. 거기에 다른 구김살이 가거나 다르게 접어서는 안된다는듯, 그리고 나서야 오기석은 종이를 내밀며 딸에게 말하였다.

《받거라. 구체적으로는 되지 못했지만 용다.》

오기석은 더 말이 없이 이어 말코지에서 양복을 찾아 입었다.

오리무중에 빠져 갈팡질팡하던 자기에겐 비쳐온 한가닥의 강렬한 빛발에 비로소 눈시울이 뜨거워진 오기석이었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옷깃을 거울에 비쳐보며 여미고나서 딸에게 말하였다.

《가자, 너보다 그래도 내가 나서는게 낫지, 첫번째 증언자는 내가 아니냐.》

《아버지...》

딸은 걱정을 누룰수 없는듯 입술을 감쌀며 아버지를 불렀다.

약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아만 가려던 아버지같지 않았다.

그것을 말해주듯 오기석은 장우에 놓여있는 골동품, 그 사기꽃병을 내려치고는 힘껏 마당밖으로 던지었다. 짜근- 하고 골동품이 깨지는 소리가 토방아래서 울리었다. 암운속에서 허덕인 인생과의 마지막 결별을 알리는 계시처럼...

이윽고 그들은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그런데 대문에서 퍼그나 멀리 나갔던 오기석은 돌연 걸음을 돌려 다시 집을 향해 발자국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대문앞에 이르러 걸음을 우뚝 세우고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한참 서있었다.

이어 오기석은 머리에 걸려있는 《광명병원》 간판을 떼내려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듯 쓸었다.

암흑속에서 광명은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 빛, 그 생명은 어디 있는가, 딸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와섰다.

《차라리 내손으로 떼는것이 낫지. 이제 곧 없어질 간판인데... 우리가 찾아야 할 광명은 싸우는 길이다! 이젠 가자!》

오기석은 간판을 대문뒤에 깊숙이 박아넣고는 인차 나왔다.

날은 침침한데 한층 더 찌물쿠었다. 분명코 소낙비를 몰고오는 구름장들이 벌써 서남쪽 하늘가에서 배회하며 서서히 떠돌기 시작하였다. 멀리서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 속담풀이

- **나간 사람 뭇은 있어도 자는 사람 뭇은 없다.**

게으른자, 일하지 않는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 **나그네 귀는 석자라**

① 보고들은것이 많으면 지식이 넓어진다는 말이다.

② 남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그마한 말이라도 다 듣는다는 말이다.

-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어도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 재능을 발휘할수 없다는 말이다.

- **나라가 흥하면 손님이 많다**

나라가 부강하고 남의 모범이 될만하면 많은 사람이 배우러 찾아온다는 말이다.

-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

큰 나무결에 선 작은 나무는 자라는데

지장을 받으나 사람은 훌륭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 **나무도 쓸만한것을 먼저 본다**

유능한 사람이 먼저 뽑혀서임을 이르는 말이다.

-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작은것만 보고 더 큰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것이 짧은것을 이르는 말이다.

- **나비도 밝은 불을 찾아온다.**

모든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곳으로 따라가기가편이라는 말이다.

- **나중에 나는 꿀이 우뚝하다**

자라나는 후대들이 자기 선배들보다 더 훌륭한것을 창조할 때 하는 말이다.

- **날면 기는것이 능하지 못하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일에 다 능할수 없다는 뜻이다.

시조

## 광주의 원한

-광주인민봉기 6 뒤에 즈음하여-

문재건

### 자유 공간

아, 자유  
목마르게 찾던 자유  
폭압의 총검에 짓눌렸던  
숨막힌 가슴들에 맥박친 자유

열흘 낮  
열흘 밤  
이 하늘  
이 땅우에 찾아온 자유

별많은 하늘아래  
꽃피는 정원에  
끝없이 펼쳐진  
꿈같은 너

파쇼와 폭압의 계선너머  
공정대가 도사린  
그 땅너머  
민주가 활보하던 이 거리

크지 않은  
광주의 하늘땅이  
우리것이었고  
내것이였다.

푸릿한 아침의 대기  
다양한 해발  
부는 바람조차  
격정에 끓던 열흘 낮 열흘 밤

그 색깔은  
민주를 지향하는

민중의 땀뿜은  
프랑카드에 채색되고

그 음향은  
통일을 갈구하는  
겨레의 거세찬  
함성에서 울려나왔고

그 열정은  
《자유광주》의  
뜨거운 선봉으로  
내 겨레 껴안아주었더라

목숨걸고 찾은  
귀중한 자유였기에  
한목숨 내걸고  
지켜싸웠다

열흘 낮  
열흘 밤  
길었던가  
짧았던가

캄캄한 암운을 뚫고  
《자유광주국》은  
고고성 터치며 빛을 뿌린  
너는 민주력사의 실체

그 열흘 낮, 열흘 밤  
피로 물들고  
정의로 가득차 끝없이 울려간  
성스러운 민중해방의 종소리여

### 바리케트

파쇼와 맞서  
죽음과 맞서  
5월의 그 밤에  
쏟아오른 바리케트

민주를 수호코저  
자유를 수호코저  
심장과 심장들이

쌓아올린 바리케트

피로 물들고  
주검으로 높아진  
불굴의 발리케트  
처절한 광주의 바리케트여

너는 원한서린  
피눈물의 폭우속에서  
항쟁으로 부른  
민주의 요새

숨쉬며  
꿈틀이며  
굽이쳐가는  
광주의 바리케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팔십만이  
《자유광주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죽어서도 버리지 않는  
항쟁의 성새  
승리의 아침 향해  
거연히 솟아있는 광주의 바리케트

원한에는 원쑤가 있고  
빛에는 채무자가 있나니  
력사는 심판하리라  
무고한 광주의 피값은  
헛되지 않으리

## 붉은 잎사귀

공정대놈들  
미친듯 쏘아대는  
총탄의 소낙비에  
하나 둘 쓰러지는 대학생들

그들 머리위에 가슴우에  
줄박한 붉은 피우에  
우수수 한잎, 두잎  
내려앉는 가로수 파아란 잎사귀

아, 봄의 락엽이여  
때아닌 5월의 락엽이여

너는 흐르는 피에 젖어  
붉은 잎사귀 되었구나

통분코나  
때이르게 가야 하는  
가야만 하는 아까운 청춘들  
몸부림치는 광주의 5월이여

홍악무도한 파쑈의 광풍속에 훑날리는  
5월의 붉은 잎사귀는  
불꽃이 되어  
격문이 되어 온 세상에 날린다.

## 창문

싸늘한 아침에도  
올려다보고  
해지는 저녁에도  
올려다본다

어제도 닫겨있고  
오늘도 닫겨있는  
거리의 저 창문  
잊지 못할 저 창문

이제라도 금시  
활짝 열어제낀 저 창문으로  
그날의 그 청년  
불쑥 나타날듯

《독재타도》의 프랑카드  
혜성처럼 날리며  
민주, 민권을 불러  
시위의 거리에도 날 부를듯

가슴치던  
절규의 그 음성  
치를 떨며  
미제를 고발하던 그 모습

불꽃은 가슴마다 남겨놓고  
열정은 심장마다 심어주고  
그는 어데 갔는가  
그는 어데 있는가

아, 언젠가는 열리고야말 그 창문  
그날처럼, 그때처럼  
열리고야말 마음의 창문

내가 아니면  
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기어코 열고야말 그 창문

## 광주의 5월

5월  
광주의 5월  
5월은 어둡다

해도 어둡고  
달도 어둡고  
거리도 어둡고  
사람들 얼굴도 어둡다

그 꽃나이 혈육을 잃은  
무고한 형제들고 벗들을 잃은  
원한과 슬픔이 쌓이고 엉켜서  
검은구름 되였는가  
황-  
번개치고 우뢰울어  
폭풍우라도 쏟아질듯  
어둡고 캄캄한 광주의 5월이어

봄도 잃고  
웃음도 잃은  
분노한 5월이어

원한의 5월이어

저 금남로의 피자옥이  
무등산의 백골들이  
살아서 호곡하는  
아, 절통한 5월

역적은 권좌에서  
애국자를 처형하고  
총검의 수풀속에  
민주가 피흘리는 캄캄한 5월

육신이 번개되고  
심장이 화불되어  
민주의 5월을 안아올수 있다면  
빛나는 5월을 안아올수 있다면

서슴지 않으련다  
백번죽어 가루되고  
천번죽어 흙이 되여도  
내 밝은 5월 기어이 안아오리